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 수목장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9월 27일(음력 8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59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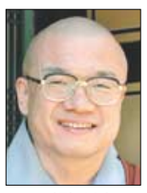
부처님 생애에 '나' 비춘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10월 11일부터 '팔상성도' 주제 8주간 강좌


종범 스님


월운 스님


지선 스님


지광 스님


수진 스님


통광 스님


성열 스님


원담 스님

광주불교사암련 · 지역신행단체 · 현대불교 공동주최

빛고을 광주에서 또 한번 '부처님 바로보기' 열풍이 시작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반인을 위한 열린불교 강좌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해 '불교 대중화' 바람을 일으킨 광주지역 신행단체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는 올해도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란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월운(동국역경원장), 지선(고불총림 유나), 지광(능인선원 주지), 수진(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통광(쌍계사 강주), 성열(강남포교원장), 원담(조계사 주지) 스님 등 선과 교, 포교를 망라해 이시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법사로 나선다.

법사스님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전 수행하던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에서, 마지막까지 옷 한 벌과 발우하나로 사시다가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라"는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열반에 드신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생애를 여덟 가지 테마로 나눈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법을 설한다.

강의가 끝난뒤에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강의중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사와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회로 이어갈 계획이다.

2006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일정표 동구KT센터대강당/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일 정	법 사	주 제
10월 11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도솔래의상: 선혜보살, 중생의 고통을 살피다
10월 18일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비람강생상: 길에서 태어나 뭇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다
10월 25일	지선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사문유관상: 싯달태자, 생로병사의 인간고를 목도하다
11월 1일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 주지)	유성출가상: 위대한 포기, 성(城)을 넘어 세상을 향하다
11월 8일	수진 스님(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설산수도상: 치열한 고행, 거짓된 나를 버리다
11월 15일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수하항마상: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연기(緣起)를 깨치다
11월 22일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 원장)	녹원전법상: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법(法)을 설하다
11월 29일	원담 스님(서울 조계사 주지)	쌍림열반상: 인간붇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잠들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것에 더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문제해결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며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과 사상에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춰봄으로 지혜로운 삶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는 광주시청 및 각 구청 불자회와 운전자회, 포교사단 등 광주지역 30여개 재가신행단체가 참가해 명실공히 호남을 대표하는 대중 불교 강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062)234-0090

이준엽 기자


'10대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첫날인 9월 16일 지관 스님이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전수행 통한 깨달음' 문 열었다

봉선사 강설대법회 1500명 운집 9월 16일 입제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가 공동 주최한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봉선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강설대법회 입제식은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석우 남양주 시장 등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월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경전의 세계를 넓고 깊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법회가 경전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철안 스님도 주최측을 대표하는 인사말을 통해 "봉선사가 이 같은 법석을 마련한 것은 교종본찰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자 하는 염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봉선사에는 항상 특별함이 있다. 오늘 이 법회는 그 특별함을 더 특별하게 한다"며 법회를 축하했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우리 지역의 경사"라고 법회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날 법회는 입제식과 지관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금강경>을 주제로 한 강설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9 · 24 · 25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불교계 IPTV 사업 추진

종단협 이사회서 검토 … 동북공정 관련 성명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가 차세대 멀티미디어로 주목 받고 있는 'IPTV 사업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종단협은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550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종단협, 조계종, BBS와,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교계언론 등을 중심으로 IPTV 사업추진을 구체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사무처는 조만간 방송 및 IPTV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종단협 차원의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함께 발전시켜온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며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국의 불교도들은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도반의 향기 17면
수덕사 문화해설사 박승병씨
불교여성복지현주소 4면
목각탱의 세계 23면
사찰생협서 추석준비 27면

"활황 분위기 쭈욱~ 밀고 가자"

불교계 출판사들 발행수 늘리고 홍보 · 영업 적극적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불교출판계가 책발간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격 마케팅에 나섰다.

본지 595호 1면 '불교출판 판매 잘나갑니다' 보도 이후 한국불교출판문화협의회(회장 원택)를 중심으로 불교계 출판사들이 여세를 몰아 출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첫 시발은 운주사가 맡았다.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대표는 "원고가 들어와도 어려운 여건때문에 그동안 많이 미뤘었다"며 "묵혀뒀던 원고를 모두 꺼내 11월까지 매주 1종씩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광출판사, 조계종출판사 여시아문 등 주요출판사들도 한달에 1종 이상을 발간해 전체적으로 보면 매주 10여종의 불교서적이 나올 전망이다. 불교계출판사들은 법문집과 학술서, 번역서, 교리서 등 장르도 다양하게 준비중이다.

영업도 적극적이다. 도서출판 민족사와 도피안사가 신문광고를 계획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방침을 정했다.

민족사 성재영 기획영업부장은 "불황이어서 투자할 엄두를 못냈는데, 호전된 분위기를 살려 신문광고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교출판문화협 회장 원택 스님은 "불교 출판사들이 불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위해서는 좋은 내용과 수준높은 편집 등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紅茶園
010-6699-5555
02)744-3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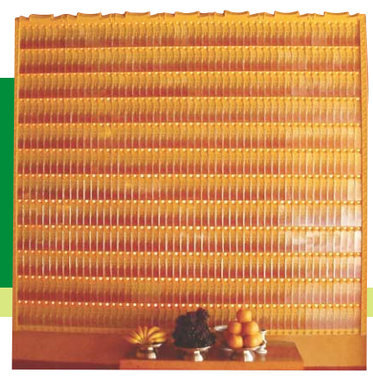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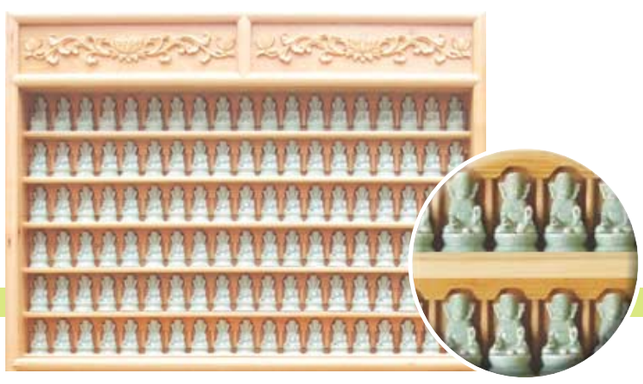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혜남 스님
화엄경/9월 30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지적재산권 보호 보다 적극적으로”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조계종은 9월 19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불교문화 콘텐츠 사용시 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르는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라디오 등 일체 제작물, 출판물, 모바일, 유무선 인터넷을 포함한 일체의 온라인 출판물, 사진, 그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체의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해당 사찰이나 종단의 승인이 필요해, 관련 문화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불교계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사진, 동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형태의 문화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종단 차원의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종단 산하 사찰이 소유 · 관리하는 불교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법규와 불교 재산 보존과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미주승가회’ 결성된다

도현 · 현철 · 원영 스님 공동대표 … 해외특별교구 역할 기대

해외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조계종 미주승가회 준비위원회(상임 공동회장 도현, 이하 미주승가회)가 10월 5일 LA 관음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현지 포교를 이끌 ‘종단 대표기구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장기적인 목표는 ‘해외특별교구 설립’. 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주승가회는 9월 2일 LA 관음사에서 미주 각 지역 대표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이틀날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법왕사에서 2차 모임을 열고 임원단을 선출했다. 상임고문에 도범(보스톤 문수사), 현일(오렌지카운티 법왕사) 스님을, 공동회장에 현철(LA 반야사), 원영(뉴져지 보리사), 도현(하와이 무량사) 스님을 선출했다.

또 조직을 미주 서부, 동부, 태평양 지부로 나누는 등의 세부 회칙도 제정했다.

이같이 미주승가회가 결성됨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를 총괄 · 관리하는 ‘해외포교 총본산’ 역할을 담당하는 종단의 공식 독립기구. 조계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 전체 규모가 대형화된 해외포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아직 조성하지 못했다. 현재 미주 지역에만 한국 사찰은 100여 곳. 이 중 조계종 소속은 80여 곳, 스님은 60여 명으로 집계된다.

미주승가회는 세부 밑그림을 속속 그리고 있다. 단체 성격을 ‘조계종 미주 대표 기구’로 선언하고, 설립형태도 ‘조계종 현지 비영리 법인체’로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이 미주 지역에 현지 비영리 법인체를 구성하면, 이후 미주승가회 소속 사찰을 등록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입과 동시에 사찰 재산권, 인사권, 감사권 등의 일체 권한은 법인체에 귀속된다. 이는 주지 교체 시 빈번히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LA 관음사 등 4곳 사찰이 설립절차 등에 의견을 공유한 상태다.

이같은 미주승가회의 움직임에 조계종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18일 미주 승가회 상임 공동회장 도현 스님의 예방을 받고 “포교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또 최근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해외특별교구 설립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총무 현문 · 기획 승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22일, 총무원 총무부장에 통도사 前 주지 현문(玄門 · 위사진) 스님을, 기획실장에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勝源)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종책 의지에 맞게 성의를 다해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주지 경험을 살려 총무원과 지역교구의 관계를 잘 살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승원 스님도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해 온 사람이 중책을 맡아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기획실 업무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선거 누가 뛰나?

문중 · 계파 신중히 ‘조율중’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10월 26일로 확정 발표하면서 각 교구본사 출마 예상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금강회, 보림회 등도 출마 후보자 선정과 직능 간선후보 선정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교구 내 문중과 중앙종회 계파간의 조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각 교구별 선거 출마예상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표 참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선거인단 직선으로 직할 4명, 해인사 3명, 각 교구 2명씩 총 51명, 간선 직능직(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각 2명)에 20명, 비구니 10명 등 총 81명을 선출한다.

직능선출은 교구선거 3일전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직능직 선출위원 6명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14대에는 포교원장이 공석이어서 포교원장 지분까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도 직능직 선출은 직능 전문 직능별 대표자가 아닌, 종단 정치적 안배와 조정을 통해 계파별 지명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수경, 지선, 명철, 통광, 종상, 정념 스님 등 직능직 선출위원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일승회 등 집권 계파내 유력 스님들을 중심으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원장 청화 스님, 수경, 정념 스님 등이 추천하는 개혁 성향의 스님들의 진출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와 석남사, 동학사, 정혜사 등 각 문중별로 대표를 선출한다.

조용수 기자

제14대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별 출마예상자

교구	출 마 예 상 스 님 들
직할	지현(현 종회의원), 정범(총무원 총무국장), 자제(적조암 주지), 동광(현 종회의원, 도선사 前주지), 태연(약사사 주지), 동출(前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
용주사	성직(용주사 부주지), 심경(현 총무원장사서실장), 성효(前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환적 스님
신흥사	동선(총무원 기획실장), 도후(철원 심원사 주지), 홍진 스님
월정사	도완(현 종회의원), 정광(현 종회의원), 효림 스님(현 종회의원) 스님
법주사	노현(태백산 각화사 주지), 각원(前 총무원 재무국장), 정도(창룡사 주지), 현법(현 종회의원) 현광 스님
마곡사	장곡, 원경, 태진(前 총무원 호법국장) 스님
수덕사	정묵, 선광, 주경(서산 부석사 주지), 자명 스님
직지사	법등, 법보 스님
동화사	혜승, 법광, 선광(前 동화사 총무), 보정(전 총무원 재무부장), 선문(총무원 감사국장), 사요 스님
은해사	선조, 법일, 선광(은해사 부주지) 스님
불국사	장주, 종광, 정문(불국사 재무), 효웅(총무원 재정국장) 스님 원택(종회부의장), 진각(해인사 사회국장), 혜일, 심우(해인사 호법국장),
해인사	적광(해인사 전 사회국장), 대오(흥국사 주지), 도각(전 사자암 주지), 여연(일지암 주지) 스님
쌍계사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이암, 성전(남해 용문사 주지) 스님
범어사	상운, 원범(부산 선암사 주지), 정만(총무원 재무부장), 원법, 종훈, 범산(부산 영주암 주지) 스님
통도사	지준, 도문, 보현, 오심(前 통도사 교무), 범해(중앙선관위원) 스님
고운사	설송, 법조, 성묵(총무원 기획국장) 스님
금산사	평상, 일화, 법진(종회사무처장) 스님
백양사	토진(수국사 주지), 원일 스님
화엄사	일문, 덕문, 진옥(여수 흥국사 주지) 스님
송광사	무자(창원 길상사 주지),보경(서울 법련사 주지), 진화(광주 증심사 주지), 광민(광주 무각사 주지) 스님
대흥사	보선, 월우 스님
관음사	광조, 진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오심 스님
선운사	법경(수원 좋은절 주지), 보원, 성국(도솔암 주지), 혜오, 선법, 보은 스님
봉선사	보인(용문사 부주지), 송묵(봉선사 종무실장), 법해, 일관(불암사 주지) 스님

고운사 주지에 호성 스님 “수행 · 포교 강화”



“선수행센터, 전통강원 복원으로 수행과 포교에 중점을 두고 고운사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 9월 19일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후, 21일 주지 임명장을 받은 고운사 신임 주지 호성(昊星 · 사진) 스님.

출가 후 선원에서 정진해온 호성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무려 36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전임 혜승 스님의 뒤를 이어 8월 14일부터 주지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실질적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이끌어 왔다.

호성 스님은 “올해 말 시작하는 선수행센터 불사와 신라 의상 스님의 법맥을 잇는 전통강원 복원이 임기 내 마무리 되면 고운사는 수행과 포교의 중심 사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호성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87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고운사 선원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통일가사 점안식 … 법계제도 정착 계기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된 통일가사 점안식이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가사 500여벌에 대한 점안식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번 점안식은 종단 가사 통일 및 법계제도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남동우 기자

입장료 폐지 ‘기정사실’ … 문화재 관람료는?

최근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공언하면서, 조계종 관람료 사찰 주지스님들도 9월 19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여)는 이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시 내소사 등 9개 합동징수 사찰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회의는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범여(선운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현응(해인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원행(금산사 주지) 법일(대전사 주지) 스님 등 6명의 관람료 사찰 주지스님들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기획실 황찬익 차장, 종단법률자문위원,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호 소 문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죽장사는 2006년 9월 11일 총무원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죽장사를 검수 인계하고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하며 용무가 있을 시 해당 소임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미스러운 일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2006년 8월 23일 부로 법심스님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현재 사찰입구 플래카드, 내용)

2003년 이후 직지사(주지 성웅)는 죽장사 (주지 명효)에게 총무원에서 발행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종단에 재산을 귀속하도록 요구하여 현주지에게 주지사자 상승의 승계를 문서로 요구 하였지만 2006년 7월로 공권력 정지 5년 선거권 박탈의 중징계 이에 항의하여 죽장사(주지 명효)는 7월 20일 탈종을 총무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고 사찰임을 통보하고 현주지를 멸빈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 60여명의 스님 및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사찰을 무단 점거하고 조계종 호법부 검수에 응하라며 자물쇠를 절단하여 모든 짐을 강제로 이삿짐 센터에 유치하여, 주지, 총무, 공양주, 신도 5명은 불안한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재 배회하고 있습니다.

명효스님은 18년 동안 죽장사를 불사하고 (88. 7. 30) 직지사에 주지임명을 받고 매년 분담금 500만원을 2005년까지 완납하였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2006년 9월 11일 2시 40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동원된 경찰차(2대 6명)는 무단 침입과 자물쇠 강제철거를 항의하고 사진을 찍도록 요구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앞에는 법도 없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황을 개탄합니다.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을 조계종이란 특정집단이 힘으로 짓뭉게어 버리는 현사태를 조계종 총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루 속히 도량이 평정되어 옷한벌을 갖고 배회하고 있는 저희 주지스님, 총무스님이 기도에 정진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는 귀 종단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

2006년 9월 11일 신도대표



직지사가 임명한 주지 법심스님측에서 죽장사 출입을 통제, 철문을 봉쇄하고 있다. (9월14일 현재)



죽장사 입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 신도회장 김학송 • 부회장 김순희 이화선 박금숙 • 염불회 회장 권소희 • 부회장 김점숙 이해옥 • 거사림회 부회장 박응도 황병진 김윤석

대 한 불 교 죽 장 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절실해요"

불교계 활동가 첫 워크숍서 한목소리



불교계 국제협력활동가들은 9월 15~16일 도봉숲속마을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국제협력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약한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교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제3세계와 재해국가를 드나들며 국제구호와 협력활동을 펼치는 불교계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에 등록된 59개 단체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협력단체는 총 70여개. 이 가운데 불교단체는 지구촌공생회, 정토회 한국JTS, 진각복지재단, 경불련 이웃을돕는사람들 등 4개 뿐이다. 28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개신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해외원조비 총액면에서도 불교계의 활동은 개신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KOICA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NGO해외봉사단도 불교단체는 2곳으로 개신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은 총 10개 단체가 15개국에서 벌이는 긴급구호와 개발구호, 해외자원봉사 등이다. 그러나 불교단체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겹치기 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교계 국제협력활동가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주최로 9월 15~16일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워크숍에도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국제포교사회 등 14개 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첫 모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워크숍에서는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과제들이 쏟아졌다.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교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축, 공동대응기구 결성, 연대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불교계 활동가들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정기적으로 실무자회의를 열어 단체간 활동과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적 · 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한가위 복지관에 情 넘치네

송편나눔 · 무료급식 · 의료품 전달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올해 한가위는 징검다리 휴일까지 포함해 최대 10일에 이르는 대휴(大休)가 될 전망이다.

긴 명절기간 동안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 불교계 복지관이 마련한 한가위 축제에 참가해 어려운 이웃과 한마음을 나누는 의미있는 한가위를 보내보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솔마을710동 앞 소공원에서 '송편으로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진행한다. 이날 경연대회에 출품된 송편들은 한솔복지관이 쪄서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한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로 시집 온 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 9월 30일 열리는 '어울림 한마당-풍성한 秋 넉넉한 한가위'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이주여성 50명이 조를 이뤄 함께 한가위 음식을 만든다.

이주노동자 쉼터인 구미 보현의 집은 10월 1일 '제7회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큰잔치'를 개최하고 연휴기간 내내 쉼터를 개방한다.

이밖에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펼치고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의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석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전화번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26일	훈훈한 한가위 정 나누기행사. 장애인 ·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쌀, 한과, 감자떡 등 전달, 미니바자회 개최	(02)989-4215~8
과천종합사회복지관	9월 28일	추석맞이 행사 및 가화만사성	(02)507-6319~22
길음종합사회복지관	9월 28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 및 송편빚기	(02)985-0161
능인종합사회복지관	10월 12일	어르신 250명 대상으로 팔순잔치 및 위안공연, 중식제공	(02)577-5800
본동종합사회복지관	9월 30일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가위행사. 윷놀이, 팔씨름 대회, 투호던지기, 떡메치기 등의 민속놀이대회 및 무료건강검진	(02)817-8052~3
삼전종합사회복지관	9월 27일	장애, 비장애 아동 한가위 한마음대축제, 어르신 추석선물전달	(02)421-6077
은평노인종합복지관	9월 30일	추석맞이 후원물품접수	(02)385-135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9월 27~29일	재가어르신 추석선물 나누기	(02)2282-1100
청담종합사회복지관	9월 27일	자비의 쌀 나눔행사	(02)806-1377
한솔종합사회복지관	9월 28일	송편으로 나누는 행복한 세상	(031)716-4215
원종종합사회복지관	10월중	추석차례용품 나누기 행사 및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제수용품 나누기 행사	(032)644-0108
명륜종합사회복지관	9월 30일	결혼이민자여성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풍성한 秋 넉넉한 한가위'	(033)762-8131~2
구미보현의집	10월 1~8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가위 큰잔치	(054)458-0775
남구종합사회복지관	9월 20일	한가위맞이 선물음식만들기 프로그램	(053)476-7700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월중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의료품 전달	(054)633-6415~8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30일	추석맞이 재가장애인 후원금전달	(062)943-0420

부산 개신교 청년집회 불교계 진상조사 나서

지난 6월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며 종교갈등을 조장한 부산개신교청년집회 'Again 1907 in Busan'과 관련,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청년회, 부산불교신도회 등 부산지역 불교단체들은 9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은 "불교를 말살하려는 개신교 청년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진상조사와 법적 · 물리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조계종 종교평화위도 9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웃종교 간의 노력들이 '화합과 평화'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지금, 일부 교회의 청년들의 비이성적인 발상과 유아적인 행위는 이웃종교 간 대립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몇몇 선동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비판적이지 못하고 따라갔던 그들이 안쓰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 이은아 기자

지역 종교연합 문화행사 종지협서 1500만원 지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는 "지역의 종교간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종교문화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지역 종교문화행사 지원공모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서울지역 외에서 3개 종교 이상의 종교단체가 연합으로 주관하는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문화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행사에는 총 1500만원이 지원되며, 10월 9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다. (02)720-8776 박봉영 기자

강원도, 봉은사에 감사패

"수해로 고통 겪었지만 불교계의 도움으로 아픔 잊었습니다."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가 강원도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9월 20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를 방문했다.

김 도지사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주지 원혜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긴 시간동안 큰 도움을 준 봉은사 사부대중에게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봉은사는 지난 수해때 50명씩의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피해복구지원사업을 펼치고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은비 기자

동북공정 물의 빚은 中 사회과학원에

동국대 홍기삼 총장, 항의서한 보내

동국대 홍기삼 총장이 최근 '동북공정'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9월 19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홍 총장은 항의서한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일부 학자들이 양국의 상호 존중과 평화 전통을 깨는 활동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동아시아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사태는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학술강연을 할 계획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환경의제21' 선포 4대 실천사업 선정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환경의제 21 선포식을 개최한다.

불교환경의제 21은 △불교환경 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환경 관련 불교단체들은 △빈그릇운동 △사찰생태 모니터링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환경5계 제정 · 실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사찰음식 보러 오세요 '한 브랜드 박람회' 서 전시

조계종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찰음식 연구 및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한 브랜드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9월 15일 '전통사찰음식문화 보존회'를 결성했다. 회장에는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부회장에는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사찰음식보존회는 첫 사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한 브랜드 박람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을 전시한다. (02) 3011-1775 여수령 기자

추석 템플스테이 어디가 좋을까

청춘남녀 만남 · 수행 · 전통놀이 등 주제 다양

긴 연휴가 예상되는 올 추석.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박하고 아름다운 추석을 맞이하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에 따르면, 먼저 구례 화엄사(061-783-7600)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달빛 아래 일곱날'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계곡참선, 달빛참선 등 다채로운 수행프로그램 뿐 아니라 추석을 맞아 송편 빚기, 조상을 추모하는 고성염불기도 등 한가위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남 대흥사(061-535-5775)는 보다 소규모 단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새벽숲길 산책, 일지암 산행 및 여연 스님과 차담, 명상음악과 함께하는 자유정진, 스님과 윷놀이 한판, 추석차례시연, 붓글씨쓰기, 달마그리기 등이 작은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주 골굴사(054-744-1689)는 '큰 달과 함께 선무도 춤을'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부안 내소사(063-583-3035)도 가족과 함께 중추절을 보낼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다.

특히 고양 흥국사(02-381-7970)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미혼남녀들을 위해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춘 남녀들의 천년 만남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동시에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계룡 무상사(042-841-6084)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2006 추석참선 정진-Retreat'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자광사(042-822-9220), 연등국제선원(032-937-7033)도 외국인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남동우 기자

법장대종사의 열반 1주기를 맞으며 종도여러분께 드리는 글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법장대종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우렁찬 음성이 귓전에 울리고 그 활기찬 모습이 눈에 선한데 스님의 법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다만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할 뿐 입니다.

되돌아 스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스님은 정녕 산중과 종단발전에 헌신한 원력보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화두인 환경과 생명에 대한 실천운동에서 스님의 참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창립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의 활동을 통해 스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을 서약하셨습니다. 나아가 북한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구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을 적극 주도해 왔습니다.

- 스님께서는 2003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이란 기조하에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해 어느 때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 한국불교 분규의 상징인 구 총무원청사를 철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의 입주라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종단의 문장 '삼보륜'을 확정했으며,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거행하여 법계제도를 재정립하셨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사외감사제를 추진해 종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금을 확보하여 2004년 착공하였습니다. 포교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분되어 있던 신도회를 통합하고, 유명무실했던 국회 정각회를 제17대 국회에서 재창립토록 하셨습니다.

- 남북교류와 국제참여불교 활동면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신계사 복원불사를 시작하여 2004년 11월에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하셨고, 민족통일대축전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간의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입장차이로 중단되어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을 만나 불교적 평화사상으로 이들을 설득한 일은 국가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수해지역을 복구하여 조계종마을을 조성하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는 등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재임중에 원로스님들의 부름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않으셨고, 어린 학인들도 주저없이 맞아주셨습니다. 사회각계의 인사들의 방문과 각종 행사로 참시도 쉴 틈 없이 그렇게 늘 바쁘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님을 모셨던 부 · 국장의 교역직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의 노고가 심대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시절부터 스님을 따르고 뒷바라지 했던 신도와 많은 불자들, 각계 인사들의 관심과 지원에 저희는 지금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때로 일에 대한 열정에 비해 현실이 따르지 않아 스님께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는 즈음에 중앙박물관계약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저희들이 큰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공사가 엄정하고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시비와 다툼은 종단을 위해서나, 스님의 영전에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종회에서 결성된 특위에서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바랄뿐입니다. 나아가 혹여 일부 부족함과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대화합과 관용의 미덕이 발휘되기를 고개 숙여 염원합니다.

법장대종사 문도일동 합장 배례

여성복지 강건너 불

시설도 인식도 연구도 '부재중'


올해 1월 개설된 원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이주여성들. 사회 구석구석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제공=명륜종합사회복지관

양성평등시대, 불교여성복지 현주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불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불교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견된다. 불교여성복지분야가 바로 그렇다. 불교여성복지는 불교의 실천원리에 기반해 모든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 이혼녀, 윤락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여성, 이주여성 등 요보호 여성은 물론이고 일반 여성신도와 비구니 스님에 대한 복지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불교여성복지분야는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터무니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심 깊은 여성불자들이 한국불교 신도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종단의 48%를 비구니 스님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구석구석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교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있던 시설들도 문 닫을 판이다.

▷시설비율 100대 1, 척박한 불교여성복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과 10여년 만에 성장을 거듭, 현재 30여개의 산하복지시설을 거느린 대표적인 불교복지재단이다. 그러나 이중 여성관련 복지시설은 단 하나도 없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양성평등을 지나 여성상위 시대인데 여성복지시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수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여성복지시설까지 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발언해 복지 마인드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

여성복지에 관심 없는 것은 비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만이 아니다. 진각복지재단은 지난해 "강력한 종단적 의지를 갖고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 내에 10여명의 미혼모를 수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사건립기금 마련은 물론 세부적 계획조차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9년 발간된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에 따르면 600여개가 넘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총람에 등재된 여성복지시설은 여성노숙인생활시설 '화엄동산', 미혼모를 위한 대구 '자비의 쉼터' 단 두 곳뿐이었다.

최근 본지 조사결과 전국에 새로 생긴 불교여성복지시설은 이밖에도 세 곳이 더 있다.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여성노숙인을 위한 '희망의 집', 원주 명륜종합복지관이 이주여성을 위해 설립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미 보현의 집이 올해 운영을 시작한 '이주여성쉼터' 등이다.

여기에 분야는 다르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까지 더하면 전국에 불교여성복지시설은 총 여섯 군데인 것으로 집계된다. '여성복지'에 냉담한 불교 내부 사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숫자다.

▷현장은 치열, 불교계는 수수방관

이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복지현장에서의 오랜 활동을 통해 '불교계에도 여성복지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서 여성복지 활동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불교여성복지'라는 황무지를 일구는 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여성 차별적 시선과 불교계의 냉담한 반응에 지쳐 자포 자기한 심정을 갖게 되기 일쑤다.

화엄동산(소장 이인숙)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자리잡은 여성노숙인생활시설이다. 낡은 일반 주택을 개조해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그동안 500여명의 여성노숙인이 거쳐갔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의 지원을 빼면 후원금은 전혀 없는 상황. 따라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임동숙 사무장은 불교계의 무관심이 힘겹기만 하다. 임 사무장은 "만성적인 가부장주의, 구타, 성폭행, 실직 등으로 집에서 내몰린 여성들은 남성이 대다수인 노숙인 세계에서조차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며 "여성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사회는 물론이고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여성노숙인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때 되면 생색내기용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야풋리자(30)씨에게 일주일에 한 번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이 운영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일은 '생활의 낙'이다. 야풋리자씨는 이곳에서 한글과 한국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같은 처지의 베트남, 몽골출신 이민여성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는 모두 올해 4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열린 덕택이다. 이들 중에는 차비가 없어서 센터를 올 수단이 없자 다른 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참여열기가 높다. 외국인 여성들은 "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라고 입을 모은다.

센터 소장 현각 스님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발 빠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역설해오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간 예산과 지원이 없어 이를 실현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센터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각 스님은 "양성평등사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가조차 손을 뻗지 못하는 분야에 불교계가 눈을 돌려 적극적인 구재사업을 펼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쉼터' 운영을 시작한 마하부다사 구미 보현의 집 소장 진오 스님 역시 현장 활동을 통해 여성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우다.

진오 스님은 "여성은 임신과 출산, 가정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조산이나 유산이 잦고, 임신 때문에 일자리를 놓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낙태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모자보호센터나 쉼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계에도 불교여성복지는 '찬밥'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이 지원과 관심이 없어 운영을 포기하는 현실적 여건 외에도, 불교여성복지 관련 연구와 종단적 정책제시방향이 없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은 지난 2004년 여성노숙인을 위한 '여성인권쉼터'를 개설할 원력을 세우고 당시 NGO단체와 연계해 부산 사직동에 70여평 규모의 공간까지 마련한 상태였으나 현실적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정여 스님은 "불교여성복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모여 폭넓은 접근을 해야할 종합적인 복지분야"라며 "여성이 안고 있는 정신, 가정적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불교적 복지마인드와 여성복지의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불교여성복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쉼터를 개설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학자들도 불교여성복지를 실현하기에 앞서 연구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불교여성복지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없다"며 "불교여성복지를 이끌어갈 인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6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여성복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던 경도대 사회복지학과 전보경 교수도 "불교계 내부에는 여성복지 관련사례가 없고, 자료가 너무 빈약해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관련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영역과 대상자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론적 체계 세우고 시설 확충해야

일단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관계자와 실무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 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미 불교계에는 여성복지의 구심체가 될 사회복지재단과 법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여성복지로 외연을 넓혀 끌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 강화와 포교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구니스님이 중심이 돼 불교여성복지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교여성복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계종의 경우, 지난해 총 1만3035명의 소속 스님 중 비구니스님은 약 48%를 차지했다. 비구니스님들이 여성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 여성복지분야에 관심을 쏟을 경우, 불교여성복지 위상이 달라질 것은 여실하다. 이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의 위상강화는 물론 경제적 자립효과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성직자가 여성사회복지에 뛰어듦으로써 복지 전문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한 경우는 이웃 종교인 가톨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톨릭은 수녀들이 교단의 지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여성사회복지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성직자 노후복지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시설 10개도 안돼 …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한 곳도 없어

후원금 없이 정부 · 지자체 지원금으로 간신히 운영

노숙인 · 미혼모 · 이주여성 등 위한 '자비공간' 절실

사암오행침술 대특강
(제2기생 모집)

- 강 사 : 사암도인의 방편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
- 일 시 : 2006. 10. 13 - 12. 29 (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 6시)
- 자 격 : 승려신분증 소지자
-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 문 의 : ☎ 02) 3487-2311~3 / FAX : 588-1056 / H · P : 011-335-9351 (담당자)

사암오행침술 중급반 모집
(진단학 3개월 완성반)

- 강 사 : 덕운스님
- 일 시 : 2006. 10. 12 - 12. 28 (3개월)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오후 6시)
- 자 격 : 불자에 한함
-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 문 의 : ☎ 02) 3487-2311~3 / FAX : 588-1056 / H · P : 011-335-9351 (담당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3 **활 인 정 사**

대한불교 총원효종 창종 공고



귀의삼보 하옵고

해동초조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의 선양과
한국 불교 홍법의 사명을 종표로
다음과 같이 법인 등록을 필하고 창종개명 하였음을
대한불교 전종도들에게 공고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창 종

- 종 단 명 : 대한불교 총원효종
- 종교법인 등록 : 고유번호 502-82-66862
- 등 록 일 : 2006년 8월 23일
- 총 본 산(사찰) : 미타산 호암사
- 종 무 소(사무처) : 미 타 산 호 암 사
- 전 화 : 053)983-2157 / 팩스 : 053)986-0500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51-1

종 정 : 송철호(호암) 총무원장(임시) : 육대근(무애)
종회의장 : 김영렬(도원) 합장 (종회임원 등은 차후공지함)

불기 2550년 10월 27일

대 한 불 교 총 원 효 종

기존 포교방식 버려라

인구 10만 해운대 신도시, 타종교 공격적 전도에 포교는 '걸음마'

최근 기독교의 한 부흥회에서 나온 '해운대구 71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이같은 기도문구는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종교간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중인 해운대 신도시에 대한 타 종교의 공격적인 전도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독교는 신도시 개발시점부터 종교부지 확보를 위해 뛰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인구가 조만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교계의 해운대 신도시 포교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반야원의 참선법회 모습.

반야원 불교대학 운영 등 2년째 '고군분투'
수행 · 생활 불교 연계한 프로그램 절실
인근 센텀시티아파트단지도 주목해야

해운대 신도시의 포교 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찰은 10여 곳 정도. 해운정사, 부처님마을, 범어사포교원반야원, 우곡선원, 자비정사, 폭포사 등이다.

해운대 신도시에는 사찰이나 포교원이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진다. 스님이 포교에 뜻은 있지만 기도나 초하루 등 법회 위주의 기존 포교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포교방식은 연령층이 높은 여타 지역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신도시의 경우 십중팔구 실패로 이어진다. 새로운 포교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년전 문을 연 범어사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하나 둘 해결하는 대안으로 해운대 신도시 포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반야원은 맨처음 26명으로 불교대학을 시작했으나 2년만에 256명이 등록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반야원은 신도들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수행에 목말라있는 신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수련법회를 열고 있으며 불교대학을 수료한 58명을 대상으로 교리에 바탕을 둔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비용의 반을 절에서 부담한다.

향후 봉사단을 꾸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교리와 수행, 봉사를 두루 갖춰 삶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도시 포교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님들은 신도시 포교가 안정선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원력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극복하고 종단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시 포교에 적합한 수행력과 법랍 등을 고려, 종단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포교에 적합한 주지스님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기존 사찰과는 달리 신도시에서 문을 여는 포교원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공간 확보나 시설에 대한 투자도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구본사별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해운대 신도시와 더불어 이 지역 포교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현재 센텀시티내 개원 예정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포교원 개원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다.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젊은 층, 고학력자들이 사는 신도시의 특성상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 불교, 즉 수행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런데 정작 불교계 준비는 미흡해서 안타깝다. 앞으로 종교 부지나 공간 등을 확보해 신도시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국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0개월 된 몽골 아이 테무진이 한국 불자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사진 가운데).

테무진은, 불자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몽골서 의술을 펼친 경험이 있는 부산대 백승완 교수가 주선해 8월초 한국에 와, 부산대 병원에서 1차 재활치료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창원 한서병원으로 옮겨 재활 재활치료를 계속 진행 중이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테무진은 현재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집고,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됐다. 창원 한서병원은 테무진의 치료비는 물론 테무진 어머니의 체류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팔관재계 수계산림 법회
부산 관음사, 200여명 동참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는 9월 19일 관음사 대웅전과 원통보전에서 팔관재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는 오계에다 제때 아니면 먹지 말라는 등 삼계를 더한 재가자가 지켜야 할 여덟가지 계를 말한다.

200여 동참 대중들은 참회진언을 외우며 팔관재계를 잘 지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며 "이번 수계를 계기로 참회하고 바르게 살기를 발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부산공불련 용궁사서 합동법회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최익두)가 9월 16일 기장 해동용궁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부산진구, 서구, 기장군 등 부산시 16개 구 · 군 공무원불자 500여명이 동참했다.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마다 신심의 깊이가 달라 불법을 실천하는 데 다름이 많지만 부처님의 법은 늘 한 가지를 말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나와 다름없이 대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는 16개 지회에서 1,1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지회별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년중 4회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성효 스님 연꽃 사진전

성효 스님의 가곡과 함께하는 연꽃 사진전이 9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스님이 15년간 찍어 온 연꽃 사진 60여 점이 전시됐다.

(사)한국가곡문화예술협회 자문위원인 성효 스님은 한국가곡을 널리 알리고 연꽃으로 불법을 전하겠다는 발원을 세워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순회전시일정에 들어갔다.

성효 스님은 이날 전시회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피면서도 고귀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고귀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대구시민회관, 12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순회 전시를 갖는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어린이 포교현장 20년 누빈 '베테랑'
포교 노하우 정리해 공유토록 할 계획

만 20년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일해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최미선(39 · 대지혜) 사무국장을 병원에서 만났다. 최 국장은 최근 갑작스런 두통으로 뇌수술을 받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아픈 몸으로 병원에 누워서야 20년만의 휴식을 맞고 있다.

그러나 병문안을 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주제는 어김없이 어린이 포교다. 옆에서 간호를 하던 남편 이동원씨가 "좀 살만 하니까 바로 또 시작이네요. 저래야 정상이지요"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10월 21일 어린이 포교 전진대회 앞두고 있는데다, 대불어 창립 20주년 행사가 11월로 계획돼 있고, 동화구연대회 등 행사가 줄줄인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죠."

남편 이씨가 업무용 전화기를 압수했지만 소용이 없다. 머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21년 동안의 어린이 포교 데이터와 열정은 최 국장의 생명이고 호흡 같은 것이니까.

어린이 법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배들이 좋아 무작정 어린이 포교에 뛰어들었다는 최미선 국장.

지금은 어린이 포교와 자신의 삶을 분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힘들어서 포기할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떠나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놓쳐 버릴 것 같아 아이를 사무실에서 키우다시피 하며 고비를 넘겼다.

대불어 사무국장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의 어린이 포교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최 국장은 아직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최 국장에겐 밥과 같은 에너지를 준다. 1, 3주 일요일에는 금화사초등학교, 노는 토요일에는 금정포교원에서 법회를 맡고 있다.

이번에 수술로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첫 휴가를 보내기 전에 휴가는 꿈도 못꾸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다녀왔을 정도. 수술로 생사를 넘나들 때는 정작 두 아들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밤늦은 회의에 날이면 날마다 늦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왔던 남편에게 이번 수술로 또 한번 할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살아나기만 하면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어린이 포교 원없이 하도록 도와야겠다"며 웃어보였다.

"가족들의 이해속에서 많은 아이들을 부처님 품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고맙고 기쁘다"는 최 국장은 "내가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배우고 받은게 너무 많아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설법과 교리> <어린이 찬불가> <어린이 법요집> <어린법회 지침서> 등 어린이 포교 관련 많은 책을 정리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머리 속에 있는 노하우를 정리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어린이 포교가 튼실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싶어요."

퇴원을 하는대로 또 다시 어린이 포교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최미선 국장. 병원에 누워서도 한순간도 포교 현장을 떠나지 않는 최 국장의 얼굴에 불교의 밝은 미래가 오버랩 되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종법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불교 설법집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불교를 알기 쉽게



테이프 12개
(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포함)
값 78,000원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로 널리 알려진 종범스님의 불교 입문서.
원시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선불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타의
기본교의와 수행은 물론 불교의 개요와 역사, 석가모니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종범스님의 설법집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 전국 대형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 · 사상적 · 문화적 사회적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다.
알기 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 · 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현대고승법어집 총서를 발간하고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다.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와, 물질문명이 사회의 최고선(最高善)으로 여겨지는 지금,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반성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경봉(鏡峰) 큰스님 값 : 14,000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2. 경산(京山) 큰스님 값 :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 청담(靑潭) 큰스님 값 :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 구산(九山) 큰스님 값 :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 혜암(慧庵) 큰스님 값 :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 해안(海眼) 큰스님 값 :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 청화(靑華) 큰스님 값 :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 관응(觀應) 큰스님 값 : 9,000원 화엄의 바다
9. 묵담(默潭) 큰스님 값 :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1 5 7 10월 출간 예정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
도서출판 밀알

"사랑과 희망까지 덖어요"



상주 호암사 아이들과 스님이 함께 만드는 백련차



호암사 아이들이 지난 4월부터 정성껏 재배한 백련잎으로 차를 만들고 있다.

9월 17일 가을이 익어가는 일요일.

스님 한 분과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경북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는 올해 처음 수확한 백련잎으로 연차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태풍 산산의 북상으로 비까지 뿌리는 데도 이른 새벽부터 700m 떨어진 논에서 연잎을 수확해 오느라 16명의 식구들이 식전 댓바람부터 손발을 바쁘게 움직인다. 현종 스님이 "날이 추워지면 연잎이 누렇게 낙엽진다"며 일을 서둘렀다.

초등학교 2학년 막내부터 20살이 훌쩍 넘은 형과 누나까지 호암사 식구들이 총 출동했다. 아이들의 '엄마'인 공양주 이옥연(55) 보살과 인근 마을의 신도들까지 가세하니 절은 순식간에 연차공장을 방불케 한다.

초등학생들은 비에 촉촉이 젖은 연잎을 정성스럽게 닦고 스님은 연잎에 붙은 연대를 잘라낸다. 중·고등학생 누나들은 도마를 차지하고 앉아 연잎을 잘게 썰고, 형들은 다섯 개의 대형가스 불 위에서 잘게 썬 연잎을 노릇하게 덖어냈다.

현종 스님 16년째 '아빠노릇' 후원줄어 백련재배 지극 정성 첫 수확 기쁨, 인터넷 카페도

연차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연잎을 노릇노릇하게 덖어내는 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 수분이 자연스럽게 증발해 백련특유의 향을 그대로 머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잎을 덖다가 식히길 무려 아홉 번을 반복해야 노릇노릇한 연차가 만들어진다.

"백련차는 은은한 향이 백미죠. 바람이 일렁이면 온 동네가 백련 향으로 가득해요. 이 향을 지켜낼 수 있어야 최고의 연차가 됩니다."

현종 스님은 비법을 소개하면서도 작업에서 손과 눈을 떼지 않는다.

"이건 전부 스님이 농사지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간 사이 스님이 모두 풀을 뽑았거든요."

평소 스님을 돕지 못해 미안했던지 막내 영철(초등학교 2·가명)이도 오늘만은 장난을 뒷전에 두고 한몫을 톡톡히 했다.

16년 전 봉암사 선방에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한 아이를 맡게 되면서 16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종 스님은 "IMF 이후 계속 줄어드는 후원만을 마냥 바라볼 수 없어 지난 4월 백련을 분양받아 인근 논 1200여 평에 심게 됐다"고 말했다.

현종 스님은 지난 4월부터 백련을 재배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풀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키우는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호암백련(http://cafe.naver.com/qorfus.cafe)'이라는 카페도 개설해 연이 발아해 연꽃을 피운 사진들을 일일이 올려놓았다.

이렇게 만든 호암백련차 가격은 70g 한 통에 3만원이다. (054)541-7863

글·사진/상주=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장성지씨 '가을소풍' 최우수상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주최한 제3회 가족사진콘테스트에서 장성지(30)씨가 출품한 '가을 소풍'(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정태영씨의 '나란히 나란히'와 강윤희씨의 '우리는 화가'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에 입상한 20여 작품을 9월 28일 열리는 '추석맞이 한마당 잔치'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음악으로 동서 문화 융화

해인사서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8일

김지영의 '팔만대장경' 초연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하는 음악회가 해인사에서 열린다.

10월 8일 오후 7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리는 양성원, 필립 그라핀, 드니스 파스칼의 한불트리오 콘서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 문화원, 성남아트센터, 해인사 후원으로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한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김지영이 특별히 작곡한 대금, 바이올린, 첼로의 트리오곡 'Tripitaka Koreana(팔만대장경)'과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샤르베르가 작곡한 '한국&프랑스' 모티브의 피아노 트리오곡 'Sonko Trio'가 최초로 연주된다.

김지영의 Tripitaka Koreana(팔만대장경)를 초연하기 위한 무대로 팔만대장경이 봉안돼 있는 해인사를 택하게 됐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서울 스트링소사이어티 A&A는 "한국에서는 요즘 프랑스의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를 비롯한 여러 공연 작품들이 연속 흥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2002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한국과 프랑스는 그 동안 서로의 문화융합을 꾀한 작품이 없었다"며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뜻있는 음악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모티브로 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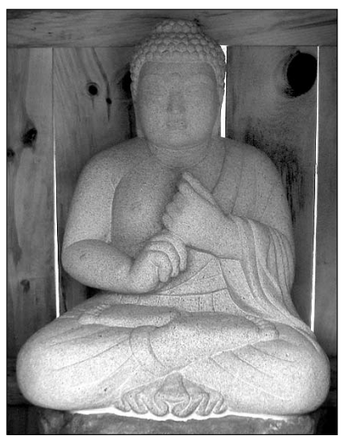
<관만대장경>을 모티브로 한 김지영의 대금을 위한 트리오 작품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장인들의 열과 정성을 기리는 진양조의 대금연주로 시작해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설교와 불교계율 등을 중모리로 풀어내고, 셋째부분은 중중모리로 <팔만대장경>을 습기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관하는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담았다. 넷째 부분은, 일본이 83차례나 요구했던 대장경 양도를 거부하며 우리 것을 지켜온 조상의 집념과 정성을 기리는 자진모리, 마지막 부분은 한불 12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악기인 대금과 서양의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어우러져 즐겁게 한판 놀아보는 엇모리, 동살불이, 그리고 휘모리로 막을 내린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융화를 현대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 김지영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퍼포먼스의 상주 작곡가로 있으며, 아시아, 미국, 유럽 등지에서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미륵마을에 새로오신 미륵부처님

의성 덕미리 주민 뜻모아 봉안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2리(이장 이대일·69) 미륵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미륵석불좌상(사진)을 9월 15일 봉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덕미 2리는 예로부터 미륵불이 모셔진 마을이라고 해서 미륵마을로 불린다. 마을 가운데 미륵불을 모셔놓은 용화전이 있고, 약 450여 년 전 청주이씨의 중시조인 이태득 씨의 꿈에 나타난 미륵석불을 땅에서 찾아 마을에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2가구 마을주민 모두가 불자인 미륵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4일이면 마을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을 뽑아 미륵재를 지낸다.

그런데 그 미륵불이 1983년 도난 당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미륵석불을 새로 조성했으나 그 형상이 조잡해 몇 차례의 마을회의를 거치고 인근 대곡사 주지 혜봉 스님의 자문을 얻어 불모 박종병 씨에게 의뢰해 미륵석불좌상을 다시 모신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이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고 군비를 보조받아 삼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말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덕미2리 이대일 이장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60세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불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미륵불을 새로 모시고 나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대곡사 혜봉 스님은 "대곡사가 예전에 9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이었는데 150여 년 전(도강 18년) 중수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용화전도 이 9개의 암자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개산대재, 10월 14일부터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운)의 1513주기 개산대재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동화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라는 부제로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개산대재 기념법요식을 봉행한다.

일주일간 동화사 옛길걷기 체험과 산행대회, 금석문물전과 탁본체험, 불교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20일에는 봉축전야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학 구미도량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구미도량(주지 세진)이 9월 19일 구미 송정동에서 개원했다. 130여평 규모의 영남불교대학 구미도량은 요사채와 서점, 종무소, 공양간, 방송실, 다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석가모니부처님을 봉안했다.

이날 개원법회(사진)에는 석태용 구미시청불자회장, 구미신문사 김길상 실장, 김상길 총동문신도회장과 영남불교대학 동문신도 지역 불자등이 참석했다.

(054)452-6636 배지선 기자

대광불자회 법당마련 일일찻집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9월 16일 대구 보현사에서 법당이전불사기금마련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지역신행단체장과 불자 등 500여명이 다녀갔으며, 허운 스님은 지역 장애불자들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대구불교봉사단과 대구불자후원회, 맹인불자회원들의 안마시술이 하루 종일 이어져 인기를 끌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7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월요일·수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화엄시식·상용영반·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10월 11일(수) 오후 3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광주 연화사 부설 반야유치원 원아들은 9월 21일 전남대에서 헌혈과 골수기증을 호소하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벌였다.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광주전남 생명나눔 골수기증 캠페인에 반야유치원생들 동참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우리도 커서 헌혈할 거예요.”

9월 21일, 축제로 캠퍼스가 들썩거리는 전남대 백도광장 앞에서 난데없이 유치원생 20여명이 직접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이하 광주 생명나눔)가 펼치는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에 광주 연화사 부설 반야유치원 원아들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치원 원아들은 축제에 들뜬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골수기증과 헌혈을 호소했다.

오전 내내 캠페인에 참가한 김학상(6) 어린이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소리쳐 목이 쉬었지만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골수기증에 참여한 문정원(수의학과 2) 씨는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의 치료에 골수이식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되었다”며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 생명나눔과 불교 유치원 원생들이 함께 캠페인에 나선 것은 3년 전부터. 광주 생명나눔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에 연화유치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나눔 저금통을 분양해 소아암 환우 치료지원을 하던 아이들이 거리까지 진출한 것이다. 캠페인이 시작되면 유치원은 원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한 현장교육 일환으로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한다.

광주 생명나눔 윤예중 사무국장은 “골수기증 희망자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의 성원으로 9월 한달간 펼친 캠페인에서는 400여명이 참가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화장문화 정착, 혈소판 공여사업, 투병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모집하고있다. 후원문의 062-234-6602. 농협 617-01-146862 예금주: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이준엽 기자

청주 유등문화제 성황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9월 15일 무심천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는 연합회가 제작한 전통등을 터널 형식으로 꾸민 행사장에서 공연, 직지대법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청주시민들도 직지목판을 직접 인경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민속공연, 청주불교방송이 마련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는 유등제. 어둠이 깔린 오후 7시, 연합합창단의 축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환하게 불을 밝힌 전통등을 띄우며 청주시민과 불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아 기도했다.

각의 스님은 “앞으로 불자들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불갑사, 전통 예수재의식 재현

조계종 초대종정 만암 스님에 이어 묵담-수산 스님으로 전해오는 생전예수재의식이 재현됐다.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는 윤 7월을 맞아 9월 16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방장)이 증명하는 가운데 생전예수시왕지재를 봉행했다. 이날 예수재는 60여명의 스님들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통의식에 따라 진행했다.

예수재는 불갑사 입구 부도전에서 부처님을 청한 연을 경내로 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령-운수상단-사자청-성위청에 이어 법단에 오른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은 “예수재는 과거 이래 금생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지어온 업장을 닦는 성스러운 자리이다”며 “참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후 의식에서는 명부로 물품을 나르는 말과 마부들에게 공양올리는 ‘마기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예수재뿐 아니라 사라져가는 의식법회를 재현해 불교전통의식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11년만에 야외법석에 모셔진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


13년만에 돌아온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고불식.

화엄사 국보 탱화 ·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10여년만에 모습 공개

탱화로는 유일한 국보와 도난당한 불화가 10여년만에 동시에 모습을 나투었다.

화엄사(주지 종삼)는 9월 10일 생전예수재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국보 301호 영산회 괘불탱을 내걸고 법회를 봉행했다. 1995년 화엄사 서오층석탑 해체보수과정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 효종 4년(1653)에 조성된 이 괘불은 11.95×7.76m 크기로, 불 보살의 원만한 상호가 아직도 생생한 색채로 남아 살아있는 듯 하다.

백양사(주지 두백)도 9월 17일 대웅전에서, 도난당한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를 13년만에 내걸었다. 백양사는 다시 돌아온 불화 친견에 앞서 점안과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어 아미타 부처님이 증명하는 가운데 가사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식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끝)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❻ 지계 바라밀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가 마련한 재가논강이 9월 15일 ‘지계 바라밀’을 끝으로 회향됐다. 이번 논강은 육바라밀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며, 재가자들이 직접 논주와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논강은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사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현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받고 논강을 회향했다.

“계는 구속이 아니라 해탈 수행법”

여러분은 행복하길 원하시죠. 계(戒)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구속되거나 갇히거나 묶여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이끄는 계를 ‘해탈 수행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는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는 ‘구속’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계는 근본적으로 선한 행위, 선하게 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 때, 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곳 원각사에는 스님, 청신사, 청신녀 등 많은 대중이 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규정을 ‘계’라 하고, 규정을 잘 지킨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벌주는 것을 ‘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는 청정하게 살라는 구속력보다 권유의 뜻이 있고, 율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를 잘 지키는 방법으로 매일 칠불통계(七佛通戒) 봉독을 권합니다.

“갖가지 나쁜짓을 꿈엔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그리하여 내마음 청정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라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계율을 잘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으로서 아직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기, 파리를 잡은 뒤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이지 않으면 더 좋지만, 너무 죄의식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한 마리를 죽였으면 열 마리를 살리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죽여야 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계 의식문에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한다하더라도 계를 받는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알게 되면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율을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계율은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죽으면 불법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계는 고통의 수렁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밧줄과 같고,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를 지키는 것은 옷이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상처받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계율은 곧 ‘전력수행’입니다. 자기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잘 관찰하면 불행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수행입니다.

◆ 질의 응답

▲직업상 술집을 운영하거나 도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살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술을 팔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만큼 술을 권하거나 파는 것이 계율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계율은 선 한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율에 반하는 업은 서서히 바꾸어야한다.

정리=이준엽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 제작방법 | 재질(성분) | 원단가공손질 | 원사생산 |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북 안동 | 경북안동 | 3,800,000
1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북 안동 | 중국(산동) | 1,250,000
2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경남 남해 | 중국(사천) | 835,000
3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중국 | 중국 |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종무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태고종, 종무원 실무국장단 연석회의 첫 개최
정보교류 · 개혁불사 추진 기폭제 역할 기대



9월 18일 태고종 창종이래 서울 봉원사에서 처음 열린 실무국장단 연석회의. 태고종은 소장파 스님들이 주축인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시켜 능동적인 종무행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일선 포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태고종은 9월 18일 창종 이래 첫 교구 종무원 실무국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단 개혁불사를 위한 재도약에 나섰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방 교구 종무원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국장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무행정 참여를 유도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 할 계획이어서 서로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는 물론 개혁불사 추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무원 국장 스님들은 종무원장 유고시 종무원장 연석회의에 대리로 참석해 발언권 없이 회의 결의 사항을 종도들에게 알리고 시행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그러다보니 종단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수월치 않았다.

하지만 별도의 실무국장 회의가 생겨남에 따라 정책 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전국 교구 종무원간의 포교정보 공유도 기대하게 된 것.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첫 회의에서 실무국장단은 11월 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릴 종단 연합대법회를 선암사 경판 인쇄본을 정대(頂戴)하는 법회로 봉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종단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암사 재적승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키로 하고, 잠정 연기됐던 30기 수계법회도 10월초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봉행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부산 교구종무원 교무국장 의호 스님은 "솔직히 그동안 실무국장들은 종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시행하는 일만 했다. 하지만 회의가 활성화 되면 종단 정책도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종도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국장들의 회의가 활성화 되면 일방적 지시가 아닌 종단과 종도들이 쌍방향으로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실무국장 회의의 탄생은 종단 개혁 불사 방향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태고종 관계자들은 낙관하고 있다. 하나의 종무원에 소속된 실무국장은 4~6명이므로, 19개 종무원이 있는 태고종의 실무국장들이 모두 모이면 1백여명이 넘는 막강한 의결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종단의 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많은 종도들에게 알리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종무회의에 참석한 종무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자신의 교구로 돌아가 종단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면 종무원장 연석회의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앞으로 효율적인 실무국장 회의를 위해 국장 스님 전체가 모이는 총회와 총무 · 교무국장 등 각 부별로 세분화돼 진행되는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무현장의 목소리를 종단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각종 대구청년회 재창립

대구지역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각종 청년불자모임이 재창립됐다.

진각종 대구청년회(회장 황성재)는 9월 16일 대구교구청 희락심인당에서 재창립 법회 봉행후 현판식을 갖고 새 활동에 들어갔다.

황성재 신임 대구청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청년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맡게돼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며 "초심 불망하는 마음으로 대구지역 청년포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선정 전수, 교육원장 경정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회성 정사 등 청년회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상종 예수재 · 구족계 봉행

대한불교 법상종은 9월 19일 법상종 본산 안성 쌍미륵사에서 생전예수재 및 구족계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종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창종 종신을 되새겨 제2 창종을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종단 사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선원서 수계산림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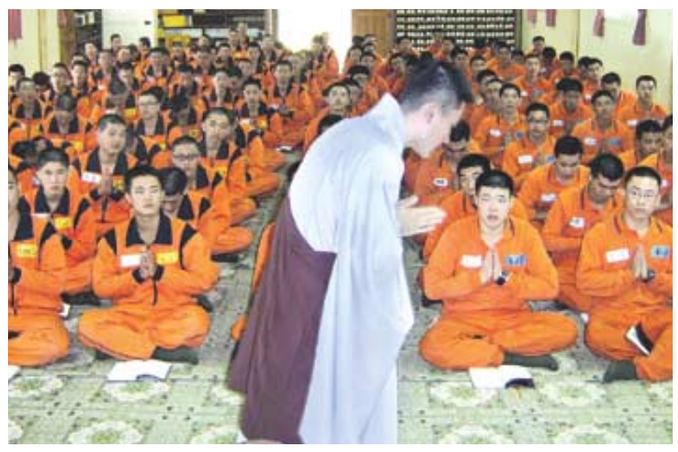


대한불교 전통조계종은 9월 17일 구미 삼보선원에서 제3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였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능인 총무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최전방 일요법회 후원해 주세요"

을지사 포교원



인제 · 원통지역 신병교육대에 위치한 을지사 포교원은 냉난방시설 보수와 정기적인 후원이 절실하다. 사진은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가 9월 17일 일요법회에서 기초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

냉난방 시설 없는 조립식 건물서 법회
후원 · 결연 없이 신심 하나로 무장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살겠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말이다. 원래는 원통에 사는 사람이 인제에 가게 되면 험한 설악산을 몇 고개나 넘어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주민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인제, 원통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인들이 유배지와 같은 오지에서 힘든 군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인제, 원통 지역 최전방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는 바로 을지부대. 특히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전군에서 가장 전방에 있는 신병교육대이며 교육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병교육대에 위치한 을지사 포교원은 군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병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봉행되는 정기법회에 200여 불자 장병들이 동참할 정도로 법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해당 부대 군법당에서 종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가 법당 예절, 기초교리 등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어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주마다 600명이 입소를 해 교육을 받고 있는 을지사 포교원은 군포교에서도 '최전방'인 셈이다.

을지사 포교원 군종병 윤재영 상병은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해보면 훈련도 힘들지만 최전방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군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한다"며 "그나마 매주 법회에 나와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 군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교대 법당은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다. 냉난방시설 조차 갖추지 못해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풍기 몇 대로 여름을 나야하고 겨울에는 카페트와 좌복으로 추위를 몸으로 이겨가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대대급 법당이다보니 군종병이 다른 업무를 보다 주말에 과외로 정기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법당 관리도 안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매 법회때마다 군법사가 화주를 통해 어렵게 과자와 음료수를 겨우 준비할 정도여서 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보니 후원이나 결연을 통한 외부 지원은 전무하다.

을지사 박만순 군법사는 "무엇보다 장병들이 겨울에 따뜻한 법당에서 법회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기적인 후원이나 결연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3-462-1416 후원계좌 243-01-168777 농협 을지사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마하몰 한가위 맞이 효도선물용품 지상 특가전

오직 현대불교신문 지면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특판기간 : ~ 10월15일까지]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희귀한 검은 돌이 뿜어 내는 깊고 그윽한 기운을 느껴 보십시오
희담석 건강용품-찜질팩 20% 할인판매 및 사은품증정 [에너지 방사능력으로서,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 찜질팩 세트
정 가 148,000원 특판가 110,000원



희담석 찜질팩
정 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희담석 찜질팩
정 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희담석 염주
정 가 66,000원
특판가 52,800원

희담석 제품 구매고객 사은품



희담석 눈찜질팩
판매가 16,500원



희담석 허리팩
정 가 44,000원
특판가 35,200원



희담석 머그잔세트
특판가 66,000원

광물이 숨을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루이스톤 건강용품 - 15% 할인판매
아루이스톤이란 천광석이라고도 하며, 자체에서 인체에 이로운 기운을 방출합니다.
가까이 두면 자연히 기운이 정화되고 강화되며, 탁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놀라운 광물입니다.



청기생기 베개
정 가 80,000원
특판가 68,000원
•크기 : 낮은베개 5cm / 높은베개 7cm



청기생기 방석
정 가 65,000원
특판가 55,250원
•크기 : 가로 450mm X 세로 450mm



머리가맑아지는 경추베개
정 가 60,000원
특판가 51,000원



추천히트상품
2개의 컵을 동시에~커피는 물론 녹차,보이차도 간편하게 OK!
하이얼 2인용 커피메이커 HK-3000
500개 한정 특판가 15,000원
(배송비 3,000원 별도)



추천히트상품
피로회복,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강화
음이온 항균지압베개 매직필로우
출시기념 특판가 29,500원
(배송비 포함)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몰)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 26일 / 여의도 KBS홀
사랑과 효, 그리고 절대감동!!
입장권 예매 02-739-7837 www.interpark.com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經典

봉선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강설대법회 입제하던 날

그 넓고 깊은 세계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구하려 1500여 대중 새로 발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과연 선(禪)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불립문자'라야 '견성성불'일까?
이 시대 최고의 강백(講伯)들이 이 말에 일침이라도 가하듯 산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부대중과 만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높고 깊은 경지를 대중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 첫 만남이 9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설법전에서 있었다. 봉선사(주지 철안)와 '현대불교(사장 혜월)'가 공동으로 마련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봉선사 신도, 지역주민, 타지역에서 온 불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관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는 한 비구니스님.

지관 스님은 법상에 오르기전 행사 진행자들에게 "서서 강의하겠다"며 '칠판과 분필'을 요구해 잠시 청중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운허 스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월운 스님 앞에서 법상에 오르기 어색해서 그러시는 것'임을 간파한 봉선사 스님들은 더 정중한 예를 갖추어 지관 스님을 법상에 모셨다. 청중들은 1부 입제식에서 월운 스님이 "종단의 수장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지관 스님이 법문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한 말을 기억하며 두 원로스님들의 우정을 큰 박수로 찬탄했다.

"참선만 한다고 해서 견성성불 오도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속에 성불하는 참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이번 법회에 긍지를 갖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에 의지해 수행해서 깨칠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교와 중생교화에 목적을 둔다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봉선사 강설대법회의 첫번째 강백으로 법상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법석에 올라 가장 먼저 "조실스님께서는 방으로 가 쉬시고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공무에 바쁘실테니 가셔도 된다"고 말해 청중의 박장대소를 이끌어 냈다. 한바탕 웃음뒤에 법석은 다시 숙연해졌고 지관 스님은 경전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 서두에서 <금강경> 번역과 관련된 많은 연도와 역경자를 정확히 기억해 '대강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것이 <금강경>인데 여지껏 입으로만 독송했지 이렇게 심오한 사상이 들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의미를 곱씹으며 독송하면 기도도 잘 될 것 같아요."<김정은 · 3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문을 들으며 <금강경>이 한층더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고 한 거사는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70대 한 노보살은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열심히 스님의 법문 받아 적는 사연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문 듣는 것도 일종의 수행 정진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메모하고 여러 번씩 읽고 생각해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참선 못지않은 중요한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전의 맛을 조금 안 대중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책하려는 듯 지관 스님은 법문 마무리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기도 했다.


입제식에는 철안 스님(봉선사 주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등 (앞줄 오른쪽부터)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설법전 밖에서 대형 빔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하고 있다.

"경전을 혼자 음미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훤히 꿰뚫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박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을 박자, 죽을 사자가 박사에요. '죽도록' 공부하세요. 경전 박사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불자들의 얼굴엔 새롭게 발심하려는 힘찬 기운이 역력했다.

봉선사 강설대법회는 한국 불교계 최고 강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전수행의 정수를 전하는 자리다. 각 경전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근간으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여러번 버스를 갈아탄 끝에 참석한 정성어린 불자도 있었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과장이 이끄는 염불수행팀 12명은 주말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법회에 참석했다. 부인과 손자 등 셋이서 참석한 김종성 거사(73 ·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는 "손자가 일곱 살이라 법회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훗날 성인이 됐을 때 이 법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람있어 했다.

입제식과 지관 스님의 법문,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과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지관 스님의 답변으로 3시간 가까이 법회는 이어졌다. 설법전이 비좁아 500여명 정도는 야외에 마련된 자리에서 법문을 경청했다. 경전을 공부하고자 주말 휴식의 달콤함도 뿌리치고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에게 불편한 자리쯤은 아무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오후 5시, 강의는 끝났지만, 경전 수행을 발심한 불자들은 다음주를 기약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일주문을 나갔다. 다음주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설법전'은 <금강경>의 '공(空)도리'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 법회이모저모 |



▶ **유모차 밀며 온가족 청법 나들이**

토요일 오후, 초가을 봉선사는 가족 단위 불자들로 붐볐다. 이 중 단연 압권은 유모차 부대. 9개월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법회에 동참한 김명숙 불자(32 · 의정부시 호원동)는 연신 즐거운 표정. 평소 뵙기 힘든 대강백 스님의 법문도 듣고 봉선사 참배도 하고 '일거양득' 신행을 하게 됐다면서….

▶ **설법전만 강의실? 처처가 강의실**

설법전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빔프로젝트와 대형 스피커가 법회 영상과 소리를 사찰 구석구석까지 전했기 때문이다. '처처강당(處處講堂).' 불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법회현장에서 실감하는 눈치였다.

▶ **사하촌서 1500인분 국수공양**

봉선사 종무소앞에는 사하촌 주민들이 법회 참석자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야외 천막 식당을 임시로 차렸다. 뜨거운 온정을 담은 국수는 무료라 반가웠고 국수맛 또한 일품이라 두 그릇씩 먹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 **원만회향 발원 50여명 철야 정진**

법회가 끝난 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설법전에서 봉선사 신도회와 박종린


(51 · 동국역경원 편찬과장)씨가 이끄는 염불 절 수행팀 등 50여명이 철야정진을 했다. 강설대법회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정진이었다. 철야 절 수행으로 환희심을 맛본 신도회측은 박종린씨에게 철야정진을 매월 한차례 정례화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앞으로 주요 경전들 공부하겠어요"**

"경전이 어려운줄만 알았는데 조목조목 그 구성과 경전 탄생 배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중학교 교장을 정년 퇴임한 김정삼(68)씨는 우리 시대 최고의 강백인 총무원장 지관 님의 법문을 들으니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즐거워 했다.

강진영 교사(45 · 경기도 양평중학교)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잘 실천하다보면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홉번의 법회도 모두 참석하고, 이번을 계기로 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고 밝혔다.

▶ **비천상 현수막…축제분위기 물씬**

봉선사로 가는 장현리 길목부터 설법전까지 곳곳에 강설대법회 현수막이 걸려 있어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청풍루앞에는 10대 강백들의 사진과 비천상 무늬의 현수막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전통사찰다운 품위있는 디자인의 이채로운 현수막을 보며 '역시 봉선사는 다르다'며 감탄.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정 : HH07236-5004A호
• 전자파 장해실험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닥터사입니다.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山家교수 발표기사) 발췌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열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를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온역할 밖에는 안되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이 들어간다.(췌장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常溫(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뺏기게 된다.	常溫(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음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낳는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더 당당하게 자기경영을 …”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리더십 교육



‘여성리더가 되기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교육이 불교여성개발원 주최로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왼쪽)의 첫 강좌 모습.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9월 20일 장을 열었다. 정원의 2배에 가까운 70여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교육의 첫 강의는 ‘우리는 여성’을 주제로 한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의 강좌.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진정한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여성은 “뭘 하느냐”고 물으면 떳떳치 못한 마음으로 “그냥 주부”라고 대답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은 “그런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오히려 양성평등의 사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자기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당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자아실현도 가능합니다. <법구경>에는 ‘독립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일을 겪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불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2.9%에 달하고, 실제 사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풍부한 자원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여성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전체 불자의 53%… 활용은 미흡
신체·경제·정신적 독립 이뤄야
다양성·이질성 공존 적극 수용을

김인숙 원장은 이같은 현실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기경영을 통해 불교와 사회를 선도하는 여성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다양성과 이질성의 공존’을 적극적 수용할 것도 주문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새 패러다임에 맞추어 나가는 여성이 많아질 때,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회,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인재육성을 위해 리더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02)722-2101

글·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여성리더 만들기’ 교육일정

▷9월 27일-비전, 조화 그리고 균형의 여성 리더십
조직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와 행동원칙을 살핀다. 이화영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강사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알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월 11일-21세기 한국 사회·문화 트렌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고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읽는 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찾는다. 손경년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기획단 도시조성실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화두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18일-나의 빛깔과 향기는 어디에?
MBTI 성격 분석을 통해 참석자들의 심리적 선호유형, 즉 마음 모양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김일명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는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보다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10월 25일-나와 너:다름과 관계의 미학
훌륭한 리더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이를 긍정적인 관계 맺기로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김일명 동국대 겸임교수는 각종 성격유형별 사례를 들어 보다 나은 관계 맺기를 풀어간다.

▷10월 28일-나의 비전 만들기(세미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한다.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월 1일-조직, 조직속의 여성리더십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직속의 여성리더들이 겪는 고충을 사례를 들어 점검한다. 이화영 숙명여대 강사는 조직 또는 조직문화에서 여성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소개한다.

▷11월 8일-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
김은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의 상관관계를 짚어본 뒤 “수평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상대와 함께 끊임없이 교감, 조율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조언한다.

▷11월 15일-창의적 회의기법
회의를 주재하는 능력은 리더가 갖춰야할 중요한 요건.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은 브레인스토밍, 바인드 맵핑, 벌집토론 등 창의적 회의기법을 통해 조직 내에서 협조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일러준다.

▷11월 22일-의사소통과 갈등 중재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당당한 자기주장 훈련, 당당함 테스트, 커뮤니케이션 훈련,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등을 적용해 당당한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11월 29일-여성 리더의 자기관리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10년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해 낸다. 이진아 세종리더십센터 소장은 미래의 인생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이끈다.

▷12월 6일-여성 리더의 사회적 역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무엇인가. 진민자 (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은 우리 사회 여성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반야심경 6폭 병풍 반야심경 6폭 병풍은 처음부터 완성까지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든 병풍입니다. 양면을 고급천에 담아 파손을 막고 오랜 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면에는 차례·제사 모시는데 적합한 반야심경을, 뒷면에는 회갑·잔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군자 그림을 표구하여 실용적입니다. 가격 : 148,000원

분다의 경제학 (18)

영원한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매우 극한적인 어려움에 맞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데, 이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세태가 몹시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의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을 택하게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의 실패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 탄생은 창조 아닌 많은 인연 화합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변하므로 생존에 집착 말아야
일체 무상함 여실히 알면 경제활동도 적극적

그러나 실패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이다. 왜 실패가 사업의 본질일까. 기업이라는 것도 생물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새로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준다.

새로 탄생한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 엄연한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1970년대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심지어 사라지고 해서 남아 있는 기업을 세는데 열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지만 30년 이상 이상 지속되는 기업은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만큼 드물다.

기업의 탄생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다. 수많은 인연이 화합한 결과이다. 기업의 구성 요소에는 인적, 물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기업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인연도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일체가 무상하므로 영원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도 생물처럼 언젠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인연이 다한 기업의 생존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회생의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적절한 시기에 기존의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절제된 판단력이 경영자가 지녀야할 중요한 덕목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불교경영학에서는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고갱이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한 때 화합해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기업의 운명이라고 체념하여 소극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고 미련을 버려야 할 때 기업의 존속에 집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해악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와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 가게 된다. 일체가 무상함을 여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하고 시절인연을 기다리는 행동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가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희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추석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일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촉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각 사찰에 모든 행사 장엄해 드립니다
49재 회향 및 천도재의식, 천수바라무, 작법무, 살풀이,승무, 회심곡, 태평소
점안식 및 각종 행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집전위주교육 6개월
위치: 부산 온천동
051)516-5691
017-556-569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무각닷컴 사주클럽
격국을 잡아야 용신이 보입니다. 사주가 늘지 않는 분 직접 사주를 풀면서 용신분석 강의 지방계신 분들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지 매주 발송 초보 6개월 완성 월 10만 파격가
전화상담(만원), 방문상담(이만원)
02)831-2202/ 019-838-6908
www.mukak.com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 24기 풍수지리 사주학교육생모집
● 강사: 임창열(배재대, 서라벌대출강)
● 풍수지리: 매주 화, 금(10시, 14시 ,19 시)
● 사주학: 매주 월, 목 (10시, 14시 ,19시)
http://www.kpse.co.kr
042)255-8482
011-437-8807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

참선중에 오는 병고, 마장을 佛기로 녹여드립니다
(오후 7시 이후 통화)
02)392-5809

조상 천도재 무료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단 준비물만 해오십시오)
031)834-3207
017-288-6863
010-4860-6863

행자모집 (예비스님)
참신하고 불심이 돈독한 (女)행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45세 미만 여성
사단법인 대한불교 흥은선원 흥은사
054)822-3133
011-9576-4450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청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군위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역학개인지도)
054)383-4569
016-717-1592

전국최대 비로자나 부처님 법도량
7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평-7천평 정도의 명당사찰부지(무보시)하실 분 또는 기존의 사찰운영이 어려워 함께 동참하는 뜻으로 21세기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현재사찰운영중
010-9443-7881

수행중인 스님(비구)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에 도움을 주실 보살님 모십니다
031)775-1247
011-9275-2921

공양주 보살님 및 큰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011-746-86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지역
010-3188-5103

공양주 모십니다
▷지방사찰 근무하실분 한분
▷서울사찰 근무하실분 한분
나이 40~50대
011-9269-8445

산중 사찰 중 염불(부전)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언제나 연락 주세요
010-4520-6787
054)433-631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강남구청역사거리(7호선)
02)458-1108
010-5541-6568(오후5시이후)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 경 주
054) 772-4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5~65세
054)971-7561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시내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 용맹 정진할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사찰 사정상 부전스님 모시긴 어려운 사찰은 염불(전문)스님과 더불어 불심으로서 같이 평생 운영하실 사찰은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운전기사구함
1종대형면허소지자
▷숙식가능
031)459-3666

가족처럼 함께 사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도권
019-9264-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이하
부산
051)332-1690

평생 같이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 55~65세
018-427-2256

공양주 불자님 모십니다
운전 가능한 분으로
▷40대~50대
삼랑진 055)352-6556

미국 가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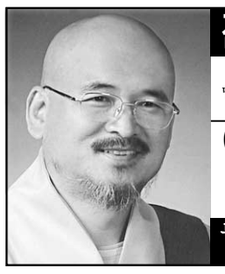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복지 사업에 뜻이 있으며 운영 경험 있으신 스님,거사님 및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산사에 건물과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사업에 뜻은 있으나 경험이 없습니다.
▷ 위치는 경기 안성 근교
011-9871-0466

E-2 비자나. 자녀교육으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
저는 미국 LA 카우니 쎄래토스시에서 2000sq 면적의 아주 예쁘고 위치 좋은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있는 보현행보살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소중히 가꾸어 자리잡은 저의 샵에 주인을 찾습니다. 이곳은 학군이 아주좋은 지역이므로 자녀들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홈페이지 (www.vivantjoiecerritos.com)나 email: jheo69@hotmail.com 방문하시고 저의쎌폰 미국 213-327-4374 / 샵 562-403-2228으로 연락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정보입니다.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대도진인 견성도통으로 신선입문에 들어 초능력과 도통하여 신선과 도인되는 경신대법회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대운맞이로 조상과 자신의업장을 제도하는 영산법회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9월양력 26일 자시와 9월 27일 오시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心자와 卍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 대 용맹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법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건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의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음 8월 6일과 8월 7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업장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참회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혈압,당뇨,관절,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기도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빠른 비법 혈단법과 예단경만인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예단이란 상대방의 인연을 끊고 신랑집에 와서 정붙이고 살으라는 것이 예단인 것이다.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년 음 8월 7일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타심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도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자아도통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 음 8월 초 7일 단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금년 삼재묵는 띠는 인,오,술띠이고 원진상충띠는 잔나비띠, 뱀띠)

● 입제 : 양력 2006년 9월 27일(음, 8월 6일 수)(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9월 28일(음, 8월 7일 목)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 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 합장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제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 암 모 집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본 종단 종지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 함

● 종 정 대 행 : 각 암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원 삼보선원 : 정 산
● 서울 교구 극락사 : 해 성
● 경기도 교구 각원사 : 혜 일
● 충북 교구 용원사 : 무 원
● 경북 교구 대원사 : 범 아
● 대구 교구 관음사 : 향 운
● 울산 교구 관음정사 : 호 암
● 경남 교구 황룡사 : 정 도
● 부산 교구 불심원 : 무 안
● 중앙연수원 팔공사 : 혜 명

※ 각 사암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원 및 각 교구 종무원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포천 ● 법당: 22평 ● 요사: 13평 ● 부지: 134평 ● 가액: 2억 2천
● 위치: 충북충주 ● 법당: 23평 ● 요사: 61평 ● 부지: 2000평 ● 가액: 6억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관악구포교당-월 85
2. 서울명산목조사찰-6억
3. 서울산속사찰만평-20억
4. 서울국유지사찰-10억
5. 강남포교당100평-월 300
6. 은평구포교당-40평-월 50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420평 등기필,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주차 10대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1-737-073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부지: 약100평 ● 법당: 24평 ● 요사: 25평 ● 가액: 6억
● 위치: 수원근교 ● 부지: 100평 ● 법당: 15평 ● 요사: 20평 ● 가액: 년오백깔세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 부근
● 50평 방3, 주방
● 가액: 전세 2,2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7-420-5258
042)522-2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4천 포함)절충가능
011-226-28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대명동 구남여상 구모닝병원 중간 대로변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900만원
010-3191-623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지: 200평 ● 법당: 약 25평 ● 요사30평산신각,용왕전 ● 가액: 4억 3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250평 ● 법당: 약30평 ● 요사: 약60평 ● 가액: 3억 교통편리복지시설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군 ● 부지: 1500평(대지,전,답) ● 법당: 20평 ● 요사: 2동 40평 ● 기타 : 연못 등 ● 가액: 9천만원 ● 특징: 청정지역의 영명한 도량임
● 위치: 경남 고성군 ● 부지: 약 1500평(종교용지) ● 법당: 40평(목조,단청) ● 요사: 2동 70평(슬라브, 단청) ● 산신각: 7평(목조,단청) ● 가액: 6억 2천만원 ● 특징: 마산에서 40분거리에 위치한 정통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4억 6천만원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 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지
● 법당 :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 : 조립벽돌 30평
● 종교부지 300평, 시유지 550평
● 약사석불, 산신각, 면사무소 인접
● 절앞 마을, 뒤 소나무숲, 절충가함
● 양도가 : 1억 7천
011-677-8525

사찰부지및수목장
(기도원, 연수원, 수목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대전에서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 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사찰부지 및 수목장 최적지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 포장도, 차량진입)
017-405-1554
야간10시 이후 042)522-2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3분거리
● 평수 60평, 법당 30평
● 시설: 삼존불,후불,신중,영단,샤시 방2개, 사무실, 상담실, 주방, 샤워장, 옥상 사용 도시가스사용
● 가액 : 2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031)873-8893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언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건평 약 10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황토집 2채 20평, 주차 15대
●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2억 6천만원, 전세1억5천만원
● 사천땅 계곡있고 9천만원. 평수 7350평
010-5572-1501

포교원 같이 운영하실 화주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50~70세
011-835-76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진천 IC에서 10분거리 서울중부고속도로 IC 1시간 거리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총평수 : 550평중 종교부지 300평
● 건물 :요사채 겸 법당 40평
● 가액: 2억 3천만원
● 특징: 주차완비, 산계곡 단독 청정, 안정된 곳
010-2333-3638

지리산토굴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 대지: 430평, 목조법당 20평
● 요사: 20평, 공양간 7평
● 가액: 9천 5백만원
055)972-4018
010-7179-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5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5천
017-336-75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 2층 건물 2층, 시설 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1-511-0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011-511-2609
064)748-200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법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650만원 (선세 140만원 포함)
● 시설비: 700만원
010-6374-003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접면 부처산. 공기 좋고 암자로 최적합
● 대지: 약 330평 임야. 공유지 67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4579-883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 대지: 1,000평
● 법당: 35평 (산신각, 요사채, 창고, 사무실)
● 가액: 6억 2천만원(절충가)
016-868-55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탱화 및 산신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2)902-400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구옥 방 9개
● 종중땅
● 스레트법당: 15평
● 가액: 2500만원
043)742-00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평리동 서구청 건너편
● 법당만 30평 (인구밀집지역)
● 그 외 부속시설 10평, 샤워실, 주지 상담실, 공양간, 부전방, 공양주방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적음(600만원)
● 특징: 사주 볼 줄 알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
053)523-7706
010-2606-12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 모든 시설 완비
● 가액: 7천만원
본사로 들어가는 관계로 (급)안내함
051)556-0278
011-831-9667

별 장 식 토 굴 안 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역 부근, 대로변
● 3층 건물 지하 40평 모든 시설 완비 몸만 들어 오시면 됨
● 가액: 전세가 2천만원 월5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없음
011-9320-63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국유지 350평 임야 400평, 대지 101평
● 법당, 전각, 삼성각, 용왕전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가액: 1억 5천만원
010-3061-4264

포 교 당 안 내
같이 운영하실 분도 모십니다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715-633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손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1층 18평, 2층 18평
● 가액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양도(전세, 월세) 가능
010-7777-857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 1, 2층 건물 1층(살림집) 47평, 2층(법당) 47평 심야전기보일러설치되있음
● 가액: 전세 4천만원
010-7355-7388
016-294-0261

사찰운영같이하실분모심
● 위치: 언양(울산)근교
● 규모: 면적 약 5000평 건물
사찰 300평(현재 운영중)
● 참여하실분: 능력 또는 약간의 재력이 있는분
누구나 동참 바람
052)263-5143

가 야 산 별 장 안 내
● 면적: 15000평
● 건물 30평, 집 65평, 집 20평 창고 겸 50평
● 못 4개, 정자 2개, 인공폭포 1개 (도로인접) 자연폭포 (산 중턱) , 잔듸밭 1천평
● 조경이 100% 완벽-석등4, 12층탑1, 5층탑 2개 그 외 탑 10여개, 기도처나 절로 적절
● 가액: 절충가능
011-829-2957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증평)
● 법당 30평 요사 35평, 20평 가건물 15평,텃밭 300평 대지 약 400평
● 특징: 심야보일러, 지방문화제 천년석조 약사여래불 깔끔한 사찰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043)836-914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평수: 대지 108평, 건평 35평
● 방2개, 원주실, 공양실, 임법당, 산신각, 마당, 창고, 아미타불, 관음 · 지장 보살, 산신탱화, 후불 및 신중탱화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모든 집기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0-7160-1668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평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략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로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不二사상, 北 인권문제 푸는 열쇠"

노귀남 박사 '인간안보의 불교사상적 해석' 통해 주장

실천불교승가회 · 불교포럼, 북한인권법 주제 포럼 개최



실천불교승가회 · 불교포럼은 9월 20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왼쪽부터 서울대 변희욱 교수, 한양대 김광용 교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박사, 건국대 성태용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귀남 박사, 불교문화연구원 조준호 연구교수.

불교인권철학의 핵심인 불이(不二)사상은 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북한 인권문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겹쳐있고, 인권문제 인식의 편협성도 개입돼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의견차이가 분분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 '북한인권법, 인권철학이 있는가'를 주제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을 9월 20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귀남 박사는 논문 '인간안보의 불교사상적 해석-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을 찾는 불교인권철학의 정립'을 통해 불이사상과 만해 한용운의 생명 · 자유 · 평화사상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했다.

즉 인권문제를 '나에서부터'로 규정하고 그 인권을 실천해야할 주체 또한 '나'로 간주함으로써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북한인권문제에 대입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노귀남 박사

'일원론'이 불교인권철학의 효시

노 박사는 "만해의 <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에 나타난 '신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자유는 만물의 생명,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 불교인권철학의 효시다"며 "불교인권철학의 개념은 일원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권에 대한 가치개념이 서양의 이원론에서 불교의 일원론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서구 관념론의 뿌리는 이원론이다. 서양의 이원론 논리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본체(본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상은 무수히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무수한 본체가 있다고 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체의 본 모습인 '실상(實相)'을 그 바깥에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이원론은 현상을 부정하고 '이데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현상의 문제는 또 다시 배제되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자-타를 구분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자유주의는 진정한 인권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노 박사는 "불교인권철학의 핵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은 본질과 현상('본체'와 '주체')의 관계 속에 현상의 실상이 있다고 보고 이때 현상의 변화는 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 예속된다"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근본 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점이 바로 존재-인식-실천을 동시에 보는 불이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나와 남이 불이(不二)의 존재로 되는 일원론 속의 새로운 만남, 이 총체적인 그물망이 바로 온전한 생명존재이며 '포괄적 생명권'이 나오는 인권의 기초가 된다는 것.

연기법칙 입각해 '충돌' 풀어야

노 박사는 "불이사상을 핵심으로 한 불교인권철학은 싸울 대상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주의'를 포괄하며 존재를 인식과 실천의 문제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포괄적 생명존재'로 실천적 주체에서 나오는 실천적 인권이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식 인권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나와 남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며 "서로 다른 자유와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모순을 불교에서 삶의 현실과 인권을 바라보는 '연기법칙'으로 풀어야하고 문제 해결점은 현실의 당면 과제에서 출발해 인권 당사자를 위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인권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천적 인권에 대해 △사심(邪心)이 없을 것 △증오심을 버릴 것 △통일운동의 일상화 △통일운동의 대중화 △평화주의 등 '통일실천운동 5계'를 제시하며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권운동을 제시했다.

"불이사상에 입각한 불교인권철학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가장 실제적인 접근"이라는 노 박사는 "'안과 밖' '나와 너'가 하나로 규정되는 불교인권철학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공동체적 불이(不二)의 인권가치를 구현할 최고선(最高善)"이라고 주장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자유 · 평등 · 박애)'을 정치적 인권탄압에 대한 저항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세대별, 성별, 계층별, 각 부문 소수자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관은 환경권, 평화권과 같은 집단의 권리로 주장하는 소위 '제3세대의 인권'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권 개념에 '인간 안보(자유, 보건, 식량, 치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생명권)'를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는 것.

한편 이날 토론에서 한양대 김광용 교수는 "앞으로 불교인권철학을 펼쳐나갈 실천주체는 민중과 권력집단도 아닌 바로 본인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변희욱 교수도 "포괄적 생명권으로 표현되는 인권은 전시대의 '전투적 민주주의'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현대에 녹아있는 '지눌'은?

김경집 교수, 효봉 · 구산 스님에 끼친 영향 등 조명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이 근 · 현대불교에…' 학술발표회



"지눌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사회적 실천은 당대는 물론 근 · 현대까지 한국불교의 법맥을 지켜올 수 있었던 근간이었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삼문체계를 통한 선수행을 완성함으로써 '한국의 선(禪)'을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눌 사상(지눌선)의 계승 양상과 사회 · 역사적 영향, 저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보조사상이 근현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경집 연구교수(사진)는 논문 '근 · 현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을 통해 근 · 현대 결사운동과 그 속에 나타난 보조의 사상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 △한국불교 선종의 근간(경허 · 한암 · 구산 등)을 이루는 초석 마련 △근 · 현대 결사운동의 사상적 기반 등 근 · 현대 실천불교 형성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효봉과 구산 선사는 인간 본성을 추구하는 '진성(眞性: 인간의 본래 마음자리)'의 탐구에 있어서 지눌과 사상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보조의 <선문촬요> 중 '진성은 인간의 가장 깨끗한 마음자리이므로 진성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불국토지만 진성에 미혹하면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물들어 번뇌망상이 스스로 생겨나 삼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구산의 <구산선문> 중 '자기의 참다운 성품인 진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불보살이 되고 피안의 세계에 머무르지만 진성을 잃게 되면 그가 바로 중생이요 그곳이 바로 사바세계니라'의 내용에서 합일점을 도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석사자>와 <구산선풍>의 내용 중 '깨달음은 찰나요, 수행함은 만겁에 있는 것이니, 수도자는 정과 혜를 닦음을 한시도 게으리 말지니라'를 통해 구산은 지눌의 돈오점수와 정혜쌍수의 수행관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눌의 '정혜결사'가 경허 · 한암 선사의 결사운동과 봉암사 결사 등에 사상적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사운동은 부처님의 정신을 회복하고 불교의 혜명을 계승하고 교단의 승풍을 진작시키고 사회 · 역사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던 지눌의 결사정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봉암사 결사(1947년)때는,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 보조국사의 장삼을 모본으로 호사스런 일본식 가사 장삼을 수수한 한국식 장삼으로 바꾸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는 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믿음-무엇을 어떻게?

정토학회, 29일 세미나

한국정토학회(회장 보광)는 9월 29일 대전 자광사에서 제9회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승불교의 믿음의 문제(信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종교에 있어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고 대승불교의 여러 분야인 정토와 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의 '대승불교의 신관'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의 '신에서의 믿음의 문제' 등을 비롯해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에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금강대 권탄준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02)581-3138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20일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사진)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연흔(漣痕:물결자국), 공룡발자국 화석 그리고 퇴적 층리(層理) 등이 계승사 경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흔이 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이르고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그 밖에도 이 곳에는 퇴적구조 층리와 용각류 · 수각류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병철 기자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는 쉽니다.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터(급)안내
● 위치: 화순에서 20분거리
● 건평: 1125평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 아미타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4천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5255-9288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 433-1106
010-7440-33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압량면
● 대지: 약 310평
● 건물: 요사채 25평,법당 25평
● 특징: 정면에 못이 있어 경관이 수려
● 가액: 보증금 2억 8천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53)802-0577
011-9186-0724

토굴이나별장안내
●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 건물: 목재건물 2동
011-838-6568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500여평 사용 (무상임대)
● 건물: 법당 1동 20평, 방3개
● 특징: 약 70여년 됨
(입야: 4700여평 매입 수용가능하며 실버타운, 납골당 적지라 생각됨)
● 가액: 9500만원(절충가능)
011-288-6668

사찰및복지팬션시설안내
● 위치: 경주보문단지에서 감포쪽 황룡계곡
● 대지 143평, 전답 300평 총 443평
● 현재 건물 5동 있음
● 산세 아름답고 앞에 맑은물 계곡이 흐르고 있음
054)771-2345
010-7530-8585

포교당안내
● 위치: 제주 시내 대단지 아파트 부근 대로변 옆
● 법당: 20평
● 시설완비
● 가격 저렴
010-2303-965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5분거리
● 부지: 1천평 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6평
● 요사채 75평, 심야보일러 50평
● 가액: 집기포함 2억 8천5백
016-536-877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진구 가야 2동
● 건물: 일반주택(1, 2층)
● 총대지 50평, 건평 30평
● 주차가능, 지하철 역세권 시장인접,유동인구 많음
● 가액:1억 5천만원
054)654-8450
011-880-765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평수 : 60평(2,3층)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모든 집기 일체
032) 662-1774

사찰터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190-2번지
● 대지 666평
● 건물: 구가옥 35평
● 평당 40만원
011-299-4465

목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
국판 | 144쪽 | 전 5 권 세트 - 각권 5천원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저자의 잔잔한 사자후
• 우리나라 최대 도심사찰의 성장 노하우가 들어있음.
•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 참선의 바른 법 제시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053) 474 - 8228
[부속출판사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 475 - 3707]

일주문



자비의 쌀 나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혜성 스님은 9월 27일 오후 7시 청담복지관에서 지역 무의탁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결식아동 200가정에게 각각 20㎏씩의 쌀을 전달한다.



재가화엄학림 초청 강연

생명평화탁발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자비신행회 2층 강당에서 '재가화엄학림 초청 특별강연'을 한다. (062)234-0090



범종불사 회향 및 산사음악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선운사에서 범종불사 회향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63)561-142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걷기대회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9월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46회 풍경소리 음악회 개최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9월 23일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풍물놀이패 굴림 등이 출연하는 '46번째 풍경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 세미나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9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건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장보고 선단과 해양 불교' 주제 세미나를 연다.



'생명생태주의' 주제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이사장은 9월 29일 오전 10시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서 판화전

목판화가 강행복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에서 '강행복 목판화전'을 연다.

인사

불교방송 국장 △보도국장 선상신 △기술영상국장 구기범 △총무국장 최찬기 / 팀장 △경영기획실 총괄기획팀장 박원식 △경영기획실 방송심의팀장 이선희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장 김상준 △편성제작국 포교제작팀장 전승환 △편성제작국 아나운서팀장 이현정 △보도국 정치외교팀장 강동훈 △보도국 경제산업팀장 윤용근 △보도국 사회문화팀장 박관우 △기술영상국 라디오팀장 강응규 △기술영상국 영상팀장 신창현 △기술영상국 인터넷방송팀장 김봉래 △총무국 총무팀장 신범식 △총무국 광고팀장 안훈 △총무국 사업팀장 박상필

울산불교방송 실무추진단 △울산불교방송설립실무추진단장 박시하 △울산불교방송설립실무추진단 실무위원 구태서

"종무행정 체계 갖추면 도심포교 효과도 만점"

'종무행정론' 펴낸 조기룡 박사



"체계적인 종무행정을 통한 도심포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미개척분야인 종무행정을 10년간 연구해온 조기룡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사진)가 불교계 최초로 종무행정서를 발간했다.

동국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종무행정론>은 조 박사가 조계종 포교원에 5년간 근무하며 직접 실무도 경험한 만큼, 종무행정이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이론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융화하고 있다.

"이제는 사찰도 주먹구구식 운영은 안 됩니다.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미래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사찰의 운영이 가정의 살림살이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한 조 박사는 "사찰도 종무행정을 조직, 재무, 인사로 분류해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이 책에서 종무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론 부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무행정 조직이론과 종무행정조직의 원리, 특성을 설명한 후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조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도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또 출가종무원, 재가종무원, 신도로 구분해 관리방안을 제시했으며, 종단예산과 사찰예산으로 구분해 예산의 원칙과 종류, 과정을 기술했다.

조 박사는 "원활한 종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종교조직으로서 불교교단의 존립을 위해 필수요소인 전법교화 즉 포교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일선 사찰의 스님과 종무원은 물론 학제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무행정론> 말미에는 포교의 의미에서 포교방법론, 법회관리방법까지 수록돼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춤 읽는 코드 화쟁사상서 찾았죠"

'한국 춤의 코드와 해석' 발간한 김지원 박사



한국적 코드로 한국을 읽는 것이 어째서 어려운 일일까? 서양의 잣대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우리의 문화를 읽는 '눈금'을 서양의 잣대에서 찾는 한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탐구하고 규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춤을 한국의 눈금으로 읽으려는 시도, 그 속에는 당연히 불교 의식무를 읽고 해석하는 코드도 포함된다.

연구하는 무용가 김지원(32 • 사진)씨는 불교 의식무를 포함한 한국 춤의 기본 코드를 '화쟁사상(和諍思想)'에서 찾았다.

김씨는 최근 발간한 <한국춤의 코드와 해석>을 통해 한국춤을 '한국 춤의 패러다임'으로 보려는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호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국 춤을 분석하면서도 서양식 2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삼진박'에 기초한 지극히 한국적인 코드를 적용한데서 김씨의 천착은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우리 춤에는 5천년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재된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 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김씨는 한국 춤의 형태와 정신을 기호학의 기표와 기의에 대입 하고 동양의 삼재(천지인) 사상이나 풍류도 음양오행 사상은 물론 일심의 가르침을 두루 대입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 기호학적인 접근을 통해 김씨는 '흥'과 '풀어냄' '근원으로의 회귀' 등 한국 춤에 흐르는 정신을 두루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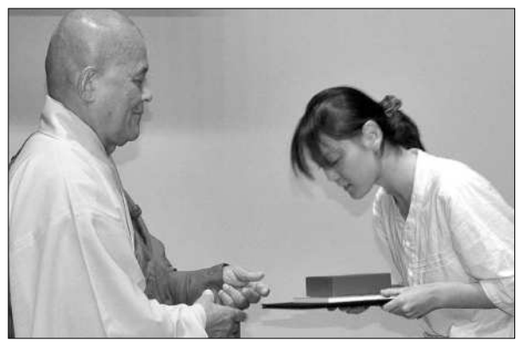
"불교 의식무를 관통하는 정신은 화쟁사상입니다. 둘로의 갈라섬이 아닌 아우름의 가르침이 녹아 있기에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영원히 소통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죠. 불교를 반영한 한국 춤은 일심의 미학을 지향합니다. 이상과 현실, 일상과 성스런 세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에 나와 너, 주와 객, 성과 속의 대립과 갈등이 춤을 통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기호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보다 간결하면서 명확한 무보(舞譜) 작업을 가능케 한 것이 김씨가 무용계에 내놓은 결실로 축약된다.

한양대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씨는 한양대와 청운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서울 서대문문화회관에서 개인 공연도 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동국대 · 대불련 학생 50명에 장학금



조계종립대학인 동국대 학생과 대학생 불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총무원장 장학금 수여식이 9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성적과 봉사점수, 가정형편, 조계종 사찰 신도 여부를 고려해 서울캠퍼스 25명, 경주캠퍼스 15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10명 등 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난해와 달리 장학금 지급 대상을 동국대 불교대학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의 3, 4학년으로 폭을 넓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공부할 때 여건이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로 공부해야 참공부"라고 격려했다.

학생대표로 장학금을 받은 이연희 학생(서울캠퍼스 선학과 3학년 · 사진)은 "소중한 장학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공부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2일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강당에서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박상준씨에게 역경상을, 한기늠씨에게 예술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월운(동국역경원장) ·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스님과 주영운 이사장 등 100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북녘수해지원 물자 환송식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현지 · 원효사 주지)는 9월 18일 광주 금남로 '민주의 종' 광장에서 북녘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갖고 수도관, 시멘트, 점퍼 등 4500여만원 상당의 물자를 북에 보냈다. 이 물품은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남북수해동포돕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모은 것이다.

경운사, 홍천교도소 자장면 보시



인천 경운사는 9월 19일 홍천교도소에서 수형자들과 교정 직원 600여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이날 수형자들은 자장면을 먹은 뒤 주지 보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연 스님은 "10여 년간 홍천교도소에 상담차 다녔는데 이번에 수형자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어 기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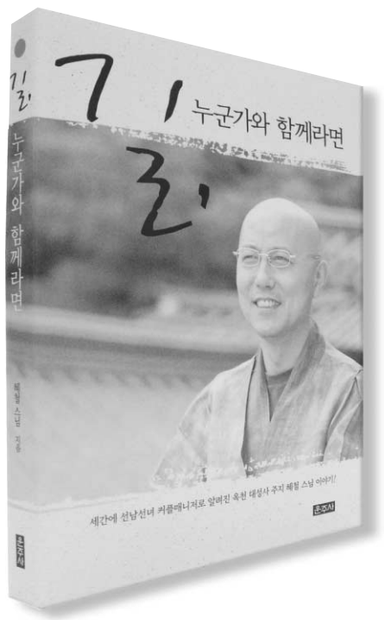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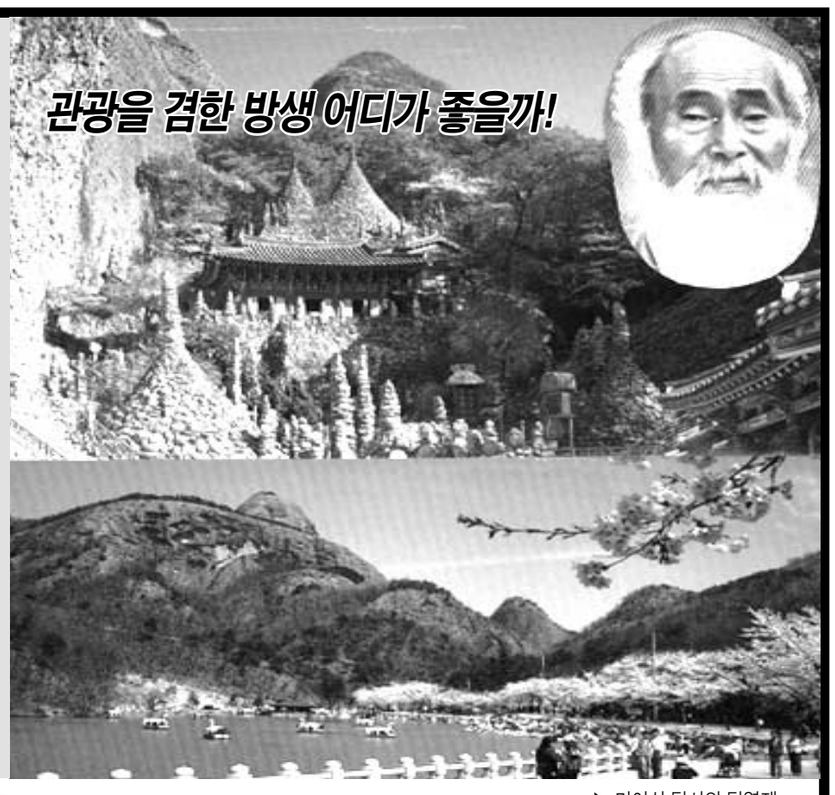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2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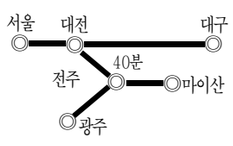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불자 세상보기

최 종 석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교수

'교황의 입'과 종교간 대화

독일 출신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를 비판한 14세기 비잔틴 황제 마누엘 팔레올로고스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폭력은 신과 인간영혼의 속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교황의 발언은 종교적 목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교황의 발언을 이슬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무슬림에게 부여된 의무인 지하드(성전)의 폭력성을 비판하였고 또한 마호메트를 함께 헐뜯은 것으로 해석했다. 교황의 발언에 대해 이슬람권은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전의 아랍인은 목축 민족이었다. 그들은 유대 민족과 같은 뿌리이다. 이슬람의 최고신인 '알라(Allah)'는 'al'이라는 관사와 'Illah'라는 신(神)의 합성어이다. 즉 유일신을 의미한다. 알라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유일신과 같은 신이다. 알라는 네 번의 계시를 했다고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일신임을 계시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으며, 예수를 통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사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완성되지 않은 종교로 본다.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이슬람문화권의 반목은 십자군 전쟁을 들지 않아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적 진리에 대한 태도로서 배타주의(exclusivism)는 오직 한 종교만이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 종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타주의는 '절대진리'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절대성과 최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타협적이고 다른 신앙을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이 입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절대성 주장'은 타종교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타종교와의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느 한 종교만이 감당하여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여러 종교들은 독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관용적 태도로 서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아직도 서구의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와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요구된다. 즉 과거의 종교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었던 천동설(ptolemaic system)에 입각한 세계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새롭게 요청되는 범인류적 종교관이란 그와는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혹성들이 함께 돌고 있다는 지동설적 세계관에로의 전회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모든 종교는 서로에게 동반자이지 결코 경쟁자이거나 적이 아니므로 서로 배워서 이해하자는 태도를 지녀야한다.

불교는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 그 근본 가르침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와 융화하여 왔다.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친화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배워야할 종교적 관용과 조화를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부터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미국 현지의 조계종 사찰들이 법인 형태의 '미주승가회'를 결성하고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의 모체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지인 포교 활성화와 사설 사암의 창건주 입적 후 재산 망실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서는, "재산관리나 행정지도 등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미주승가회의 제안과 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귀가 딱 들어맞는 답이다. 그러나 지극히 옳은 답이 대부분 그렇듯,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포교 활성화와 삼보(三寶) 정재(淨財)의 호지라는 동기와 명분을 보면,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해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명분'에 가려진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미주승가회' 결성을 축하하고자 한다.

'미주승가회' 결성의 의미

먼저 향후 해외특별교구로 승격됨을 전제로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그 '전제'가 성급해 보인다. '미주승가회'가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되는 것이 '승격'인지도 따져볼 문제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형식으로 내용을 규정받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계종이라는 우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우산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승산 스님이 세운 홍법원이나 한마음선원의 미주 지원처럼 독자적으로 포교 기반을 구축한 사찰이나 단체가, '등록과 동시에 재산권과 인사권, 감사권이 미주승가회에 귀속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단계부터 '해외특별교구'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말고,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에 입각한 협의체 성격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들이서 함께 가지 말라"고 한 부처님의 전법 선언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불교에서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주에 있는 사찰 하나하나가, 위법망구(爲法亡軀) 정신으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현지인 포교는 물론 '해외특별교구' 설립도 여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윤제학(아동문학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최근 동국대 이사회가 총장 자격요건에서 '불자'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라는 규정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변경된 것. 계를 받은 불자가 아니어도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뉴스사이트 붓다뉴스는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동국대 총장의 종교문제를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동국대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참가열기도 뜨거워 총 34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동국대 총장의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불자라야 한다'는 의견이 72%(246명)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또 '타종교 신봉자만 아니라면 불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은 13.7%(47명)를 차지했다. 한편 '상관없다'는 의견도 14.3%(49명)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기간:9.6~19, 총참가자 342명)

동국대 이사회는 최근 총장자격요건에서 '불자'라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동국대 총장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능력만 있다면 종교는 상관없다 14.3%(49명)
- 타종교 신자만 아니라면 무방하다 13.7%(47명)
- 반드시 불자라야 한다 72%(246명)

특별기고

'벽송 선회(禪會)'를 마치고



강의·논강·실참… 결사정신 잇는 정진열기

지리산 벽송사가 근래 한국불교에서 사라졌던 '선회(禪會)'를 9월 8~18일 산철 결제기간 동안 복원했다. 선회는 안거가 끝난 산철기간 동안에도 실참을 병행하면서 교학 강의와 논강으로 선과 교를 닦는 오랜 전통이지만 불립문자, 사교입선이 강조되면서 해방이후 한국 선원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벽송사 주지 월암 스님과 함께 '벽송선회'를 마련한 법산 스님이 '선회' 개최의미를 담은 기고문을 보내왔다.

요즈음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새로운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고려시대 보조지눌(1158~1210)이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참선 정진하는 막바지에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침 송나라 대혜종고(1089~1163)의 <어록>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고 당장에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보조는 곧 간화선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간화결의론>을 지었다.

그리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정혜결사운동을 실천함에 '담론(談論)'을 하고 선정을 닦으며 안거와 두타에서 부처님 계율에 의지했다'고 하였으니 간화선을 실참실구하면서 논강으로 경책하고 청규를 엄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수행가풍이 진각혜심(1178~1234), 태고보우(1301~1381), 나옹혜근(1320~1376), 벽송지엄(1464~1534)에 이르렀다.

벽송지엄은 금강상 묘길상암에서 <대혜어록>을 보다가 의심을 일으키고 <고봉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1520년(중종 15)에 지리산 벽송사를 행화도량으로 삼아 초학자에게 종밀의 <도서>와 보조의 <절요>로 여실지견을 세우게 하고, 이어 대혜의 <서장>과 고봉의 <선요>로써 간화경절의 요체로 삼아 활구참선을 지도하여 일대사를 깨닫게 하였으니 한국 불교의 수행과정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벽송지엄은 부용영관, 숭인설은, 경성일선 등 9인의 대 종장을 양성하였으며, 부용영관은 청허휴정(1520~1604)과 부휴선수(1543~1615)를 배출, 오늘날 한국불교의 승려는 모두가 그 문손이다. 근세 한국 간화선의 중흥조 경허선사도 벽송사에서 주석한 적이 있다. 경허선사는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 1899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결사하고, 1902년에는 범어사 계명암에서 수선사를 결사하여 내압과 외세로 쇠퇴해가던 실참실구 선수행 가풍을 복원했다. 그의 제자 환암선사는 1922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선회를 결사하여 한국불교의 수선결사 정신을 계승했다.

이와 같은 선종사적 선상에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지리산 벽송사에서 성만한 제1회 벽송선회는 현실을 고뇌하며 정진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도되는 새로운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안거는 전통방식대로 하지만 산철결제 차원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으면서 간화선수행에 좀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 선주(禪主) 소임을 맡은 월암 스님이 발의하여 벽송선원의 하안거 대중이 뜻을 모아 결행하게 됐다.

당초에는 벽송사의 환경이 넉넉지 못해 비구 30명 비구니 30명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제방의 선원에만 공문으로 안내하였는데도 비구 30명 비구니 80명이 신청하여 전형방법을 고심하게 되었다. 모두가 선회 취지에 발심하여 정진하겠다는데 어떻게 선별할까 그 기준을 분분히 논의하다, 어렵지만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다.

정진계획은 당초에는 새벽과 저녁에 각각 2시간씩 좌선을 하고 오전 2시간은 황벽의 <전심법요>를 선주가 강의하고 오후 2시간은 논강을 하기로 하였으나 선원스님들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 5일간은 월암 스님이 지은 <간화정로>를 교재로 중국선종사를 강의하고 1일은 <전심법요>, 1일은 특강으로 오전은 필자가 '한국선종사와 벽송사'를, 오후에는 수불 스님의 '안국선원에서의 간화선지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1일은 그 동안 분임토의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논강을 하여 수행과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루는 산행을 하여 선사들의 행적을 마음에 새기고, 입제와 해제에는 정진으로 회향하였다.

이번 선회는, 수용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누구하나 불평없이 화합하고 발심정진하는 신심나는 과정이었다. 모두가 환희심을 내어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고 대중 청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없는 여법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선회가 향후에도 계속되면서 이를 통해 눈밝은 선지식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불교를 더욱 빛내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종단에서도 뜻깊은 선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대' 만평 심 민 섭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마음속 둥근 달보다 더 밝은 한 물이 있으랴

뜻깊은 추석, 현대불교신문사가 추천하는 ★큰스님 법문★ 신간 안내

임제의 책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뜨거운 불길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는 법현 스님의 법어, 임제선의 법맥을 정통 계승한 법현 스님의 사자후!

➔ 연꽃은 그 뿌리가 진흙탕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 진흙탕을 초월하여 항상 청정하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도 욕경(慾境)에 살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살면서 티끌을 벗어남이 마치 저 연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경계에 대해서도 빈 마음이 한결같이 현전하면 원만무여한 법계의 실상을 보게 된다.

➔ 우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거울 가운데 비치는 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 줄을 알아버리면 집착이 떨어질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거울 속의 물건인 줄을 안다면, 누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탐을 내겠는가. 이렇게 본래 자기 마음의 거울을 한 번 보게 되면 물 밑에서 헤엄치는 고기도 마음의 거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도 현묘한 마음의 거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든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든 모두 자기 마음의 거울에 나타난 소식일 뿐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이 마음의 거울을 떠나 있는, 마음의 거울 밖의 소식이 아니다.

➔ 자성의 보배달을 얻게 되면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무궁무진하게 써도 다함이 없을 뿐 아니라, 금강보검을 높이 잡고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니 하늘과 땅을 쓸어버리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서 일체법의 근원인 일체의 마음이 끊어져 버린다. 이 일체의 마음이 끊어진 것을 대무심지(大無心地)라 하고 대무심지에서 자유자재한 용(用)이 나오는 것이니 마음 밖으로 드러난 지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우리 자신의 본래면목에는 티끌 하나라도 낄 수 없다. 우리의 본래면목은 의식이나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아닌 것이며, 이는 마치 영화 스크린이 필름에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장면이 아닌 것과 같다.

법현 스님 /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6,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핵심에는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스님



신간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 화두를 참구할 때 과감한 도전과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憤心), 대의심(大疑心), 간절(懇切), 굳건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허공을 부수어 버리는 큰 의지력이 있어야 간단(間斷)없이 화두 참구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 달나라에 가기 위해 발사한 로켓이 비행할 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에 돌입하면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 없이 무중력상태의 진공상태에서 무애자재하게 마음대로 떠다닐 수 있듯이 화두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오온(五蘊), 육근(六根), 육식(六識), 육경(六境), 십팔계(十八界)의 대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마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 철저히 일념(一念)의 정(定)이 이루어져야 오온십팔계(五蘊十八界)의 잡아당기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공부를 하다보면 밝은 빛이 환히 나타나는 등 바깥의 외경계에서 수천만 가지 형태의 변화가 들어오고, 안으로는 내형(內形)의 세계, 즉, 마음의 세계에서 수천만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마(魔)의 번뇌가 장난을 일으키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 "이놈이 무엇인고?" 하고 철저하게 의심관을 참구해야 합니다. 팔십 먹은 노인이 외아들 잃어버리고 외아들 찾듯 간절하게 참구해야 합니다. 7년의 가뭄 끝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자나 깨나 잊지 않고 의심하여 참구하면 반드시 확철대오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한암대원 스님 /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



43년간의 교직생활 동안 수 많은 봉사상을 받은 박승병씨는 정년퇴임 후 문화관광해설사로 또 다른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

수덕사 문화관광해설사 박승병씨

"내가 바빠야 더 많이 배워가지"

43년 교직생활 퇴임 후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육 · 봉사정신 투철, '평생 스승' 이고자
수덕사 관련자료 독파…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해"
칭찬과 반복이 노하우, 해설 후 꼭 '당부 말씀'

사찰이나 유적지 등에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간단한 정의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 '문화유산해설사'란 이름으로 601명이 배출된 이래, 지난해 '문화관광해설사'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14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울긋불긋한 가을 기운이 산과 들을 물들이던 9월 16일. 예산 수덕사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날 수 있었다.

"호서 제일가람 수덕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곱게 빗어 넘긴 하얀 머리카락과 단정한 옷차림, 맑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어르신 한 분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그의 유창한 해설을 들으며 사찰 곳곳을 둘러보던 관광객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혹시, 박승병 선생님 아니세요?"

43년간의 교직생활을 정년퇴임한 후 문화관광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수덕사 문화관광해설사 박승병(66)씨. 교직에 있는 동안 한국교총대의원 · 충남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 자문위원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대의원 등 수많은 직책을 맡아 활동했지만, 박씨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단연 '봉사하는 선생님'이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전달했고, 등굣길 학교 앞 교통정리도 직접 맡아 했다. 교장선생님이 되고 난 후에도 운동장에 버려진 휴지를 줍고 학생들 화장실도 직접 청소했다.

"궂은일은 청소부나 학생들에게 시키라"는 주위 만류에도 그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빗자루를 찾아 쥐었다.

그의 몸 속 깊이 배인 교육 · 봉사정신은 그간 받은 인간상록수상, 모범공무원상, 충남교육대상, 한국사도대상 삼락봉사상 등의 상장과 상패만으로는 담아내기 힘들 만큼 깊고 넓다. 한국사도대상을 운영하는 한국교육삼락회는 박씨가 참스승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투철한 교육 · 봉사정신으로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후진을 양성한 '평생 스승'이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을 정도다.

그는,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받은 황조근조훈장 배지를 늘 가슴에 달고 다닌다. 배지를 보며 늘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에 그릇됨이 없도록 해주는 '죽비'로 삼기 때문이다.

"저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며 즐겁게 일했을 뿐인데, 봉사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럽디다. 국가가 칭찬해주니 저도 그에 맞춰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요."

2003년 정년퇴직한 후, 박씨는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다. 학업을 마칠 즈음, 문화관광해설사로 눈길을 돌렸다. 오래 세월 교편을 잡았던 노하우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데 회향해야겠다는 뜻에서다.

해설사 교육을 마친 후 자원해서 수덕사를 찾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던 원찰이기도 했고, 그 자신이 수덕사불교교양대학 1회 졸업생이자 현재 신도회 고문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수덕사에서 안내를 맡고 있다. 정부에서는 봉사시간동안이나 월 15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는 매달 26일 동안이나 수덕사로 매일 '출근'한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다.

"퇴직하고 할 일 없이 노는 것은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백해무익한 일이죠. 퇴직자에게도 일거리를 주어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수덕사였지만, 해설을 하기 위해선 수덕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수덕사의 문화재나 역사에 관련된 책은 모두 다 구입해 15번 이상 씩 읽었다. 직접 해설 원고도 작성하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 다시 쓰기도 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예전과 다른 자료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원고를 수정했다. 문화유산 해설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작성된 원고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연구의 대상이었다. 자칫 지루해질 것을 염려해 목소리 톤을 높고 낮게 조절하기도 하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옛날이야기를 들려 주는듯한 그의 해설을 듣고 있으면 수덕사의 역사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의 해설은 단순히 유물이 보물 몇 호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어떠한지 만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바탕을 알아야 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림이 무엇이고 방장이나 조실스님은 누구인지, 안거나 사물(四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듯 문화유산 해설에 혼신을 다하다 보니 그의 '해설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해설사들도 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박씨의 '노하우'는 바로 '부처님 학습법'이다.

"부처님의 학습법은 칭찬과 반복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고 외우다 보면 자연스레 체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노력하다보면 누구나 다 멋진 해설사가 될 수 있지요."

그의 해설에는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해설이 끝난 후 '당부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세우도록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하루에 사랑한다 · 고맙다는 말 10번 이상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도록 한다. 교수들이나 사회지도층이 방문할 때는 '후배양성에 힘써라, 나라발전 위해 최선을 다해라'고 당부한다.

"최근 윤달이라 삼사순례를 위해 수덕사를 찾는 불자들이 늘었어요. 다들 한 번 휙 둘러보고 나면 떠나기 바빠요. 방문한 사찰의 역사와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의미있는 답사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해설로 방문객들의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것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는 "내가 바빠야 관람객들이 수덕사를, 더 나아가 불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며 또 다시 해설을 하러 발걸음을 옮겼다.

봉사는 시간이나 돈이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라 강조하는 박씨. 세월의 연륜이 깊게 묻어나는 수덕사 대웅전의 기둥처럼, 그 역시 수덕사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예산/글=여수령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0>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닛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하는 물음은 오랜 세월동안 눈이 한 개라도 있고 입이 제자리에 붙어있는 놈은 다 한번씩 물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선의 근본정신을 묻는 선문답의 정형인지라 이에 대해 한 마디라도 대답하지 않으면 선사 축에도 끼지 못하는 부담스런 질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에 와서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고 하여 영화제목으로 다시 살아났다. 달마대사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인도에서 왔다. 밤 마실을 나가는 것도 다 까닭이 있기 마련인데 벽안의 눈 푸른 납자가 이역만리 중국으로 배를 타고 그 모진 풍랑을 헤치고 왔으니 그 이유가 없을 수 없다.



禪의 근본정신 물으니
선사들 대답 각양각색
당신은 뭐라 답할건가

그런데 달마대사가 열반한 이후 웅이산에서 장례를 지낸 지 삼년 후에 송운(宋雲)이라는 사람이 서역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총령에서 손에 짚신 한 짝을 들고서 홀홀히 가고 있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선사시여! 어디로 가십니까(師何往)?"

"서역으로 가노라(西天去)."

송운이 복명을 마친 이후 왕에게 여담으로 길거리에서 달마대사 만난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황제가 의아해하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열게 하였는데 빈 관에 신 한 짝만 남아 있었다. 그 유명한 '수휴척리(手携隻履:손에 짚신 한 짝 들고서)' 공안의 전말이다.

달마는 다시 서쪽으로 가 버렸다. 그렇다면 달마께서 서쪽으로 가신 뜻은?

어쨌거나 달마는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버렸다. 그럼에도 '동쪽으로 온 뜻' 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일본에까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은 태평양 건너 신대륙까지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의심의 화두가 돼 퍼져나가고 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에 대한 대답은 정말로 각양각색이다.

조주선사는 '뜰앞에 잣나무(庭前栢樹子)' 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날엔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 "울안에서 소를 잃느니라" 고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섣달이 저물어도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사루지 않는다"라고도 한 바 있다. 조주선사의 답변이 비교적 다양하다. 원체 말씀을 잘 하시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운문선사는 지저분하게도 '마른 똥막대기' 라고 했다. 기상천외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현오광혜(玄悟光慧)는 '조사서래의' 를 묻는 납자에게 "예배하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不禮拜 便待何時)?"하고 되쏘아주고 있다. 아마 본질적인 답변에 너무 목이 말라 선지식에게 절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뻣뻣하게 선 채로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진지하게 물었던 모양이다.

동산(洞山)선사는 "마치 놀란 닭과 물소같느니라"고 하였고 영운선사는 "지독한 독에 쏘일 때를 임하여 우물 밑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느니라" 고 했다. 그러고보니 '내일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고 한 스피노자(1632~1677)의 말도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 모양이다.

현자(鋧子)스님은 "신주 앞에 놓인 술잔이니라(神前酒臺盤)"고도 하였고, 영안선사는 "벽 위에 마른 소나무를 그려놓으니 벌들이 다투어 와서 꽃술을 모우느니라" 하여 솔거가 그렸다는 그 유명한 벽화를 생각나게 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조사서래의를 묻는 말에 임제와 법상의 답변이야말로 최고 압권이다.

임제선사는 "만약 서쪽에서 오신 뜻이 있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若有意 自救不了)"라고 조금 고상하게 에둘러서 말하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나꿔채서 대매법상선사는 아예 한 술 더 떠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느니라(西來無意)"고 하여 가장 과격한 그러면서도 일체 군더더기가 없는 대답으로 매조졌다.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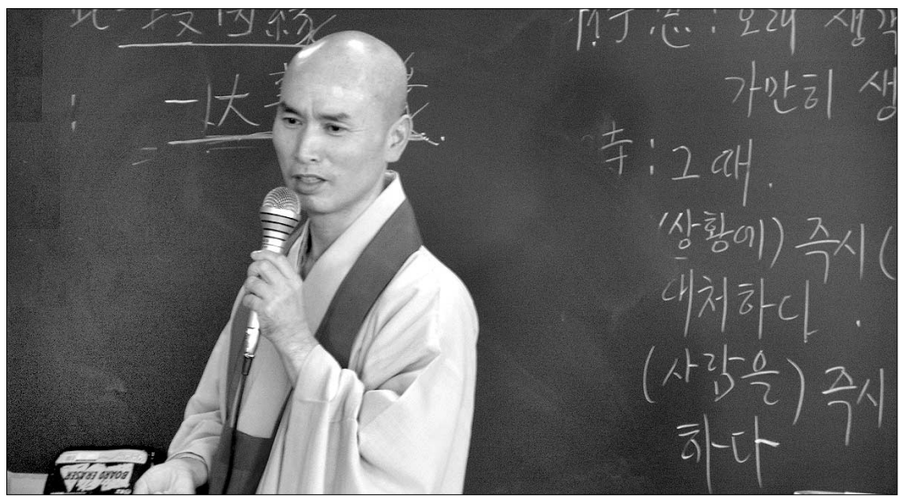
대진 스님이 말하는 '서장' 의 핵심

선방 수좌들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걸망 속에 이 책만은 넣고 짊어지고 다녔다는 <서장>. <서장>은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 왔을 정도로 선문의 요지를 간명하면서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참선 지도서다.

하지만 원문이 한문으로 돼 있는데다,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재가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해 서울 상도동 보문사는 前 직지사 강주 대진 스님을 초청해 9월 19일부터 <서장> 강의를 열기 시작했다. 강의는 10월 19일까지 매주 화 • 수 • 목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한 달간 진행된다. (02)823-7443

첫날 열린 <서장> 강의와 대진 스님 인터뷰를 종합해 <서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서장>이 왜 재가자들에게 필요한 선 지침서인지 등을 정리한다.


대진 스님은 <서장>이야말로 재가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장' 속에 생활선 있네

▷ 재가자들이 <서장>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불자라면 마땅히 경전을 읽어야 한다. <서장>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해야 할 책이다. 특히 재가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재가자들은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서장>에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실생활에서의 선 공부, 즉 생활선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서장>이다.



▷ <서장>의 핵심

소를 먹이러 가서 한 사람은 책을 읽고 한 사람은 잠을 잤는데, 둘 다 소를 잃어버렸다. 책 읽다가 소를 잃어버린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은 것은 똑같다. 도를 닦으면서 본래마음이 도를 향해 헐떡거리는 것이나 재물을 향해 헐떡거리는 것이나 헐떡거리는 것은 똑같다.

<서장>의 핵심 가르침은 정견을 확고히 세우고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화두를 들든 위빠사나를 하든 정견이 바탕이 돼야만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외도다.

<서장>을 간화선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서장>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서장>에서 화두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선을 공부하든 <서장>을 보면 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 선수행 시 경계해야 할 것

<서장>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다…(중략)…만약 마음으로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마음으로 휴식을 기다리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참선해서 미륵이 하생함에 이르러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휴식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미혹한 고민만 더해갈 뿐이다"는 내용이 있다.

공부 시작은 '정견' 세우는 일부터
깨달음 집착하는 마음 탐욕일 뿐
생활속에서 탐심 버리는 노력 해야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경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부처 · 도 · 깨달음 · 삼매 · 열반 · 무심 · 무념 · 일심 이런 것들을 '특정 세계' 로 설정을 해놓고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이념가가 되고, 그 공부는 결국 이념과 사상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념이니 사상이니 이런 게 마음에 들어오면 끝없이 무엇을 주장하고 자꾸 외침이 일어나서 마음이 휴식을 못하게 된다.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도라는 '특정 개념' 을 설정해놓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이 특정 대상을 향해 달려가면 이미 그 자체가 탐욕이다. 도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탐하는 것이나 세속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나 탐하는 것은 같다. <서장>에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도를 닦되 도를 갈구해서는 안 된다.

▷ 생활선의 요건은?

선을 논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체험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실제 생활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대혜 스님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다.

선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의 휴식과 평화를 찾는 일이다. 휴식과 평화가 찾아오면 그 자리가 도의 경계고 진리의 경계다. 이것을 조사들은 '당처성불(當處成佛)' 이라 했다.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앉아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탐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자신의 본래본성을 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마음을 잃게 된다. 대혜 스님은 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려 했다. 화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 <서장> 공부하면서 유념할 부분은?

<서장>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서장>의 내용은 사실상 대혜 스님이 재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충분히 공부한 뒤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서장' 은

중국 남송 시대의 대혜 스님(1089~1163)이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공부에 관한 여러 요지' 를 대답해 준 편지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수준에 맞게 구체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애정 어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체가 본래 성불해 있다는 선의 근본 입장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해 조사선의 체계를 확립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新編에서 解脫까지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新編에서 解脫까지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흥겨운 노래 맛있는 공양에 어깨춤 들썩~

청원 석문사 '지역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현장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열린 석문사 경로잔치는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지역 불자들의 '신행마당'으로 자리잡았다. 사진 윗부분 오른쪽이 부루나합창단 모습.

부루나합창단 등 지역 신행단체 동참
500여 어르신 위로하며 '신행교류'

9월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린 석문사(주지 혜전) 주최 '지역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말쑥한 정장차림에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라는 어깨띠를 두른 이광래 거사가 속속 모여드는 어르신들을 잔치상으로 안내한다. 똑같은 어깨띠를 두른 젊은이들과 불자들은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부루나 합창단'이라고 새겨진 진한 주홍색 앞치마를 두른 보살들도 잔치상과 주방을 오가며 부지런히 움직인다.

500여 자리가 꽉 들어차고 시작된 위안잔치. 부루나 합창단 단원들이 어느새 앞치마를 벗고 깔끔한 합창단복으로 갈아입은 채 행사장 앞에 자리했다.

위안잔치가 시작되고 합창단은 '지계의 노래'에 이어 유행가인 '내가'와 '어머나'를 합창해 흥을 돋웠다.

석문사 주최 '어르신 위안잔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충북지역에서는 가장 큰 경로잔치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다보니 매번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많은 지역 신행단체들이 봉사에 나섰다.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서다.

부루나 합창단도 그 중 한 곳이다. 부루나 합창단(단장 노금자)은 용화사, 관음사, 보문정사, 명장사, 풍주사, 평화사 등 청주지역 6개 사찰과 청원 혜은사 합창단, 그리고 태고종 연합 연꽃합창단 등 8개 합창단 불자들 가운데 55세 미만의 불자들로 구성된 '불음포교신행단체'다.

지난해 창립돼 올해 4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부루나 합창단은 군 포교를 위해 인근 군부대 수계식 행사에 참가했으며, 이번 경로잔치에 이어 복지시설과 소외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여흥시간이 이어지자 부루나 합창단원들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 수발들기에 나섰다. 노금자(60) 단장은 어르신들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불편한 점을 살폈고, 감사를 맡고 있는 이영숙(49)보살과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성자(49) 보살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일손을 보탰다.

"부루나 합창단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과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야학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열심히 신행을 하고 있어요."

명장사 합창단장이기도 한 이영숙 보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성자 보살은 "불교합창단을 알려서 우리 지역 불교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며 자원봉사온 뜻을 설명했다.

같은 시간, 청주 관음사 거사림회장 심재훈(52) 거사는 행사장 한쪽에 '간이 미용실'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의 머리를 깎느라 정신이 없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연합봉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심 거사는 불자 봉사단원들과 함께 세 번의 경로잔치에 모두 참석해 봉사를 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불교단체 '봉우회' 회장 이주원(77) 거사는 5명의 봉우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나르며 일손을 거든다. 충북불교대학 12기 회장인 조보행(53) 거사는 "우리 대학에서도 8명이 봉사를 하러 나왔다"며 음식접시를 나른다.

여흥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광래 거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거사는 경로잔치를 연 석문사의 봉사단체인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 자비원' 본부장. 공무원인 이 거사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비원 행사에는 결코 빠지는 법이 없다.

석문사 자비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도소와 소년원, 군부대 등을 다니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 오는 10월 청주교도소에서 독경대회를 개최하고, 연천의 한 군부대에서 위령제를 계획하고 있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전정환(25)·진미정(25)씨는 자비원 회원이자 학교선배인 손영숙(27)씨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왔다. 전씨와 진씨는 "혜전 스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됐다"며 웃는다.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치마가 너무 예쁘네요."

혜전 스님의 말에 부루나 합창단 노금자 단장은 "저희들이 스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나서야죠"라며 답례를 한다.

석문사 경로잔치는 3회째를 맞으면서 이제는 지역 불자들의 '신행 마당'으로 자리 잡았다. 서로 도우면서 지역불교를 일궈보겠다는 불자들의 땀방울이 청주·청원불교를 살찌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사진/청원=한명우 기자

체력·신심 다진 '화합 한마당'
충남북 운불련 체육대회 개최



충남북 7개 지역 운전불자연합회 연합체육대회가 9월 17일 충주 시민체육공원에서 열렸다(사진).

대전·천안·공주·부여·논산·청주·충주 7개 지역 운불련 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으로 진행됐으며, 대전 운불련이 종합우승을, 청주 운불련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충남북 운불련 단체장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충청 운불련 발전방안을 논의해오다,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운불련 간 친목을 다지고 교류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체육대회를 주관한 청주 운불련 박창순 회장은 "첫 행사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며 "충청지역 운불련 단체들은 연합체육대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충청 운불련 발전을 위한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월정사서 6주년 기념법회
공불련, 암자순례도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9월30~10월1일 이틀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는 첫날 월정사 불교문화축제 관람, 월정사 전나무숲길 삼보일배와 6주년 기념법회, 상원사-중대-적멸보궁을 돌아보는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일터가 도량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코드 '가족처럼'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서완수 동장

70대 어르신 두 명이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동사무소 앞에 차를 주차시키자 서완수 동장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동사무소 4층 탁구장으로 안내한다. 그 사이에 9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동장과 면담하기 위해 동장실로 들어간다. 동장이 없어도 동장실은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올해 2월 신정 1동 동장으로 부임한 양천구청 불심회 회장 서완수(56) 동장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자타가 인정하는 '진짜' 공무원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무원관을 바탕으로 주민편의를 평생의 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서 동장의 신정 1동 운영방침은 '모두가 가족처럼'이다.



서완수 동장(오른쪽)이 직원과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직원들 역시 가족처럼 대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에 한 시간씩 주민등록 등·초본을 직접 발급해주며 '가족애'를 나눈다. 올 여름 수해 때에는 주민들과 뜻을 모아 평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쳤다.

무슨 일이든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고민하는 서 동장에게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양천구청 재난관리계장 시절인 2004년, 서 동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구를 넣은 부채를 제작해 양천구 관내 지하철 구간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안전생활을 습관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세일(Sale) 행정'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서 동장은 양천구 '스타'가 됐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 동장이 불교에 입문한 것은 17년 전. 깨끗한 마음·베푸는 마음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았다는 서 동장은 8년 째 양천구청 불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구청 불자회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니까요."

이제는 문화와 복지가 대민서비스의 핵심코드라고 강조하는 서 동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끌어 올릴 각오다.

"고객감동, 고객감동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감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를 잘 모른다며 겸손해하는 서 동장. 하지만 서 동장은 말없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조계종출판사가 불교출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간화선
• 값 15,000원


불교입문
• 값 7,000원


간화선 입문
•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 값 6,000원


한글통일법요집
❶ 천도·다비의식집
•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
❷ 상용의식집
• 값 16,000원


반야심경
• 값 7,000원


천수경
• 값 8,000원

조계종출판사 발간도서

■ 신도교육 교재
『불교입문』 값 7,000원
『불교의 이해와 신행』 값 9,000원
『불교사의 이해』 값 9,000원
『불교문화』 값 9,000원

■ 수행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값 15,000원
『간화선 입문』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값 6,000원
『수행법 연구』 값 25,000원

■ 법요집
『한글통일법요집1-천도·다비의식집』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2-상용의식집』 값 16,000원

■ 경전 시리즈
『예불문』 값 6,000원
『반야심경』 값 7,000원
『천수경』 값 8,000원

■ 불교 경전
『아함경』 값 15,000원
『화엄경현담·주해집』 값 140,000원
『直指』 값 20,000원

■ 승가대학 교재
『서장』 완성판, 값 20,000원
『절요』 완성판, 값 10,000원
『도서』 시험판, 값 10,000원
『선요』 시험판, 값 10,000원

■ 지도자 지침서
『포교방법론1』 값 12,000원
『포교방법론2』 값 8,000원
『불교상담』 값 10,000원

■ 불교 일반
『조계종사-고·중세편』 값 15,000원
『조계종사-근·현대편』 값 13,000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값 20,000원
『불교 명구 모음집』 값 25,000원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값 8,000원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값 10,000원
『포교사고시예상문제집』 값 8,000원
『불교상식』 값 4,000원
『불교 첫걸음』 값 2,000원
『아름다운 인연 불교를 찾아서』 값 2,000원

■ 어린이·청소년
『고추잠자리』 값 6,000원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 값 6,500원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야』 값 7,500원
『대자유인 선사』 값 7,000원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값 8,000원

■ 영문
『WHAT IS KOREAN BUDDHISM』 값 20,000원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S』 값 7,000원

■문 의 | 조계종출판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전화 (02)733-6390 | 팩스 (02)720-6019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0>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계율(戒律)이라는 표현에서 '계(戒)'와 '율(律)'이 같이 쓰이지만 그 뜻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계'는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 잘못을 막아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율'은 어떤 처신이 더 부처님 뜻에 맞는지를 알아 '계'의 쓰임새를 잘 알고 지키자는 것이다. '계'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마음을 중생의 통제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고, '율'은 중생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려는 부처님 뜻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써 으뜸을 삼는다.

계율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 계율이야말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바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가듯,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맑고 바른 삶은 부처님의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간다. <선가귀감> 40장에서는 계율을 지켜야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若不持戒 尙不得疥癩野干之身 況淸淨菩提果可冀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온 몸에 옴이 번져 털이 빠진 말라비틀어진 들여우도 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어찌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개나(疥癩)'는 피부병의 일종으로서 온 몸에 옴이 번지며 털이 빠지는 병이니 '비루병'이라고 한다. '야간(野干)'은 짐승이름인데 여기서는 '들여우'라고 번역하였다. 몸에 있는 털빛이 청황색이며 밤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우는 소리가 이리와 같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청정보리과(淸淨菩提果)'는 수행한 결과로써 얻어지는 맑고 깨끗한 깨달음이니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수행자가 파계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할 무간지옥에 간다고 한다. 이 지옥은 짐승들의 삶인 축생보다도 못한 세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키지 못할 거라면 계를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계율이 갖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맑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데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계율 지키는 삶은 부처님 세상으로 통해 모두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重戒如佛 佛常在焉 須草繫鵝珠 以爲先導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하면 부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신다. 초계(草繫)와 아주(鵝珠) 스님처럼 계율을 스승으로 삼을지어다.

어떤 비구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겼다. 도적들은 관청에 가서 바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풀줄기로 비구를 묶어 놓고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 발가벗긴 채로 숲 속에서 풀줄기에 묶여 있던 비구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행여나 풀줄기들이 끊어져 풀들이 상할까봐 염려해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 밤이 되면 찬 바람에 몸이 떨렸고, 한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온몸이 벌겋게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독충이나 벌레에게 물렸어도 움직이면 풀이 끊어져 상할까봐 가만히 이 모든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었다.

그때 마침 사냥을 나왔던 임금이 벌거숭이로 약한 풀줄기에 묶여 고통스럽게 꼼짝 않는 이상한 비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비구를 풀어준 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참아내고 있던 비구의 사연을 알게 된 왕은 크게 감명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다. 이 비구를 이때부터 '풀에 묶인 비구'라고 하여 초계(草繫) 비구라고 불렀다.

또 옛날 어떤 비구가 구슬을 줄에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집으로 탁발하러 간 일이 있었다. 집 주인은 임금님의 값비싼 마니주 구슬을 줄에 꿰고 있다가 스님이 오자 공양 올릴 음식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다. 마당에 서 있는 스님의 붉은 가사가 투명한 구슬에 비치자 구슬이 적홍색으로 변하였다. 갑자기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그 구슬을 고기살점인줄 알고 먹어버렸다. 주인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가 구슬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비구를 의심하였다. 다짜고짜 탁발하려고 서 있는 비구한테 없어진 구슬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급해진 주인은 비구를 도둑으로 몰고는 잡아 묶어 마구 때렸다. 훔친 구슬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유(無所有)의 삶을 사는 비구가 그것을 훔칠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비구를 의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비구가 거위가 삼켜버렸다고 하면 당장에 거위를 잡아 죽일 것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비구는 모진 수모와 곤욕을 달게 받으면서도 거위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많이 난 주인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비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다.

그때 구슬을 삼켰던 거위가 벌겋게 흘린 피를 먹으려고 기웃거리다가 그만 홧김에 주인이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비구는 "내가 거위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모진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슬이 사라진 이유를 더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이 음식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 갑자기 이 거위가 나타나 구슬을 고기살점으로 알고 삼켜 버렸으니, 이제는 죽은 거위 뱃속에서 그 구슬을 찾을 수 있을 겁입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이때부터 이 비구를 거위와 구슬의 이야기를 엮어 아주(鵝珠) 비구라고 불렀다.

초계와 아주 비구 이야기는 <대장엄경론>에 실려 있다. 하찮은 풀줄기와 거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님들이 모진 고통과 곤욕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요즈음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계율에 얽매인 융통성 없는 짓이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다. 오히려 가슴 찡하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성스러운 마음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맑고 바른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계율이야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 이를 알고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면 바로 눈앞에서 부처님의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아름다운 공존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영산재(靈山齋)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상징화한 의식절차입니다. 영산회상을 열어 망자(亡者)의 영혼을 극락왕생케 하는 게 목적이죠. 49재중에 가장 장엄하게 치러지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위해서도 시연됩니다. 법화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산재의 시연절차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선 의식도량을 상징화하는 장치를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내어 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부터 시작합니다. 괘불 앞에서 찬불의식을 치릅니다. 이때 범패(梵唄)와 춤이 시연됩니다. 이른바 영신(迎神)과 청신(請神)에 이어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인 것입니다.

이날 스님들도 소임에 따라 용상방(龍象榜)을 짭니다. 증명(證明) 회주(會主) 법주(法主) 어산(魚山) 등으로 나누어 각기 임무를 수행하죠. 단이 마련되면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侍輦)의식이 치러집니다. 시련은 행렬의식이죠. 나무인로왕보살번기(南無引路王菩薩幡旗)를 선두로 청사초롱, 영기(令旗)등이 따릅니다. 제단마다 차례로 권공예배(勸供禮拜)하고 가피력을 기원합니다. 권공의식이 끝나면 축원문이 낭독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향(廻向)의식이 치러집니다. 모든 신도들이 열을 지어 돌면서 독경을 하죠. 이때 십바라밀정진을 상징하는 원형 반월형 우물자형 등으로 돕니다. 봉송의례로 영산재를 마감합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1강 혜능의 세 가지 장엄

몸 어디에 불성이 숨어있나

나도 그동안 오해했었다. 심신의 작용, 그 안쪽 깊숙한 어디에, 꼭 찐빵 속에 앙꼬가 있듯이, 불성이나 자성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 혹은 기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심신의 작용 바로 그것이, 그대로, 비약이나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 자성이고 곧 불성이다. 그래서 혜능 마조 지눌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말한다. "작용시성(作用是性), 작용 바로 그놈이 곧 자성이요 불성이다."

그동안 심신을 헤집어, 혹은 붓다 초기의 고행처럼 이 육신을 쥐어짜고 학대해서, 혹은 그것을 정지시키고서야, 그 극처에서 스파크처럼 만나거나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불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 선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나는 이 사실에 전율했다.

돈교란 "구원이 이미 와 있다"는 소리이며, 심즉시불(心卽是佛), "네가 에누리 없이 부처이다!"가 그 선언이라고 한 바 있다. 심호흡을 하고, 고요히 응진(凝眞), 생각을 모아보라. 그대 주어진데 어디 하나 빠진 것이 있는가를…. 콧구멍도 두 개, 눈도 두 개, 코도 하나, 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뿐인가, 세상에, 생각도 할 수 있네! 부처나 성인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 빠진 구석이 있으면 말해보라. 약간 한 두군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생의 몸은 그대로 부처를 닮아있다.

문제는 "내가 곧 부처다"를 사람들이 곧이 듣지 않으려 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집을 떠나거나, 기벽한 행동을 통해 이 비밀과 만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게 다 길을 잘못 들었다. 혜능과 지눌 앞에 그런 꼴로 섰다간 몽둥이 세례 깨나 맞았을 것이다. 기억하자. 메테를링크의 파랑새는 자기집 처마에서 울고 있고, 선재 동자는 깨닫고 보니 길을 떠난 바로 그 자리였다.

자성, 저 물소리 속의 고요

이 우화를, 이 구도이야기를 흘려 들으면 안 된다. 정말 깊이 깊이 새겨야 한다. 호흡을 길게 하고 돌이켜 보라. 지눌은 묻는다. "저 물소리를 듣느냐?" 우리 모두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 듣겠지만, 물소리를 듣는다. 단지 그것뿐, 더 이상 캘 것도 이루어야 할 일도 없다. 지눌은 그 물소리를 듣는 작용 속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어떤 분별도 없다. 그렇다. 다만, 듣는 것 거기가 모든 것이다. 혹, 다른 것이 있을 것이고 탐색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가치를 시비하고 있으면, 어느덧 물소리는 흩어지고, 우리는 자기 속에 유폐되거나 이미지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런 분별(分別)로 하여 우리는 물소리의 축복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선은 말한다. "너는 이미 완전하고,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 구원은 성취되었다! 네게 허여된 축복을 긁어 부스럼,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활동(作用), 우리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들은 그 자체의 여여(如如)한 가치가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과 애정 등 사회가 부여해준 관습적 가치, 혹은 미디어가 부추긴 허상(幻妄)이 아닌가.

그 모든 것들은 이름(名)이며 이미지(相)가 아닌지 스스로의 가슴에 물어보라. 진정 내가 마음으로 승인해준 가치는 법(法)이라고 불릴만한 것인데, 그것들은 직업이나 성별, 신분이나 교양에 상관없이 발휘되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심신의 작용을 통해 발휘되고 친교된다. 그렇지 않은가. 위대한 자의 손발을 나도 갖고 있고, 위대한 자의 정신을 나도 갖고 있으매, 여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장엄 아닌 장엄

하여, 우리의 몸은 자성불(自性佛)이고 여기 디디고 선 땅은 불국토(佛土)이다. 잡화(雜花), 수많은 꽃들의 우주적 축제에 참여할 티켓을 가진 신성한 몸과 마음을 누가 홀대하는가. 삶은 그토록 누추한 것이 아니시로 장엄이라 일컫느니라. 장엄에 셋이 있으니 제1은 '세간의 불토(世間佛土)'를 장엄함이다. 절을 짓고 경을 베끼며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2는 '몸의 불토(身佛土)'를 장엄함이니, 모든 사람을 보되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제3은 '마음의 불토(心佛土)'를 장엄함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토가 깨끗해지기에, 념념(念念)이 언제나 무소득심(無所得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六祖] 佛土淸淨, 無相無形, 何物而能莊嚴耶. 唯以定慧之寶, 假名莊嚴, 莊嚴有三, 第一莊嚴 世間佛土, 造寺寫經布施供養, 是也, 第二莊嚴身佛土, 見一切人普行恭敬, 是也, 第三莊嚴心佛土, 心淨卽佛土淨, 念念常行無所得心, 是也.

– "불국토는 청정하여 이미지도 형태도 없다." 삶은 이미 주어졌다. 우리의 삶은 다만, 그 안에서 경영될 수밖에 없다. 푸념하지 말지니, 지혜는 그 '위대한 수용'에서 시작한다고 한 바 있다. 그때 문득 세상이 평등하고 화평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 "정혜의 보물로 임시로 장엄이라 한다." 장엄이란 이를테면 세상 속으로 나를 들이밀면서, 거기 보상도 기대도 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으로 이 땅에 요익(饒益)을 주되, 나는 그것을 의식하거나 자랑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장엄이다. 이를 <금강경>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지만, 그것은 장엄치 않은 것이다.(菩薩…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라고 했다.

세상의 원리 마음속에 있어

– 혜능은 이 우주적 참여로서의 장엄을 세 가지로 특화했다. 하나는 '세간 불토의 장엄'이다. 세간불토는 '사찰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뜻한다. 거기 공양한다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에 의식적 의례적(儀禮的)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전을 베끼고 외며, 절에 보시하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둘째는 '몸으로 하는 불국토 장엄'이다. 이 몸을 경건히 잘 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 혜능은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절간을 번듯이 하는 불사'보다 위대하다고 가르친다.

배려로서의 장엄보다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사'이다. '마음으로 하는 불국토 장엄'이란 내 마음을 언제나 밝고 환하게, 구름끼지 않게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 마음 하나가 깨끗해지면, 곧 온 세상이 밝아진다. 사람이 남에게 하는 생각과 태도, 말은 곧 스스로의 관심과 수준의 반영이다.

내가 도둑이면 모든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갈 도둑처럼 보이며, 자신이 부처이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 손 모으고 공경하게 된다. 무소득심(無所得心), 세상에 내가 얻을 것도, 가질 것도 뭐, 별 대수냐 싶은 마음, 그 여유로운 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그 가닥을 통해 숨통을 열고, 어느덧 사태해결의 부드러운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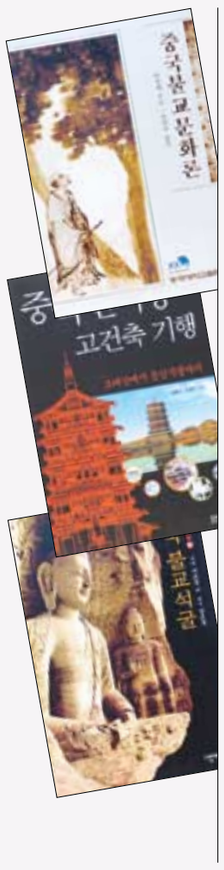
세상이 오직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오해이다. 세상의 원리는 따로, 즉 '마음'에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마음의 불국토 장엄하기



불교문화로 본 중국은?

그동안 나온 중국 관련 서적은 총 10000여종에 달한다. 중국 관련 서적의 판매량도 급증하면서 각 대형서점마다 중국서적 전문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관심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경제, 중국가서 돈벌기등의 서적이 강세다. 한때 동아시아의 중심에 섰던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중에서도 중국 불교문화에 대한 갈증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문화를 알기위해서는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불교문화를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 나온 중국불교문화 관련 서적 3권을 들여다 보자.



1. 도교와 만나 부딪치고 하나되다

중국불교문화론
뢰영해 지음 / 박영록 옮김 | 동국대출판부 | 2만5000원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 중국화 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불교는 처음 중국 전통문화에서 탄생되고 발전된 도교와 부딪치게 된다.

불교와 도교는 상호 투쟁하면서도 융합하는 복잡한 관계를 보인다. 불교는 수나라와 당나라시대 이후로 중국전통문화와 융합한 뒤 왕도정치(王道政治), 인생윤리(人生倫理), 시 · 문 · 서화(詩 · 文 · 書畵), 조소건축(彫塑建築)등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 남경(南京)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당대 중국의 대표적 불교학자 중 한 사람인 뢰영해(賴永海) 교수가 도교와 유학 등 학술 · 철학 · 시문 · 소설 · 희곡 · 서예 · 그림 · 조각 · 건축 등 고대 중국불교의 진면목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중국불교문화론>은 불교의 중국화인 본체론(本體論)을 일관되게 적용시키고 있다. 저자는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본체론이라 보고 통일적 조합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중국 불교의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을 저자의 폭넓은 관점을 통해 예리하게 지적한 점은 독자들에게 중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대중성과 학술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도 상세한 역자의 주석을 달아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산시성 모르면서 중국 안다고 말라

중국 산서성 고건축 기행
김홍식 · 조유전 지음 | 고즈윈 | 1만2500원

우리나라 고건축을 연구하거나 실크로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오대산부터 윈강석굴(雲崗石窟)까지 볼 수 있는 중국 산시성(山西省)이다.

오대산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남선사 대전(782년), 불광사 대전(857년)이 있으며 현존하는 목탑 가운데 가장 오래 되고 높은 응현목탑(불궁사 석가탑 1056년) 및 화엄사(금나라 1140년 중수) 등 요 · 금 시대의 많은 절이 있다.

더구나 오대산은 화엄경에 의해 성립된 문수신앙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고승인 <왕오천축국전>을 쓴 혜초 스님, 황룡사9층탑을 세우고 통도사를 창건했던 자장율사, 9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의 조사도의 스님을 비롯 나옹 혜근, 무학 자초, 축원 지천 등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 다동에 있는 윈강석굴은 고구려와 대단히 밀접한 문화교류를 맺고 있던 북위의 문성제가 즉위(452년)하면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건축과 불교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요 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유행하여 발전했으므로 고려대장경도 거란대장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조판되었듯, 우리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 유산을 통해 그들과 동류족(同類族)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3. 거대 석굴 속 부처님의 신비

중국 불교석굴
마쓰창 지음 | 양은경 역 | 다할미디어 | 2만원

둔황 모까쿠(莫古窟), 다퉁 윈강석굴(雲崗石窟), 뤄양 룽먼석굴(龍門石窟)을 비롯하여 충칭 다주성굴(大住聖窟) 등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이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인 이 불교석굴들은 중국의 역사 · 정치 · 문화 · 예술을 이해함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중국 불교석굴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책에는 중국 석굴에 대한 의미와 지역 구분에 대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시기적인 특징과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 신장지역, 즉 중앙아시아의 석굴 중 쿠차의 키질석굴에 대해 연구사를 우선으로 하여, 석굴 유형, 벽화의 특징, 석굴 중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쑤, 산시, 닝샤지역의 석굴'에서는 하서지역의 이른 시기의 석굴과 북량석탑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둔황 모까쿠의 발견 경위와 북조 · 수 · 당대의 석굴구조와 벽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석굴에 대한 학자들간의 논쟁점도 소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석굴은 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예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사진은 규모나 미술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탁월한 윈강석굴의 모습.

네티즌 강추

달라이 라마 하버드대 강단에 서다



달라이 라마 하버드대 강의 주민황 옮김, 작가정신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불교철학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무지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다.

이 책은 1981년 8월 달라이 라마가 하버드 대학에서 닷새 동안 열린 초청 법회에서 불교철학을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다.

우리가 윤회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최면으로 전생과 중음을 경험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가족을 갖고 싶은 욕망도 집착인지 등 일반인들이 평소 궁금해 할만한 질문에 달라이 라마가 명쾌하게 답한다. 난해하게 여겨지는 불교철학과 티베트 불교의 진면목을 달라이 라마 특유의 지혜가 넘치는 친절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자기의 내면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 보자.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천천히 관조해 보자.

어째서 본래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금자탑, blog.naver.com/yommimi)

500년동안 산에 숨어 살아온 남미 인디언



영혼의 부족 코기를 찾아서 앨런 이레이라 지음, 샨티

이 책은 남미 인디언의 살아있는 문명에 대한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치열하고 방대한 탐험물이자 기록물이며 현재 인류의 문명과 의식에 대한 근복적인 도전이다.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스페인은 이곳에서 수많은 인디언을 죽이고 금을 실어갔다. 금이 바닥나면서 코기족 마을인 타이로나는 잊혀졌다.

그들을 다시 찾아낸 사람은 무덤 도굴꾼들이었다. 우거진 밀림 속에 있던 타이로나 사람들의 '잃어버린 도시'가 그들에게 처음 발견된 것이다. 우연찮게 이 잊혀진 문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립된 산악 지대인 시에라에 50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스로를 인류의 스승이라는 '코기'로 칭하는 이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각박한 세상, 잊혀져 가는 인간의 자유와 정신들.

인간의 영혼과 교류하는 지구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여전히 이런 가치들을 지키며 사는 코기족이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서술한 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이네, 지구와 우주와 내와 우리가 하나로 숨쉬고 있네'이다. (sinsundream, lifelog.blog.naver.com/sinsundream)

책속의 밑줄긋기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역(易)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 천문(天文)을 살펴 일월오성(日月五星)과 뭇별(星)들을 관측하고 연구하여 달력의 기초인 역법(曆法)을 만드는 일과 인간의 길흉(吉凶)을 점치는 점성학(占星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 지리(地理)를 살펴 인간이 사는 집과 죽은 자의 집(무덤)을 연구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고난 오행(五行)의 기운(氣運)을 살펴 인생의 길흉을 미리 알아보는 사주학(四柱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학문을 통틀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잘 살피는 것이 바로 역이고, 이 역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역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기 쉬운 역의 응용> 본문 4쪽에서, 강진원 지음, 정신세계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액자 / 조각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분별심 끊어야 생사 넘는다"


법현 스님

생사의 두 가지 영상이 나타나 비치지만 본래 생사의 그림자가 없는 '진여법계'를 가리키는 '옛거울(古鏡)'. 이 옛거울은 영겁 전부터 후까지 항상 변함이 없는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어 나고 죽는 것을 똑같게 하거나 초월한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밝디 밝은 '옛거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항상 고요히 광명을 발하는 이 옛거울을 밝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찌해야 온갖 분별망상 속을 헤매는 중생의 살림을 청산하고 명경과도 같은 환한 밝음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서옹대종사와 제산선사의 법맥을 이어 서울의 임제선원에서 참사람 결사를 주도하며 임제종지를 펴고 있는 서울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무명과 번뇌가 둘이 아니고 생사고가 바로 청정한 부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한 조사선이야말로 최상승의 길임을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에서 가리켜 보인다.

'조사선이 최상승' 밝힌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5000원

"눈병이 난 사람이 물건을 볼 때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둘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자기의 옛거울을 어찌 밝힐 것인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화두란 그 자체가 중생의 분별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붉게 달아오른 뜨거운 쇳덩어리 같은 것이고, 분별심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지혜의 보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기만 하면 천만 가지 차별적인 현상들과 진리의 큰 바다가 본래 둘이 아님을 터득하여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광명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것.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과 온갖 분별심을 끊어버리는 지혜의 보검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법현 스님의 선법문집은 누구에게나 권할 만하다.

"하루 5분 내삶 돌아보라"


대원 스님

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참선을 하십시오. 5분이라도 내가 살아온 길을 반추하며 쓰레기통에 마음의 찌꺼기를 버려보세요.

문: 전쟁 테러 살인 사기…, 도처에서 참담한 풍경이 발견됩니다.

답: 어쩌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충족이 행복은 아닙니다.

문: 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답: 나를 찾는 과정인 선을 해야 합니다.

계룡산 산자락에 자리한 학림사는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보기드문 수행도량이다. 여름과 겨울의 안거철이 아니더라도 학림사 오등선원의 '길 없는 길'을 찾아나선 선객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한다.

'밀전참선요법' 등 상세히 안내


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한암 대원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3000원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는 물론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은 오등선원 조실 한암 대원 스님은 선을 체험하고 맛보고 온몸으로 살면서 주장자를 들어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한암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님의 법에는 어떠한 정신이 흐르는가?

스님은 선의 궁극적 목적이 청정자성의 자리를 깨닫는 무아(無我)의 달성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분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등선원 대중들이 이를 널리 밝혀 보이고자 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 대원 스님이 이어받은 조선시대 조계종의 선맥을 제시하고, 큰스님의 법문과 언론매체와의 대담, 나아가 참선 공부를 돕기 위한 참고의 글들을 함께 엮었다.

특히 대원 스님이 말하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화두참구의 마음자세와 방법 및 병통을 일러주는 '밀전참선요법'과 불교와 유학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밝혀준 '밀전불법통지'는 나란히 길을 찾는 선객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화두와 시의 만남



화두시
이상미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일체의 사량분별을 여의도록 하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으로, 곧바로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수단인 '화두(話頭)'.

염송시라고도 하는 화두시는 화두를 재료로 삼아 지은 시를 말한다. 그러나 화두는 그 난해성으로 인해 수행자 스스로 뜻을 깨닫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안집인 <선문염송>을 펴낸 무의자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은 간화일문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천명한다. 스님은 역대 조사들이 미미 깨달음의 길로 알려준 화두를 짧은 시 형식에 담아 누구나 스스로 마음을 터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는 권상로 스님의 <진각국사어록보유>를 저본으로 화두의 원문과 염송시를 번역 해설하고, 선시를 이해하는 기본지식도 설명해준다. 또 <선문염송>에 실린 화두 전문을 실었으며, 무의자 스님의 염송시에 대한 문학적 선적 배경 및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인 이상미씨는 현재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성신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 <무의자의 선시 연구> <오언당음>(공저) 등이 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는?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
하춘생 지음 | 엔타임 | 1만원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재조명을 통해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불교전문 출판편집기획사인 中道기획(대표 신원식)이 창립 첫 작품으로 <보살승단의 정체성과 실천이념>을 출간했다.

동방불교대학 하춘생 교학처장이 집필한 이 책은 광복이후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대승불교교단의 궁극적 지향점을 조명함으로써 보살승단의 정체성 확립과 실천이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제 1부 '현대불교사의 전개와 교훈'에서 광복직후 한국불교 교단현황과 교단정화 및 분규의 실상, 교단분열, 현대불교교단사의 성격과 교훈 등을 다룬다.

제 2부 '태고종풍과 보살불교사상'은 태고 보우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보살승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실과제와 문제인식을 보는 시각 등을 소개한다.

제3부 '보살승단의 실천이념: 자리이타'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게를 비롯하여 초기-부파시대에 나타난 자리이타 사상과 반야경·유마경·법화경·화엄경등 대승경전에 보이는 보살사상을 조명한다. 중도기획(02) 2278-2240



화엄사상, 존재론적 분석

화엄의 세계, 그 원융무애의 존재론적인 구조 최경호 지음 | 경서원 | 3만5000원

최경호의 책 <화엄의 세계, 그 원융무애의 존재론적인 구조>는 화엄사상의 핵심이며 어떤 사상이나 편견에 걸림 없이 이(理)와 사(事)가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원융무애(圓融無碍)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세상 삼라만상의 실상이 원래 원융무애하다면 교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삼라만상이 원융무애한 것은 맞지만 꼭 연기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도 그 원융무애함이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불교가 연기의 법칙이기 이전에 이 세상 삼라만상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의 제1부는 원융무애의 화엄의 세계를 제시하고, 파헤친다. 저자는 하나되어 있음의 존재가 화엄의 세계가 성립하는 바탕이며, 절대현실이 화엄의 세계가 자리잡고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 또 상생과 해인삼매, 근본적 경험의 세계인 화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초발심이라고 설명한다.

제2부는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 곧바로 마음의 바탕을 드러내는 종파)으로서의 화엄선을 규명한다. 저자가 선(禪)을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주요내용은 '무념에 관한 고찰' '신회의 하택종의 본지에 관한 고찰' '마조의 홍주종에 대한 비판' '평상심에 대한 새로운 정립' '직지인심의 선으로서의 화엄선' 등이 있다.

최경호씨는 서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상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 역서로 <존재에서 규명한 선> <현상학적 운동> <신체의 현상학>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반야의 종소리	도피안사, 광덕 스님, 1만5000원
· 넉넉한 마음으로	밀알, 경산 스님, 1만4000원
· 선 수행의 길잡이	효림, 일타 큰스님, 6000원
· 소동파	김영사, 스야후이 외 공저, 1만2000원
· 절수행입문	조계종출판사, 불학연구소,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1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낀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민병직 지음 | 국판 | 288쪽 | 9,800원 www.buddhabook.co.kr

* 모든 불자 가정에 한 권씩! 선물용 ·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기

① ② 전2권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스님 옮김
국판양장 |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달마선

달마선은 선종의 뿌리이고 근본이며 정통선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달마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가경』과 초기 선종 어록들을 근거로 선종의 근본을 찾아가고 있는 책으로, 선종의 주요 개념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의 근본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박건주 저 | 국판양장 | 27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926-8362

전통 목각탱의 세계

500명의 문수보살과 500명의 문수동자가 한 도상 속에 어우러져 오대산 적멸보궁 중대 사자암(주지 인광)에 나툰다. 10월 1일 오전 10시 점안법회를 통해 장엄한 모습을 보이게 될 문수목각탱(文殊木刻幀)은 불화의 도상을 새긴 기존의 목각탱과는 달리 새롭게 구성된 창작 목탱이다. 불모 허길량씨가 2년의 산고 끝에 새로운 양식의 목각탱을 탄생시켰다.

본존 비로자나불과 협시 문수 보현보살을 모신 법당의 3면을 천불이 채우는 형식이다. 국산 은행목으로 조성한 문수목각탱은 8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합하면 가로 27m, 세로 2m10cm 규모이다.

안경 · 마스크를 쓴 동자에서부터 오리를 올라타거나 책을 보는 등 다양한 즐거움의 세계가 하단부 동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상단부의 문수보살은 온화한 상호로 비천상 · 사자상 등과 어우러져 불세계의 장엄미를 두루 나타낸다.

후불탱화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나무로 조각한 목각탱은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됐다. 평면의 회화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열망하고 깨달음을 갈구했던 당시 불자들은 목조각으로 후불탱을 만들어 보는 이의 환희심을 자아내고 신심을 북돋웠다. 그러나 목조라는 한계는 화재로 인한 소실을 불러와 남아있는 전통 목각탱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전통 목각탱은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걸어 나올듯 정교하고 장중한 불보살님들…


보물 제421호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탱, 보물 제989호 예천 용문사 목각탱, 보물 제922호 상주 남장사 목각탱.

△ 서울 경국사 목각탱

서울 경국사에는 조선 후기 18세기 중엽에 조성된 목각탱이 모셔져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하나이다. 보물 제748호인 극락전 목각탱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모두 13구의 불상과 보살을 새겨넣고 있다.

주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여러 층의 높은 앙련좌(仰蓮座, 연꽃이 위로 향한 모양을 새겨 꾸민 좌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 설법인을 취하는 본존의 좌우에는 아미타 8대 보살을 배치했다. 그 밑에는 사천왕중 증장천과 지국천을 배치했다.

△ 예천 용문사 목각탱

보물 제989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불 좌상과 목각탱은 17세기 후반 숙종 10년(1684년)에 조성됐다. 목각탱 하단에 조성기가 남아 있어 제작연도가 확실하다. 현존 목각후불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7세기 후반 조각양식을 알려주는 중요 자료다.

직사각형의 기본구조 옆에 좌우로 구름무늬 광선을 표현한 둥근 조각을 붙여 장식한 것이 독특함을 자랑한다.

본존불은 하품중생인의 아미타불인을 묘사하고 있다. 본존불을 둘러싼 사천왕 8대 보살 두 제자는 상중하 3열로 배치됐다. 상열과 중열에는 좌우 두 보살씩 8대 보살을 배치했다. 상열 보살 좌우에는 무릎 꿇고 합장한 2대 제자를 배치해 구도의 미를 살린 것이 돋보인다. 하열에는 사천왕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 상주 남장사 목각탱

상주 남장사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보광전의 후불목각탱이 장엄미를 보여준다. 보물 제922호로 지정된 이 목각탱은 길쭉한 나무판 8장을 연결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4단씩 3열로 10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을 계단식으로 배치한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보살과 제자, 사천왕 사이에는 연꽃과 꽃봉오리들이 장식하고 있고, 본존의 머리 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두 줄기로 솟아 오르는 양식도 눈길을 끈다.

회화적이면서도 조각적인 매력이 뛰어나다.

△ 문경 대승사 목각탱

문경 대승사 목각탱은 원래 영주 부석사에서 봉안하고 있던 것을 대승사로 옮겨 놓은 작품이다. 대형이면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걸작품으로 유명하다.

대승사 목각탱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주 부석사와의 분쟁 문서들 때문이다.

보물 제575호로 지정돼 있는 '상주 대승사외사사승도등장'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 등의 분쟁 문서를 통해 반환을 원했던 원 소유주 영주 부석사와 문경 대승사의 소유 분쟁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있다. 두 사찰의 분쟁이 해소되고 합의한 내용을 적어두는 약속 문서인 '완의' 역시 보물로 지정된 문서. 분쟁은 고종 13년(1876)에 목각탱을 문경 대승사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완결됐다.


문경 대승사 목각탱은 영주 부석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현존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가장 간략한 배치구도를 보이고 있는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은 현재 금산사 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물 제421호인 약수암 목각탱은 정조 6년(1782)에 제작됐다. 원만한 불상들의 모습과 배치구조, 정교한 세부조각 등으로 조선 후기 목각탱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자 당대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interview 오대산 사자암 '문수 목각탱' 조성 허길량 불모

"문수보살 전통 따르고 문수동자 자유롭게 표현"

"'부처님을 조각하는 마음은 내 내면의 부처님을 끄집어내서 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스승 우일 스님께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불모 계보를 유일하게 잇고 있는 문도에서 저는 5대째 불모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는 이번 '문수목각탱' 불사가 또다른 '성장'의 계기입니다."

15세부터 조각에 입문해 40여년 한 길을 걸어온 불모 허길량씨. 지난 2년 동안 오대산 중대 사자암에 봉안할 문수목각탱 작업을 최근 마쳤다.

"목조각이기 때문에 법당에 안치한 후 현지의 기온 습도 등으로 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질을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허길량씨는 "내 생애 이런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전통 후불목각탱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천불전을 목각탱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과 문수 · 보현보살 뒤에는 꽃비 내리는 사라쌍수를 부조로 조각해 배치할 예정이다. 천불을 대신하는 문수목각탱에 이어 현대적인 후불탱을 조성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부처님을 조각해왔지만 전통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허길량씨는 "상단의 문수보살은 전통의 부처님 상호를 그대로 따르고 하단의 문수동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표현하며 좀더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밝힌다.

그래서일까. 상단 문수보살이 불보살의 세계를 장엄스럽게 표현해내고 있다면 하단 문수동자는 천진난만한 동자와 오리 학 게 거북이 등 동물들과 연꽃 등이 자연스럽게 조각됐다.


500구의 동자 가운데는 안경 쓴 동자도 만날 수 있다.

부조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등쪽이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각칼로는 등쪽 조각을 할 수가 없어서 조각칼을 휘어서 새로 만들어서 작업했다"는 설명이다.

1977년 한국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목각탱으로 대상을 받은 이래 여러 사찰에서 후불목각탱을 조성했다. 신중탱 칠성탱 등 그동안 작업해 온 후불탱들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된 그의 저력은 기본에 대한 충실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정성에 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허길량씨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수목각탱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지만 100년 200년 후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시대적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그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치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날을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루다여, 너는 나의 가슴뜰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종을 울리리라.'
-이천오백년의 회한 中에서-

전생의 막역한 도반으로써…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원효는 그에게 어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설총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는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어쩌 보면 설총을 자식 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파계승의 노래 中에서-

파란만장한 전생과 중음의 삶을 지나 그렇게 아기도인은 태어난 것이다. 구선이 그 의식을 살펴보니 바라밀은 날 때부터 2선정(禪定)의 경지였다.
아기는 놀랍게도 4개월 동안 울지 않았다.
-아기도인 바라밀 中에서-

권 오임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젠가 뵈었던 분이야! 먼…옛날부터..난 이 분을 알았었어…!'
그녀는 설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분이다! 이 분이야말로…내 긴 수행여정의 종착역이다!'
그것은 수십 년을 수행해오면서 얻어진, 거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수행의 미로 中에서-

스승이 다녀간 후에 치선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마음길을 담은 노트 中에서-

"네가 보현이라고? 지운큰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현이가 너였어?"
정오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현의 가녀린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스님…이렇게 또 뵙게 되는군요…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내가 지운스님이었던 보현이라고…"
-소녀로 돌아온 옛 스승 中에서-

'연화사는 숲이로구나…새도 와서 지저귀고 승냥이도 와서 쉬어가고…사람도 와서 열매를 따는구나. 천 가지 벌레소리가 아늑도 하구나….그렇게 더불어 끌어안고 가는 품이…나의 품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로구나.'
-마음빗장을 열어라 中에서-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젼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고, 무색계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호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를 깨우러 올 것이다.
-금강삼매경의 인연 中에서-

그것은 구선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로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여태껏 인간세계에 봉인 된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태백산용신과 옴수련법 中에서-

중심….근본…
아무렇지 않다…
그 순간에는 버스도 사람도 시영도 도로도..천지도 아무렇지 않을 뿐…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드는 것은 없었다.
-어둠의 끝을 본 눈 中에서-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
아들인 시우의 전신은…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게 씻기 어려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당신 때문에 죽게 된거야…!' 라고.
-지옥에서 만난 인연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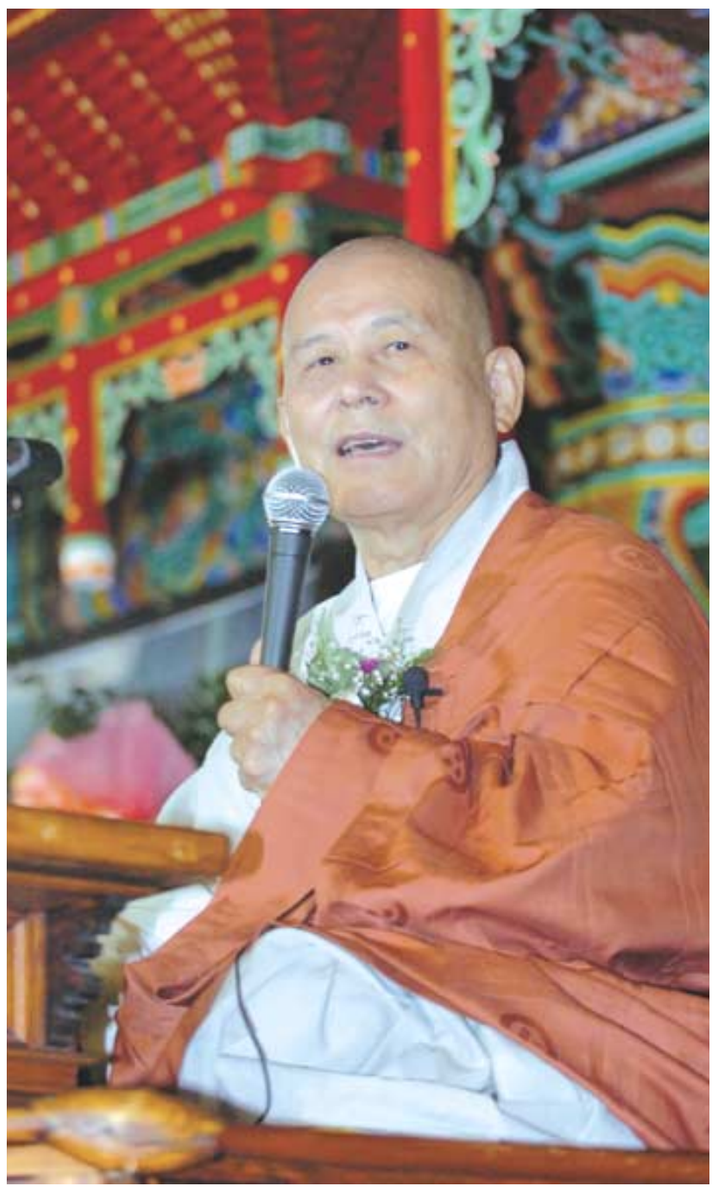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1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금강경(9월 16일)

고정관념 깨뜨려 실체 분명히 보라



9월 16일 봉선사 설법전에서 열린 강설대법회 첫 법사인 지관 스님은 "경전을 그냥 읽어서는 안되고 그 뜻을 체득해 깨달음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늘 이 법회는 참으로 뜻이 깊습니다. 봉선사가 어떤 절입니까. 조선 세조 사망 후 부인 정희왕후가 광릉(光陵) 즉 세조를 추모하기 위해 사찰을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라고 했습니다. 전국 교종을 총괄하던 곳으로 교종 본찰입니다. 대대로 교종의 맥을 이어왔지요. 운허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해 받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있는 대강백 월운 스님이 주석하시는 곳입니다.

이번 법회는 참선으로만 견성성불 오도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속에도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해 펼쳐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교종은 이 법회에 긍지를 가져야 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하며, 경전에 의지해서 깨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고, 깨칠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수행하는 것은 상구보리요, 중생을 교화는 하화중생인데, 하화중생에 목적을 두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양나라 혜교 스님이 <고승전>을 편찬할 때 10가지 분류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첫째에 속하는 것이 역경승입니다. 두 번째가 경전 주석하는 스님, 세 번째가 참선하는 스님, 네 번째가 명률이라 해서 율을 잘 지키는 스님 순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역경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서기 67년 후한 명제 때 가섭 스님 등이 모시고온 게 이 42장경이었습니다. 스님은 경전과, 석가모니불상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 삼보가 함께 전래된 거죠. 그러나 경이 아무리 와봤자 경은 스스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도 그것을 소개 · 설명하는 이가 없으면 그 위대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보배가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없으면 보배를 볼 수가 없기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경전이 중요하고 번역과 가르침 역시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주석이 필요하죠. 이것이 교종 종지의 근본입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수천종의 경전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어서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근본이고 팔만장경 가운데 핵심이 됩니다. 물론 <화엄경> <법화경> 등도 있지만 현재 부처님 경전 가운데 범본이 오롯하게 남아 있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 모양은 보아도 성품을 못보니 둘 다 없는것

소의(所依)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이, 법화종은 <법화경>이, 정토종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3부가 소의경전입니다.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말을 떠난'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말을 초월한 경지에서 말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의하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면 볼수록 차별이 생겨서 오롯한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체를 보려면 모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금강경>은 파상(破相, 모든 상을 깨뜨린다)이라 했어요. 알맹이를 보자면 껍데기를 다 버리고 부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성종과 상종을 말합니다. 상종은 유상적인 현상계, 모든 삼라만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은 그 상 속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고 둥근 모양은 돌의 상이고 굳은 것은 돌의 성입니다. 불을 보고 덥다 뜨겁다 하는데 빨간 것은 상이고 뜨거움은 성이에요. 빨간 모양은 볼 수 있어도 불의 뜨거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은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지수화풍' '사대'의 모양은 보지만 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종의 종지는 바로 자기의 성을 보기 위해 참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모든 작용하는 주체는 몸뚱이가 아니에요. 몸뚱이는 지수화풍 물질, 고기덩이지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말하는 종파입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실체를 파내야겠다, 실체를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참선을 합니다. 불립문자를 외치는데 문자는 전부 경전이요, 논이요, 글이란 말입니다.

글 속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불' '불' 하고 아무리 불러봤자, 입속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불덩이를 입 속에 넣어야 뜨거워서 온통 혼이 나지. 말로 불이라고 천만번 불러봤자 입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상은 전부 가상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왜 합니까. 실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입니다. 사실 선종인 조계종은 그 안에 참선수행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종 율종 진언종 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종파라고 볼 수 있어요.

조계종에서 의지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불립문자인데 경이 왜 필요할까요? 불립문자라 하면 경이 필요 없어요. 참선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화엄부, 법화부, 열반부, 반야부 등이 있어요. 반야부가 <금강경>이 속해 있는 부입니다. 반야부 경전만 600권이나 되는데, 그 속에 인왕반야, 호국반야, 마하반야, 금강반야부 등 8부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반야부의 600권 중 제577권에 해당하는 한 권이에요. 글자는 5천7백자쯤 되는 가장 작은 경전입니다.

> 경전공부하다 깨친 스님 많아 철저히 정진하길

<금강경>은 중국에 전해지면서 여섯 번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역은 402년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두 번째는 535년 보리유지삼장, 세 번째는 566년 진제삼장, 네 번째는 590년 급다삼장, 다섯 번째는 648년 현장 법사, 마지막은 695년 의정 스님이 번역했습니다. 삼장은 경율논을 두루 잘 아는 법사에요. 이 가운데 한국 통용본은 첫째 구마라집 번역본 입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것이 527년인데 <금강경>이 초역되고 150년 후에 건너왔어요. 달마가 선종을 세우기 전 500여년 동안 중국에 전파된 불교 사상은 전부 교종에 속해있습니다.

달마 스님이 와서 제창한 것이 '불립문자 견성성불'입니다. 선종은 수행의 한 종판데 가장 탁월한 종파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경책하고 때려잡고, 아주 오롯하게 몰고 가는데는 선종이 최고예요. 달마 스님은 "마음의 정체는 선리(禪理)"라고 말했습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 500년 간 뿌리 내린 교종 교리 때문에 달마가 말하는 사상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림굴에 가서 9년간 면벽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혜가 스님을 만나 이심전심 뜻으로 통해서 초조 달마, 이조 혜가가 된 겁니다. 법은 전할게 없이 오고 가는 눈빛으로도 서로 알아요. 고개 끄덕이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말이 필요 없어요.

법을 전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전했는지 안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없거든. 그래서 <능가경>을 증표로 줬어요. <능가경>에 네 가지 번역이 있는데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4권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 중생을 제도하라 한거죠. 그래서 <능가경>이 초기 선종의 소의경전이 됐어요.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으로 이어왔습니다. 홍인 대사 때 <금강경>으로 소의경전을 바꿨습니다.

<능가경>은 상(相) · 명(名) · 분별(分別) · 정지(正智) · 진여(眞如) 등의 오법을 주축으로 설해졌어요. 상은 명상이기 때문에 반야계하고는 반대고, 명은 이름인데, 이름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의 본래 면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별은 뭡니까. 전6식, 제7말나식 제8아뢰야식까지 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분별이에요. 제9백정식에 올라가야 무구진여입니다. 제8식도 진망(眞妄)이 화합한 잡동사니예요.

우리의 마음인 중생심에는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어요. 수행은 까만 마음을 없애고 흰 마음만 완전히 찾아내고 완성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은 까만 마음이고 계정혜 삼학 육바라밀 등은 투명하여 하얀 마음이에요.

홍인 대사는 <금강경>이 격의(格義)불교가 유행하던 당시 일반 인식과 통하는게 있고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한 것을 알아본 겁니다.

아집 법집을 깨뜨리고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을 나타내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이에요. 아집 법집을 없애고 고정 관념을 깨뜨려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집 법집을 여의고 삼공을, 내 자신 주관도 공해지고, 객관도 공해지고 나중에는 공했다는 관념까지 공해진다는 삼공을 여의어야 하는 겁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것, 유도 무도 아니면서 곧 유와 무라고 하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달마 3호-그림: 30×40cm
- 달마 4호-그림: 40×50cm


-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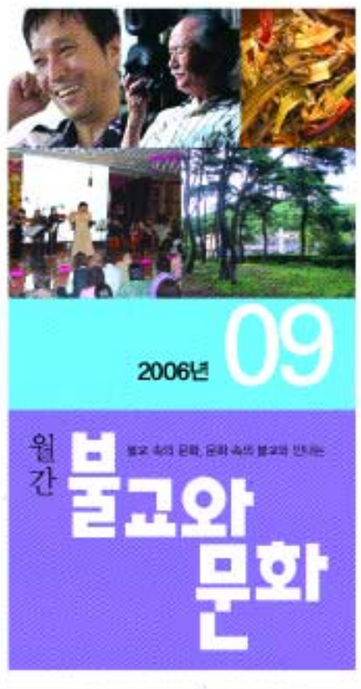

-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재)한빛교조(통제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마련한 불교계의 대표적 대중문화지로서 불교 속의 문화 ·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9월호 발간!



2006년 09

월간 불교와 문화

9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의 두 번째 주제인 '노(老)'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어 단지 늙음으로서의 노가 아니라 완숙한 가치를 드러내는 시기임을 조명했습니다. 〈신행 365일〉 코너에서는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의 활동상을 소개,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양시키려 합니다. 갱독 리틀을 맞아 불교계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운암 배학 스님을 기리는 "제기 운암 김성숙 항일운동 사적지 중국답사단"이 발족되어 『불교와 문화』에서도 동행 취재기를 실었습니다. 또한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도심 빌딩에서 펼친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 이야기" 해마 연주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신설된 〈독자들 세상〉에서는 독자기자가 도심 속 숨은 찻집을 찾아 소개한 글을 비롯하여 감동이 느껴지는 "정말 멋집니다"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차례

사진 자정행이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스승'
현장 르포 | '제1기 운암 김성숙 항일운동 사적지 중국답사단' 동행취재!
문화 속으로 | ① 니르바나 두 번째 해외 연주회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 이야기"
② 제10회 무안 백련대축제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2 – 노(老)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상법문 | 일진 스님의 다보원 '계행의 4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문
풍경돌고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신행 365일 |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전국 순회법회
환호호 쉬고 따라는 여행 | 삼마을 대직초중고등학교 김용기 교감 선생님
김종인터뷰 3 | 항상 새로운 인물과 성격을 창조하는 배우 인석환
사로 지은 절 | 그림으로 만나는 잘못 얽힌 이야기 – 만상학 作 '수종사에서 양수리를 보다'
작업실 풍경 | 구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작가 육명심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목인박물관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국제불교 산책 | 일본불교의 해외포교는 왜 실패했는가?
해외통신 | 독스티드에서 띄우는 편지, 불교를 사랑하는 앨국인 독스페드불교학연구소 "게프의 템포드"
2006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 가을 다이어트 영양식
건강에세이 | 편안하게 잘 자는 법
하루에 돌아보는 해외여행 | 서울의 고궁(古宮)



구독 및 광고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1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금강경(9월 16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는 이 사상이 중도인 것입니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사구게가 중심사상 입니다. 중간에는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인데, 석가모니라는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찾으려한다면 그 사람은 사특한 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사도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석가모니도 이름뿐이지 석가모니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을 파해주는 겁니다.

경의 말미에 이르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이와 같으니라.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같고 번갯불 같나니 마땅히 이 같이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에서 길을 가다 천만원짜리 수표를 주웠어요. 깨어보니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전해요. 꿈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환은 환각이라, 부스럭하는 소리에 아무 것도 아닌데 놀래서 뛰다가 돌을 차서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놀랍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물체가 없으면 안 생겨요. 물거품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나니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라.' 이것을 여실하게 관하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욕심을 낼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처님께서 용기를 주려고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했습니다.

'사바세계는 고통 뿐 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성과가 있겠지요. 학자가 되려는데 잘살고 잠을 다 자고 놀거 다 놀고 하면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해예요.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지라고 부처님이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사고(四苦) 팔고(八苦) 등 전부가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인연 다하면 육신을 벗어 놓고 가는 거예요.

<금강경>의 공(空)사상은 부처님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당신 이전에 있던 것들 중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상은 오로지 부처님만 주창하신 창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상이 <금강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조 홍인 대사가 <능가경>보다 <금강경>이 소의경전으로 적합하다 한거죠. 그래서 선종 소의경전이 <금강경>으로 바뀌었어요.

수행에는 많은 문이 있다 하지만 나는 크게 넷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경절견성(經截見性)문이니 길이 있든 없든 바로 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성문은 참선을 해서 견성하는 문이지요.

두 번째로 염불문이니 이는 염불을 아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닦아, 죽은 후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수행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명이 한정이 없어요.



설법전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불자들이 지관 스님의 <금강경>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세 번째는 즉신성불문입니다. 이 몸 이대로 성불한다는 뜻이에요. 대일여래를 법신으로 하는 진언종에서는 진언을 외우면 진언의 위신력으로 업장이 녹아져 마음이 밝아져서 성불한다 합니다. 이 몸 이대로 성불하는 것이 진언종의 수행방법입니다.

마지막 수행은 의교수행문입니다. 경전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수행입니다. 경전을 보다가 깨친 이가 참 많습니다. <고승전> 가운데 '감통부'를 보면 <금강경> <법화경> 등을 일념으로 읽고 외워서 업장이 녹아 깨달은 스님들 얘기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든다면 육조 혜능 선사는 저잣거리서 처음 들은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분이 귀에 걸려 그 길로 오조 홍인 대사 밑으로 들어가 공부해서 깨쳤지요. 중봉(中峰)선사는 <금강경>을 읽다가, 말세에 <금강경>을 의지해 수행하고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짊어지고 대표할 존재라는 구절을 보다가 견성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지하고 깊은 수행을 하기보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신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전수행으로 깨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전과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과 부처님만 있다 해도 포교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포교해서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해요.

부처님은 신 · 해 · 행 · 증을 말씀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실천에 옮기고 그 경지를 같이 체험해야 합니다. 모두 다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전이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전을 혼자 음미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식도 별것이 아니라고 타파한 것이 선종의 사상입니다. 그 골자가 <금강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경전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질의

북방불교 전통 넓게 펼쳐나가야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질문1] <금강경> 등 대승경전을 북방불교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에반해 남방불교에서는 팔리어삼장만 신성시하고 그 외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위경이라고 배척합니다. 또 남방부는 위빠사나만 숭상하고 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단견을 척파해 주신다면.

[지관 스님]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을 북방불교라 하고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을 남방불교라 합니다. 남방불교계에서는 팔리어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만이 불교의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실로 팔리어장경도 극히 적은 소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방불교는 북방불교보다 논리적인 교리가 빈약합니다. 북방불교는 보고 중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북방불교의 장점을 천명해야 합니다.

<금강경오가해>에서 육조 부대사와 야보 스님 등은 <금강경>을 선으로 해석하고, 규봉, 종경 스님들은 교로 해석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야보 스님의 송(頌)과 함허 스님의 <설의>입니다.

야보 스님의 게송을 일부를 소개한다면 "밤에 달이 훤히 비친 뜰 앞에 바람이 부니 대나무가 움직이나, 대 그림자가 아무리 뜰을 쓸어도 뜰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竹影掃庭塵不動 月穿潭底水無痕)"라는 게송으로 <금강경>을 설명했어요. 삼라만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 또는 공사상이며, 부처님의 진리이자 중도에요.

이런 사상은 남방불교에서는 못 찾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경을 보더라도 새벽에 한 시간은 꼭 참선해야 합니다.

요즘 남방 위빠사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능엄경> <원각경>에 비발사나(毘鉢奢那) · 선나(禪那) · 삼마발제(三昧鉢提) 등 소승선이 있어요.

위빠사나는 북방불교의 한 부분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뭉뚝한 송곳은 오래 오래 걸려도 한 번 뚫으면 구멍이 크고, 예리한 송곳으로 뚫으면 쉽게 뚫리지만 구멍이 작아요. 위빠사나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달마선 정통을 이어받은 조계종이기에 간화선을 더욱 펴고 확장하고 더 쉽게 대중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삼심불가득'이니 나였으면 면박 줬을 것



이평래(충남대 철학과 교수)

[질문1] <금강경>에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심불가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관 스님] 내가 만일 그때 그 질문을 받았다면 덕산 스님의 방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면박을 주어 망신을 시켰을 것입니다.

삼심불가득인데, 과거심 미래심 다 찾을 수 없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되기 때문에 덕산도 몽둥이 쓴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덕산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도 면박만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질문2] 종교라는 것은 사회학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향기롭고 살기좋게 만드는 사회학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도 종교학 종교사회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과 수행의 두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금강경> 속에서 혁명 · 수행 요소를 담을 수 있는 정신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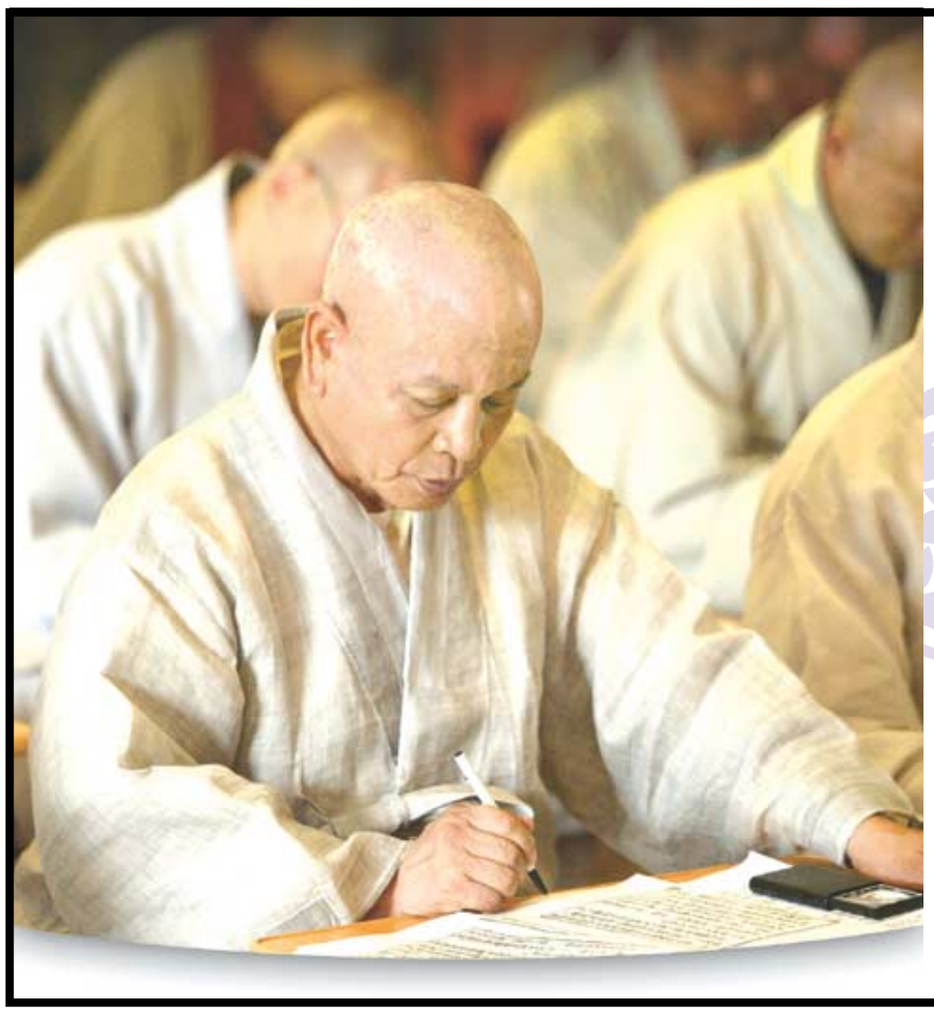
[지관 스님] <금강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질문자 말씀에 혁명과 수행이 있는데, 혁명은 실천적이고 어떤 형태의 고통을 동반해요. 고름이 차면 짜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정신이 수반되지 않는 외형적인 혁명은 구태를 제거하는 것 뿐이지 '환자'가 죽는 것은 생각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과 교화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바탕에서 병도 고치고 잘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 의심, 분노를 다 표현하는 십일면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함께 절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파사현정이에요. 정의를 나타내자면 자비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 강한 힘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교화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포악한 이에게는 부드럽게,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느긋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교화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바탕으로 모든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교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관 스님 금강경 | 의룡 스님 육조단경 | 혜남 스님 화엄경 | 응각 스님 아함경 | 지안 스님 열반경 | 각성 스님 해심밀경 | 백운 스님 법화경 |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 | 통광 스님 원각경 | 월운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25일 보살계수계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역사·전통 이어 氣茶게 만듭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박수근 대표는 "지자체에서 하동 차문화를 지원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다 명인을 찾아서 **박수근** 하동 명인다원 대표

녹차명장 1호, 중국 일본에 차 수출
1500여평 차밭서 계절차 소량 생산
황토비누 · 뽕잎차 등 개발에도 앞장

식품에도 '명인(名人)'이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호부터 농림부가 운영하는 '전통식품 명인'에 지정된 세 명의 제다 명인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녹차로는 처음으로 명인에 지정된 하동 명인다원 박수근(62) 대표를 만났다.

'국내 최초의 녹차 명인'. 하동 명인다원 박수근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박씨는 1999년 5월, 명인(제16호 수제녹차)에 선정돼 녹차 분야 명장 1호를 차지했다.

9월 18일 만난 박 대표는 가을차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제로 녹차를 만드는 차 농가 대부분이 가을, 겨울에는 차를 만들지 않는 것과 달리 박 대표는 그만의 노하우로 계절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가을차는 8월 8일부터 찻잎을 따 만드는 차로 매년 200여 통 정도, 11월 초부터 만드는 입동차는 그보다 더 적은 20~30여 통 정도 생산된다. 양은 적지만 계절에 따른 찻잎의 맛과 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 대표의 차 인연은 선친으로부터 녹차 제법(製法)을 배운 선친은 매년 정성스레 만든 차를 제사 때마다 올렸다. 지금처럼 여린 잎으로 만든 고급 차는 아니었지만, 신선한 차맛은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조금씩 만들어 친인척들에게만 선물로 주곤 하던 녹차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다.

이후 1998년 제18회 '차의 날 기념 차문화대회'에서 '올해의 명차'로 지정된데 이어 2001년에는 국제명차품평대회에서 국제명차 영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002년에도 '경상남도 우수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은상,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에서 음료·다류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좋은 녹차는 고유의 향이 진하게 우러나면서도 쓰거나 떫은맛이 없어야 합니다. 명인다원에서 생산하는 차는 아무리 오래 우려도 쓰지 않고, 10번 이상 우려도 은은한 향이 우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곡우 전, 1500여 평의 차밭에서 나는 소량의 찻잎으로 만드는 고급 녹차 '명품'은 한해 20~30여 통 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가마솥에서 아홉 번 덖고 아홉 번 비벼 말리는 '구증구포' 기법으로 만들며, 산삼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가 차를 만들 때 염두에 두는 또 하나는 바로 '기(氣)'다. "차의 기를 받은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차를 만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틈만 나면 차실에 버티고 앉아 참선을 하기도 했다.

"7~8년 정도 참선을 하고 나니 차의 기운을 조금은 알 수 있겠더군요. 문리가 터졌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 좋은 차밭에서 나는 옅은 산삼향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녹차를 수출하고 있는 박 대표는 녹차뿐 아니라 우리 천연 황토를 이용한 팩과 비누, 뽕나무 잎을 이용한 차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녹차를 마신다면 녹차의 진정한 효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음료라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 차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털어놨다.

"앞으로 차 시장이 개방돼 세계 각국의 차가 밀려들어오겠지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하동 수제차의 맥은 면면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동차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길 부탁드립니다."

하동=여수령 기자

강진군, 이한영 생가 복원
기념관 · 다도체험장 등



전남 강진군이 국내 최초의 차상품인 '백운옥판차(白雲玉板茶)'를 제조·판매한 이한영(1868~1956) 선생의 생가(사진)를 복원하고, 기념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07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생가 주변 3천 평을 매입한 뒤 생가복원과 각종 유품과 제다(製茶)기구 등을 전시할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다도체험장과 가공·전시 판매장 등도 신축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강진군 이윤재 관광개발 팀장은 "강진은 예로부터 차문화의 역사 깊은 곳이다. 강진을 명실공이 전국제일의 차 문화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월남사지(月南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한영 선생의 생가는 월남사지 정비 계획에 따라 헐릴 위기에 처했으나, 차인들과 후손들의 노력으로 이전·복원되게 됐다.

이한영 선생은 100여년 전 강진 월출산 자락에서 '백운옥판차'와 '금릉월산차' 등의 상표를 부착한 녹차를 생산, 일제 강점기에 사라져 가던 국산차의 전통과 명맥을 지켜 온 차인이다. 그가 개발한 상표 고무인과 포장지 등은 현재 후손에 의해 보존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도 아직 남아 있다.

한편 강진군은 이한영 선생 생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0. 신비의 음료

⑨ 커피 수호 '데페사'

얼마 전 음식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城都)를 방문했다. 조사 연구의 성격상 계속해서 먹은 음식이 느끼한 터라 일행들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했다. 물론 식사 때 마다 나오는 중국차가 있었지만, 우리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차로 가득 차 있는 중국의 거리에서 커피숍에 들어간 것은 문화적 충동이 가져온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실내는 약간 침침했고 실내장식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커피 종류도 다양하고 값 또한 우리 돈 3000원 정도로 다른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커피숍 안에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공급 균일화로 가격안정 등 효과 가져왔으나
출하시기 조절은 재정 · 심리적 권력의 온상 돼


브라질의 대형 커피 농장.

이렇게 세계인의 대중 음료가 되기까지, 또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기까지 커피는 많은 질곡의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세계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초기 농장주들은 대량생산을 위해 울창하던 숲을 벌목하고 불을 질러 땅을 개간했다.

그러나 이런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 농장주의 파산 등 국가 경제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자율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국가가 차관을 도입해 직접 수매하는 방식으로 커피 가격을 조절하기도 했다.

1914년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브라질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전쟁에 개입, 독일 증기선을 나포(拿捕)하기도 했다. 국가 경제의 90%가 커피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브라질로서 중립이란 어려운 문제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의 소비 증가로 잠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지만 유럽의 재정 악화는 커피 소비의 감소를 가져 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미국이 금주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알콜 대신 커피를 마셨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브라질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장주들의 농원 확대, 커피의 풍작은 정부의 '가격 안정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더 이상 커피를 수매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은 '데페사'라는 커피 수호정책 후원회를 두어 세계의 커피 시장을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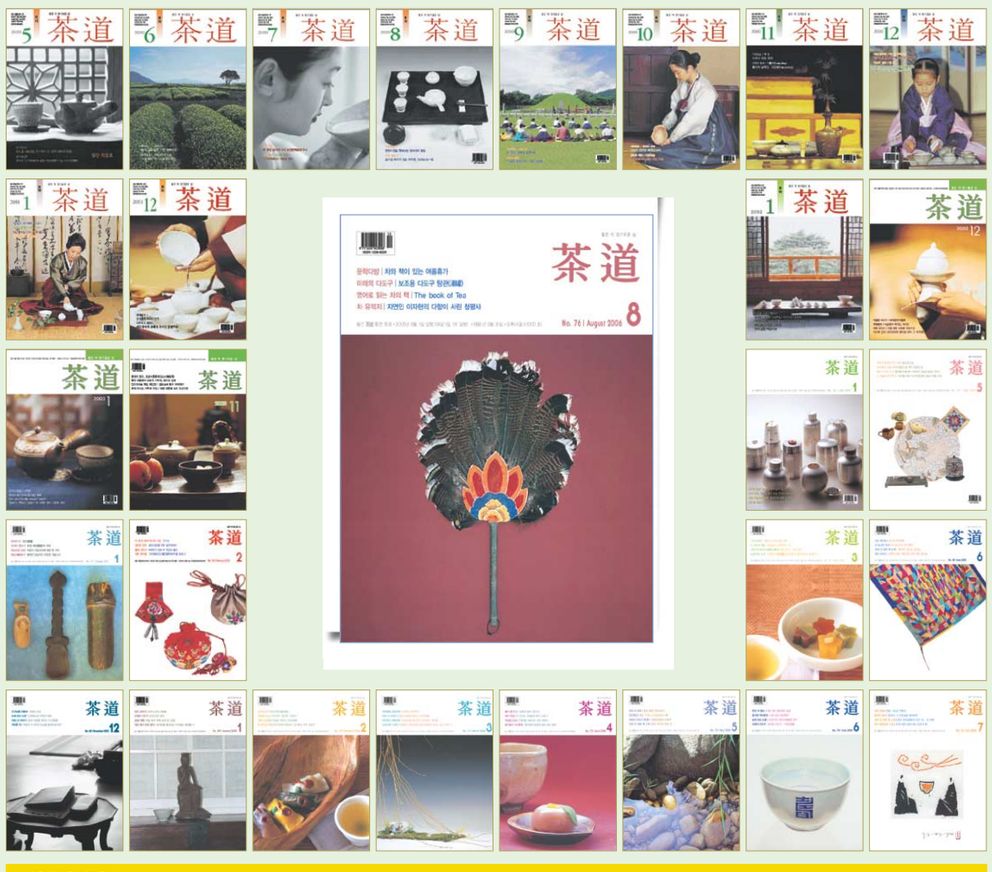
'데페사'는 레굴라도레스라는 창고를 만들어 농장주들에게서 커피를 수매하여 창고에 저장, 저장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커피의 운송을 허가하였다. 공급의 균일화는 가격 폭락을 예방하였고 저장된 커피양은 비밀이 유지되어 더 이상 투기꾼들은 커피 가격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데페사'는 재정적·심리적으로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농장주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고품질을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증대는 질을 저하시켜 주변 생산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질 좋은 커피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브라질의 커피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한다. 1931년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산된 커피를 불 태워 수급을 조절한다.

커피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브라질에서는 국가 재정의 풍요를 위해 커피를 태우는 것이니 결국 귀하면 귀할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높아져서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브라질의 커피정책은 이러한 경제 원리를 응용하여 커피를 태우는 의식을 치른 후 다시 커피의 왕국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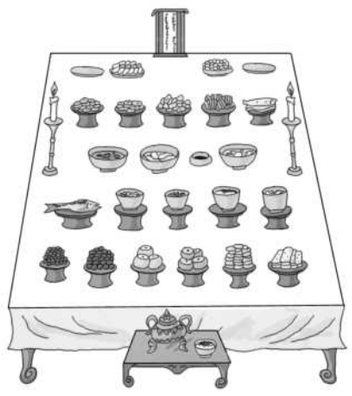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茶道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애드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4, 8219
국내 · 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사찰생협 찾아가면 추석차례상 준비 OK

한가위 연휴가 다가왔다. 유난히 긴 연휴기간 탓에 차례를 지내는 대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는 하지만 명절을 준비하는 손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특히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 주부들의 부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일의 시작은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다.

올해는 제수음식 마련을 위해 근처 사찰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지역농민들이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찰 매장이 늘고 있다.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민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로 인해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부가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유기농산물 위주 판매…인터넷 주문도 가능

좀 비싸지만 자연-사람 살리는 의미 담겨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불교 생활협동조합의 대표주자로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교생협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친환경공양미 올리기' 등 농촌 결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협동조합은 추석을 맞아 한과세트와 과일, 견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햇곡식 세트 등의 선물을 준비했다. 친환경 사과는 5kg에 3만5천원~4만3천원, 보광사 자연산 건표고버섯은 600g에 5만원, 송희자 한과모듬은 2만3천원~5만9천원까지 다양하다. 쌀과 현미, 흑미 쌀보리 등으로 구성된 햇곡식 세트는 3만3천원이다.

불교생협 생산팀 이일형 팀장은 "유기농 농산물은 일반제품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자연과 인간을 살린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며 "한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석 차례상에 친환경 농산물을 올리는 것도 뜻 깊을 것"이고 권한다.

출자금 3구좌 이상(1구좌 1만원)과 입회비 1만원을 내면 인드라망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budcoop.com)나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다. 4만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 (02)576-1882



서울 봉은사 내의 불교생활협동조합 '솔바람' 매장에서 불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생협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각 지역 사찰에 마련된 생협 매장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다. 친환경농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찰 생협 매장은 서울 봉은사(02-511-6070)와 능인선원(02-577-5800), 용주사 수원포교당(031-255-2693), 부천 석왕사(032-668-0072), 대구 관오사(053-475-2588) 등에 마련돼 있다.

최근 '친환경공양미 협약'을 체결한 서울 불광사(02-413-6060)와 화계사(02-902-2663)도 무농약 쌀과 농산물 일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구례 화엄사는 지난 7월 일주문 옆에 '구례군 10대 농 ·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설했다. 구례군 농민회가 자체 운영하는 농산물 매장에서는 산수유, 토종꿀, 녹차 등의 특산물과 감 · 밤 등의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아직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으므로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061)782-1102

전통장류가 필요하다면 경북 고계암 묘관스님이 운영하는 봉화산물식품을 추천한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전통발효식품과 찬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있다. 홈페이지(www.bongfood.com) '장보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전화주문이 가능하다. (054)674-1077

이 밖에 부산 미타선원 아름다운 가게 수자타와 대구 보현사 농산물 매장에서도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과일은 추석 직전에, 채소는 9월말에 사라

Tip 추석 장보기 이렇게

올 추석 체감 물가는 어떨까?

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과일류 가격은 소폭 내리는 반면 채소와 축산 · 수산류는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밥, 대추, 사과, 소고기, 오징어 등 28개 품목으로 추석 차례상을 차릴 때 비용이 지난해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무와 고구마 등의 뿌리채소의 수확량이 15% 가량 줄어 가격이 10% 정도 올랐으며, 수산물도 장마와 무더위로 어획량이 줄어 20% 정도 값이 상승했다. 반면 과일의 경우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조금 내릴 예정이다. 유통센터는 "과일의 경우 추석 직전에 구입하고 채소류는 1주일 전인 9월 말쯤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수산 · 축산류와 가공식품 등은 구매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제수용품 구입은 농협이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직거래 장터는 9월 말에서 10월 5일경까지 열리며, 시중가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나 농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건물과 주차장 등 시설을 재정비하고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재래시장 연합회는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맞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대청소, 지역산품 중심 선물세트, 서비스 향상, 이벤트 개최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적립금 누적이나 '10+1' 등의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쇼핑몰의 특별세일 기간이나 품목별 가격대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5>

들깨 미역국과 녹차 영양밥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제일 먼저 피부를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지긋한 보살님이나 젊은 분들이나 여자라면 누구나 피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도 많은 것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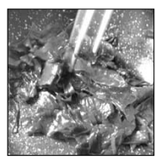
사찰음식 강의를 하면서 피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써 먹곤 합니다. "피부가 예뻐지고 싶은 보살님이나 회원님들은 사찰음식을 많이 드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회원님들이 "스님들께서는 화장도 안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운가요?"라는 궁금증을 털어놓는 것을 듣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들깨와 미역에 있다"고.

들깨에는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들깨는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미와 노화현상을 막아주므로 여름 자외선과 더위에 지친 피부에 좋습니다. 또한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에 여자들 피부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천연 화장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찰음식엔 들깨가루나 들기름 등을 많이 사용하기에 스님들은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피부가 좋습니다. 게다가 스님들은 기도와 수행으로 몸의 기를 순화시켜주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 영양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바른 음식을 제대로 조리해서 먹고 늘 대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스님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의 밝은 빛이 얼굴에 비쳐 환하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찰음식을 공부하고부터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닦으려 노력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마흔 살에 접어들지만 가끔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 만드는 법



<들깨 미역국(4인분)> 재료: 미역 1줌, 들깨 1큰술, 참기름 약간, 죽염, 국간장 약간, 채수 8컵

① 미역은 물에 불린 후 한 입 크기도 자른다. ② 잘라준 미역은 국간장으로 간을 한 후 참기름에 볶아준다. ③ 물을 붓고 미역을 충분히 끓인 후 고운 들깨를 넣어서 한 번 더 살짝 끓여준다. ④ 죽염으로 간을 맞춘다.



<녹차 영양밥> 재료: 불린 쌀 1공기, 녹차 우린 물 2컵, 불린 녹차 잎 1큰술, 감자 1/2개, 당근 1/5개, 참기름 약간, 양념장(진간장 1큰술, 다진 홍고추 1개분, 다진 청고추 1개분, 양파 1/4쪽, 통깨1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① 불린 쌀은 물기를 빼 건져놓는다. ② 감자와 당근은 아주 잘게 썬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감자와 당근을 참기름에 살짝 볶다 쌀을 넣고 볶는다. ⑤ 쌀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녹차 우린 물을 넣고 밥을 한다. ⑥ 뜸이 들 때 녹찻잎을 넣는다. ⑦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다음 주에는 표고버섯찜과 인삼소스 두부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회의)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총동문회 스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날 짜 :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11일 오후 5시

▣ 장 소 : 청암사

문 의 : 054) 437-0038 (청암사)
033) 641-8356
011) 9800-8356 (강릉 미타사 명조스님)

총동문회장 명조 합장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진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불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수요로 인해 불법이 생긴 것입니다.
- 당대 불법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금보리 상사님의 말씀

보리법문의 창시자 금보리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청장고원(青藏高原)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8년의 고수고행(苦修苦行) 끝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원만한 자비와 수승한 법력(法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원을 발원하여 세간(世間)에서 포교를 하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리상사님은 자신의 수행과 득도한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수행과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들을 창시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7일간의 실증실수(實證實修)를 통해 보리법문만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적당한(應機) 수행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상사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리수행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분들이 큰 성취를 얻으셨습니다. 이생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不可不修). 여러분이 "금보리(金菩提)" 세 글자를 들으시고 희열과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보내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7일간의 수행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행반 일정 : 2006년 10월 13일(금) - 10월 19일(목)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한국보리법문
■ 문 의 전 화 : 02)3471-9183 / 02)586-6176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나는 누구인가?

김동리 원작 '등신불' 24년만에 HD로, 10월 6일 KBS TV문학관서 방영



'만적 대사' 역의 성민 '여옥' 역의 정시아 '어머니' 역의 고두심

"삼계는 무엇인가?
"32처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살은 어떤 이인가?"

오른손 검지를 끊어 '원면살생 귀의불은(願免殺生 歸依佛恩)'을 혈서로 적어내린 후에야 원혜 대사를 만날 수 있었던 '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절에 머물 수가 있었다.

일제시대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 남경 땅에서 의미 없는 학살을 하는 자신을 보며 어느 날 도망쳐 정원사에 머무르게 된 '나'. 사찰 생활에 익숙해져가던 '나'는 선택된 불자들만 볼 수 있는 '금불각' 부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비오는 밤 몰래 들어간 금불각에서 고뇌와 슬픔에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향로를 머리에 얹은 등신불(等身佛)을 만나게 된다.

김동리 원작 '등신불'이 1982년 임혁 한혜숙 주연으로 TV문학관을 통해 제작 방영된 이후 24년만에 다시 제작됐다. HD로 제작된 '등신불'은 10월 6일 밤 10시 KBS1TV 'HD TV문학관'에서 방송을 탄다.

장형일 감독이 24년만에 다시 '등신불' 제작을 지휘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마다 '등신불'이 재방송되는 것이 부끄러웠다"며 "이번에 만든 '등신불'은 보다 원작의 배경에 충실하게 촬영하기 위해 중국에서 올로케한 만큼 이 작품이 기록에 남아 조금 덜 부끄럽다고 위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형일 감독은 소박한 제작 감상을 밝혔다.

'등신불'은 '나'가 정원사에서 들은 '등신불' 만적 대사의 이야기를 통해 불성을 가진 나를 스스로 깨닫고 초월해 변해야 한다는 불교사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장형일 감독은 "1982년작 등신불은 김동리 선생이 영화화 드라마화된 자신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만족한 작품이라고 서신을 보내오기도 한 작품"이라며 "故 이은성씨가 쓰고 김이현씨가 각색한 극본의 대사들이 잘 구성돼서 더욱 좋았다"고 회고했다.

새롭게 제작된 '등신불'은 중국 사천 지방에서 촬영됐다. 11일박 12일이라는 짧은 일정 때문에 단 한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여산 낙산대불을 비롯해, 아미산, 석경사 등에서 촬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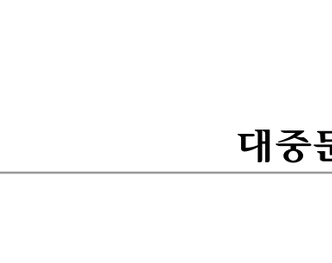
엑스트라를 구할 수도 없었다. 동네 주민들을 모았다. 통역을 거쳐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연기 지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바람 부는 장면은 광풍기로 바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지에서 광풍기라고 내놓은 것은 고작 선풍기 두 대. 그나마 한 대는 고장나서 스텝들이 부채질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비를 내

장형일 감독이 다시 제작 원작에 충실 중국서 올로케 삭발 등 배우들 열의 대단 촬영전 템플스테이도 '경험'

려야 하는 물차도 최대 진입 거리가 500m밖이어서 수압이 떨어지는 통에 나중에 그래픽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시간은 촉박하지, 찍을 장면은 다 못 찍었지, 하루만 더 찍는데 1000만원으로 된다면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찍고 싶었다"는 장형일 감독은 "그곳이 외져 비행기가 3일에 한 번 뜬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몇 장면은 여주 신륵사에서 찍었다"고 살짝기 고백한다.

만적 스님 역을 맡은 배우 성민은 "무슨 역인지도 모르고 장형일 감독님 작품이라 무조건 하겠다고 매달렸다"며 "나중에 스님역이고 삭발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평생 배우할 건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탐나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만적 대사역에 만족해했다.



'나' 역을 맡은 김정현이 열연하고 있다.



중국 아미산에서 촬영한 소신공양 모습.

만적 스님이 온 몸으로 불교의 사상을 보여줬다면 여주인공 여옥 역의 정시아는 말로 불교교리를 끊임없이 설명한다. 불자라서 더 대사들이 마음 속에 알알이 새겨졌다는 정시아는 "촬영에 앞서 배우와 스텝들이 월정사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불교를 익혔다"며 "그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 속에 담아두고 대사를 할 때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신공양 장면을 위해 기름젖은 천을 감고 6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삭발투혼을 보여준 성민, 발이 부어서 헐렁하던 꽃신이 맞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연기에 몰두했던 정시아가 있었기에 '등신불'은 더 아름답고 웅장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연극 '예스터데이'로 돌아온 함소원



"연기가 목마르다"는 함소원에게 '연기'는 화두다.

직설적인 노처녀 역 매력…"연기로 인정받고 싶어"

다이어트 노하우 담은 책·새 앨범 내년 봄 낼 예정

초등학생 시절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고민을 안고 매일 108배를 3번씩 하던 소녀. 미스코리아 출신 불자 배우 함소원이 연극 '예스터데이'로 9월 29일 관객들을 만난다.

"'무인시대'에서 사극 연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연기 잘하네'라고 시청자들이 평가해주시는 거예요. 그 평가가 너무도 창피했어요. 그렇게 연기 못하는 배우였나 고민했죠. 저 역시 연기자고,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년여의 칩거(?)를 마치고 대중 앞에 선 함소원은 2006년과 2007년을 '연기자'로 인정받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연극 '예스터데이'를 컴백작으로 고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분간은 연극 연기에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

10년 전 첫 사랑으로 얽힌 두 남녀 '은경' '기현'의 현재형 사랑이야기인 '예스터데이'는 로맨틱 코미디다. 함소원이 맡은 역은 노처녀 고고학자 '기현'.

"그동안 받은 시나리오들은 영화 '색즉시공'의 캐릭터와 비슷해서 하지 않았다"는 함소원은 "'기현'역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처녀 역인데다가 고고학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고 애착을 드러낸다. 느려터지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는 '함소원'과 매사 똑똑하고 직설적인 '기현'은 다른 점이 많아서 더 끌린다는 것이다.

성격이 다르다보니 연습 한 번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다. 소리 지르느라 목을 혹사하기도 한다. 그래도 재밌다. 같이 연기하는 선후배 동료들의 격려와 지원도 든든하다.

칩거기간 동안 춤 · 보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한 것은 연기에 도움이 됐다. 요가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차곡 차곡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서울 구룡사 신도인 함소원은 1999년까지 매일 매일 108배를 세 번씩 했다. 요즘은 절에 자주 가지 못해 '아빠'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는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다.

"성격의 폭이 좁을 수 있었는데 불교와 만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을 감사한다"는 함소원은 "대학에 단번에 붙은 것도 감사해 구룡사 소속 장미어린이집에서 1년간 봉사하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오로지 연극 생각만으로 머리 속이 가득하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다양하다. 함소원표 다이어트 노하우를 담은 책 출간과 댄스음악의 새 앨범도 내년 3월쯤 낼 계획이다.

10월 29일까지 대학로 글로브극장에서 이어지는 연극 '예스터데이'에서 배우 함소원을 재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 (02)764-4600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연극 '예스터데이' 출연진들과 연습에 몰두하는 함소원.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97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9월 27일(음력 8월 6일) 수요일

모두 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냥 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도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苦)가 있나?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 닥치나, 이런 액이 닥치나 이러시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만나서 임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건 왜 합쳐지느냐. 악의 인연도 만나고 선의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들 따라서 모습 모습을 바꿔가면서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한데 합쳐졌는데 그대로 놔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선 서로 내가 제일 대장이 된다, 대표인이 된다 하고선 싸우다 싸우다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인과로서 만난 인연들이 악의 인연, 유전의 인연, 또는 업보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한데 합치면서 그 모습은 다 없어집니다. '흥! 너 가는데 내가 못 가?' 하고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생겨서 자라는 대로 그것도 커가고 있죠. 점점 모습이 갖춰지죠. 세포의 모든 생명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의 인연을 만난 게 차례가 돌아오면 참 흥미롭고 좋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악의 인연을 만나고 유전의 인연을 만나고 업보의 인연을 만났으면 고만 병이 들고 말죠. 그러한 요소요소가 돌아가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는가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울어야 하는 이런 피맺힌 사연들을 어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되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공(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라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착(放下着)을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이것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自性),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전통신기도 눌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런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똑바로 관(觀)해 봅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네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經)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선 점을 딱 찍고 넘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야. 그대로야. 그대로, 실천이 옮겨지는 법칙이야.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한대서야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이름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뛰어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으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다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참,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편단심 공부를 했더랍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군인들이 주둔을 해가지고 거길 그냥 싹 모두 깨트려버리고 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이 났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그 동네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자손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좌선만 참선이라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만법을 활용할 수 있고, 만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실상적으로 생활이 참선이고 그대로 생활이 삼매(三昧)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죠. 약탕관을 들고 다녀야죠.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약해지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암인데요, 꼭 살려주십시오. 집이라도 팔아서 시주를 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내 가슴은 철렁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여럿이고 오두막집이라도 팔면 저거 저…, 저렇게 모르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어떤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있는 오두막집을 팔아서 고생을 한다면 내 마음은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과거생으로서부터 받은 업보라면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 그러나 사는 길이 있긴 있죠. 진실히 믿고, 어려워도 진실히 믿고 거기다가 "죽든 살든 네 탓이다." 하고선 딱 놓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난 그럭해선 요구를 안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은 쥐고 있어야 된다. 암이니까, 그거 죽을 거니까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은 있어야 자식들하고 산다고 하면서 돈은 꽉 쥡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을 해줄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가 참작해서 해주지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내놓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류를 해서 근거가 아니라면 상신을 할 수가 없죠. 뭘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법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집니다. 부처님 법에는 시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는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그것도 자유겠죠.

나는 설법한답시고, 어떻게 된 건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 있게 경을 봐서 하려고 한다면 벌써 그 묘법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하나도 가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일구월심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에 의해서 그 피 한 방울이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체계 있게 못하니까 나 안 간다 해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안 와도 할 수 없고 와도 할 수 없고, 진실히 믿어도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전에도 그랬죠. 신도분들이 내가 미약하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한 명도 안 오셔도 좋다고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꽉 찼다고요. 허공에도 많다는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다 주지 않았다고 굶거나 여러분이 갖다 줬다고 잘 먹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기껏해야 하루 온종일 먹어야 한 공기 반이나 한 공기면 하루 종일 먹을 걸, 보리밥 꽁뎅이. 아, 우리 스님들더러 물어보세요. 김치하고 먹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잘 먹겠다, 덜 먹겠다, 더 먹겠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외려 부작연(不綽然)해! 외려 부담이 간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걸 사다 주면 오히려 부담이가. 어이구, 자식들하고 자기네나 먹지 뭣 때문에 이걸 가져오나 이러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스님이 돼서 여러분한테 절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스님이니까 으레 여러분한테 보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한테 음식을 받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해본 예가 없어요. 이 세상천지와 더불어 사생(四生)이 전부 내 마음과 몸과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참, 혼연일체가 돼서 상부상조하는데 어찌 남의 일이며 내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남의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귀중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그거를 냉철하게 알고 본다면 본래 산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그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저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맘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에 붙은 밥풀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가식이죠. 진실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은 같이 돌아가고 하는 도리를 배우지마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分身)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들이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무술을 잘하던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안 깜짝거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르 떱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번연히 이것이 떡 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떡 그릇에 엎드러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를 스스로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주인공을 딱 찍어놓죠. 찍어놓으면 그 주인공은 영화가 다 끝나도록, 소설을 다 보도록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주인공으로서 딱 모든 걸 관해 봐서 나에 관한 건이라든가, 자식에 관한 건이라든가, 국가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 세상을 관해서 보려면 세계를 똑바로 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 우주적으로도

☞30면으로 계속

> *진실하게 자기 자성을*
> *믿어야 하고*
>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 *밀고 넘어가야 된다*



그림 · 최주현

어려워도 진실하게 믿고 놓으면 그게 사는 길

☞29면에서 계속

다른 혹성의 세계를 관찰해야죠.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놓는다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도 자기 마음대로지 구태여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나 점찍어 놓으면 되듯이, 영화 속에서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은 살 수 있도록 찍어놓는다면 여러분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극치적인 삶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명주옷만 입고 무명옷 입었다고 해서 전자의 명주와 똑같아야 하고 전자의 명주를 입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발전을 하려면 즉, 명주도 지금 실크로 만들어서, 실크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상하게 색채를 다내서 또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상점에 내놔야 잘 팔리겠죠. 이름은 바꿔졌으나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가르치는 것이 명주, 무명 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실크가 벌써 나왔는데 명주 가르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숭상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부처님 법을 삼백 년, 오륙백 년 뒤떨어지게끔 해서 쓰겠습니까? 앞장서도 지금 서럽다고 할 판국에 그래 뒤떨어져서, 한 오륙백 년 뒤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에 가서 "아이고, 부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으로써 비는 것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스님네들도 그냥 경을 가르쳐주는 강원(講院)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는 명주,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은 똑같으니 실크로 만들어 보자. 실크로 나왔으니 실크라는 이름이 바로 명주라는 걸, 양면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크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찾는 대로 꽃 모양을 놔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계획하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라는 이름도 부수고 넘어가야 될 판국이죠. 이 커피잔이 만약에 부처의 이름이라면 커피잔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커피잔에 물 들어있는 걸 갖다가 마셔버리면 그냥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 커피잔의 이름을 말할 거는 없죠.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요, 바로 내가 급하면 커피잔을 들고 물도 떠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비유했지만 잘들 새겨들으세요.



그림 · 최주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놓는다면 그대로 법!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거든요. 이 소리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중국 어디에서 그랬대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한 얘깁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는 무(無)의 세계의 영령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까치는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전해주는 것은 "아이구! 또 까마귀가 울어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서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막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는, 강도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구, 그 까마귀가 와서 짖더니 이렇게 흉한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까마귀 탓을 합니까?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자기 탓을 하지. 그리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뿐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사기꾼이 오는데 까치가 까악까악 짖었다 이거야. 일가친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해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해야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막 재잘대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그 창고에 금이 있는데 도둑질을 해 내갈 텐데, 이 국고가 비면 큰일 날 텐데 야단이라고 아, 이러면서 지지고 볶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큰 야단이 났거든요. 자기가 얘기해 봤던들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큰일났다고 하면서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아, 들어가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 국고가 빌 테니까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미친놈 보라고, 이 미친놈!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미친놈으로 모가지 달아나가." 그러니까 나 말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니까 정말 도둑을 맞았거든. 국고의 금덩어리가 그냥 다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나라에서 찾느라고 온통 뒤집고 야단들을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문득 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준 게.

그러니깐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길 하니까 장군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놈이 그렇게 잘 들으니 내가 저걸 이용을 해서 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좀더 나라에 이름도 올릴 겸, 돈도 벌 겸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 찾아서는 떡 "너, 아침마다 나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시켜서 가서 들어보니까는 "얘, 고놈 나쁜 놈인데 얼마 안 있으면 모가지가 달아나갈 거다." 그러거든요. 허허허. 아, 새들이 그러고 하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럭했다 하면 큰일날 테니까. 쭈물쭈물하니깐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도 못하겠다고 해서 몹쓸 고생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다 잃고 관가에 끌려가서 자기 가족도 몹시 매를 맞고 그래서 스스로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물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값 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말이란 건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키우는 돼지들이 말을 하기를 "아, 저 집은 소를 팔아왔는데 그 소 판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고 있잖아?" 하고선 말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해도요, 그 가정 일들을 다 알거든요. 돼지밥을 갖다 주는데 꿀꿀꿀꿀 하곤 돼지가 돼지물을 먹으면서 아, 서로 고개를 이러면서 하거든요. 소를 팔아왔는데도 우리 밥은 물만 준다 이거죠, 물만 준다. 하하하. (대중 웃음) 그래서 그 소릴 들은 사람이 하도 우스워서 껄껄대고 웃다가 옆 사람이 "넌 미친 놈처럼 왜 웃니?"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의식중에. "아, 글쎄 돼지들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소 판 돈이 있는데도 먹을 걸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뜨물에다가 만날 술지게미만 줘가지고선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든다고 이러더라고." 하며 껄껄대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불쑥 나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저 까마귀나 까치처럼 사생의 말 못하는 것들도 그 뜻을 모두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오백 나한을 만든 자체도, 소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다가 다시금 보살로서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적 떼들 오백 명을 부처님 앞에 귀의하게 만들어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제가 쓸모 있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치않은 말이라도 좀 더 믿으신다면 이 '컵'이라는 질서 있는 이름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를 수 있는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 · 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로 지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가는 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 통 편:
[승용차] 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 (7㎞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표 구입
-1번홈에서 내촌 혹은 현리行 버스 승차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전 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혜거 합장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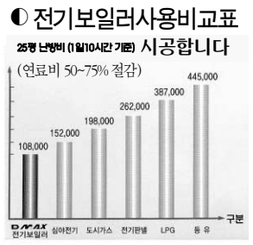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비 (1일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命理學의 새 지평을 여는 四柱解說의 革新書
體用 四柱原理 要解
체용사주원리요해
金靈震 著


비롯된 命理學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體用法을 創案하였다. 많은 착오가 발견되었으며 이런 점들을 시정하여 日干自我說 및 神殺論에서 다섯째 神·殺로써 사주를 논하는 등이다. 이상의 이론들은 현실적으로 셋째 六親 배정의 불합리 넷째 十神을 근거로 한 길흉론 첫째 日干을 자기로 고정시킨것 둘째 日干을 기준으로 한 身强·身弱의 분별 命理學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순과 불합리함을 몇 가지 발견하였다. 평소 四柱와 六爻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고 연구하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부호로 설정되어 있는 우주 내의 자신의 좌표이다. 이 부호에 함축된 내용을 연구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 머리말 중에서
신국판 / 고급양장(커버) / 314면 / 값 20,000원
화산문화 (100-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0-2 죽전빌딩 6층 T_(02)2269-1399
불교서적 및 일반 서적류 기획, 편집, 출판 / 팜플릿 등 고급 인쇄

마음을 비운 아내 (하)

김형남 (천안시 신부동)



그림 · 문병성

아내가 첫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첫딸은 재산밑천"이라며 기뻐하셨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바라셨다. 내가 외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내에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셨다. 물론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시부모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딸을 낳고 나서였다. 아내는 둘째 딸을 낳을 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임신 기간 중에도 몹시 힘겨워했던 아내는 그런 만큼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 아쉬운 마음에는 시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첫딸 때보다 아쉬워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더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둘째 딸 출산 이후 아내는 시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몸이 자주 아프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시댁에 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한 두 번이라면 몰라도 그 횟수가 늘면서 어머님께서 이따금씩 불편한 마음을 비치셨다. 아무 말씀이 없던 아버지께서도 "건강 잃으면서 그렇게 일하면 무엇하느냐"며 꾸지람을 하셨다.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내 건강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셨다.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완벽해야 하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컸다. 아버지의 꾸지람도 그런 차원에서였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아들 손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겼다. 건강해야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부모님이 하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들을 원한 건 아내였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친오빠의 두 아들을 부러워했다. 아내는 오빠에게 "우리 하나씩 바꾸자"는 우스개 소리를 자주 했다. 아내의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난 알 수 있었고, 아내는 "셋째를 갖자"며 아들을 낳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내 부모님 보다는 정작 아내가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던 것이다.

광덕사에 다녀 온 뒤 아내는 이런 얘기를 꺼내며 내게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욕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비우기 시작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오해라는 것 알게 돼

용서 · 화해의 소중함 일깨워준 아내에 감사

다스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아프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몸이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면서 여유있게 살고 싶어. 세상 모든 거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아내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모아놓은 스님들의 법문을 보여주었다. 스님 법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차츰차츰 건강을 회복한 아내는 전과는 달리 시간을 내서 절에 가려고 노력했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절에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도 인근의 절을 찾아가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곤 했다. 이따금씩 장모님과 함께 절에 가기도 하고, 경전도 읽기 시작했다.

학교생활도 달라졌다. 무조건 욕심을 내기 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실행에 옮겼고, 남보다 앞서가려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집착도 덜했다. 무조건 기대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눈높이를 맞췄다.

그렇게 편안한 날들을 보낸 지 2년이 지난 올해 7월 갑자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아버지께는 암이라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다.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온 아내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야윈 시아버지를 두고 병실을 나서지 못하는 아내에게 나는 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내의 간호가 극진해서인지 아버지는 다소간 회복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7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를 아산의 한 사찰 납골당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 때까지도 아내는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를 위로하면서 장례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49재를 치른 뒤 아내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나 그게 너무도 마음이 아파. 건강 잘 챙기라는 아버님 꾸지람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그 때부터 몇 년간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못마땅해 했었어. 그런데 2년 전 몸이 아팠을 때 엄마 생각을 하면서 느꼈어, 당신 부모님도 우리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걸. 그동안 말은 안했지만 나 당신 부모님 정말 미웠어.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 다 버렸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님께 용서를 빌지 못했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 용서를 빌지 못한 것이 왜 이리 마음에 남는지…."

아내는 2년 전 몸이 아프고 난 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잘못을 빌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사소한 오해로 몇 년간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옹다옹하며 세상을 산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세상과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이, 세상과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내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부모님 유골을 절에 모신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교 신도인 이유도 있고, 나 역시 불교신도 흉내나 내는 정도에 불과한 처지지만 그래도 절에 모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불교신도가 돼 보려고 한다. 2년 전 불교에 진심으로 귀의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아내를 스승이자 목표로 삼을 생각이다. 그토록 버리지 못했던 욕심을 어느 한 순간에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49재가 끝났으니, 이제 가족들과 사찰 여행을 다녀 볼 작정이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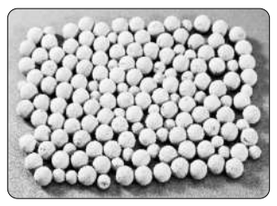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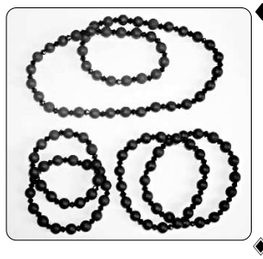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함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목련사
- 주 지 : 보타(성낙오)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 2리 325-1

상기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스 님 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법의 단비로 중생 욕망 씻어주리라


그림7 : 우란분재의 시작을 알리는 범패

불화 속의 명장면 (16)

파주 보광사 '감로탱' (하)


그림4 : 공양되는 감로(성반)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감로(甘露)가 운반되어 옵니다. 우란분재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거대한 발우에 동산처럼 가득 쌓아올려진 흰 쌀밥, 성반(盛飯)이 등장합니다(그림4). 성반이 제단에 올려지면 시식단(施食壇) 한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누구보다도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귀는 좋아라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그림5 · 6). 범패가 들썩들썩, 대연주회 직전의 설레임입니다.(그림7)

사는 데 있어 먹는 것 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는 '나는 배고프다 고로 존재한다'가 보다 더 시급한 문제. 바로 '밥'이 주제인 불화가 감로탱입니다. 작품 속의 성반(盛飯)은 그 위로 포진한 일곱 분 부처님(칠여래)의 막강한 원력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최상 최고의 맛, 바로 감로(甘露,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로 변하여 중생들의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그림6 : 아귀들

감로탱의 소의경전으로는 여러 경전들이 열거되지만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것은 <목련경>과 <우란분경>. 두 경전 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아들 목련이 음력 칠월 보름날, 하안거를 마친 승려를 위해 갖가지 음식과 과일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그 생전의 업보로부터 구한다라는 기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목련경은 우란분경을 원본으로 하는 위경(僞經)이라고도 합니다.

'우란분(盂蘭盆)'의 뜻에 대해서는 분분한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해석을 찾아본 바 이렇습니다. "산스크리트어 'ullambana'가 음차되어 와전된 말로 그 뜻은 '도현(倒懸)'이다. 인도의 풍속에 따르면 수행승의 자자일(自恣日, 안거가 끝나는 날 승려들이 마음껏 잘잘못을 말하는 날)에 성대하게 공양을 마련해 보시하는데, 이 공양을 통해 죽은 영혼을 도현(倒懸)의 고(苦)에서 구제한다. '도현의 고'란 즉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말한다. 선조가 죄업이 깊어 가계를 이을 자손이 끊겨, 후대에 그 고혼을 맞아 구원을 청해줄 이가 없으면 즉 아귀도에서 도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불가에서는 제의를 마련해 삼보(三寶)의 공덕을 불러일으킨다.<현응음의(玄應音義)제13>" '분(盆)'을 이러한 공양을 담는 용기라고도 하나, '분'은 단순한 음역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우란은 'ullam'의 음차에 해당하니, 당연 분은 'bana'의 음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이 그 뜻대로 기명(器名)을 말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백미(百味)의 음식을 우란분중(盂蘭盆中)에 담아<우란분경>", 또는 "칠보의 분발(盆鉢)에 갖추어 부처님 및 승려에게 공양하고<법원주림제16인용 대분정토경(大盆淨土經)>"라고 쓰여있어 그릇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란분은 '도현'의 뜻이지만, 번역되어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는 와중, 이렇게 음역과 의역 모두를 취하는 양분적인 단어로 정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이라는 단어는 <목련경>[만력12년(1584, 선조17) 승가산 흥복사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욕심내고 나쁜 업을 많이 쌓은 목련의 어머니는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목련이 찾아 헤매며 들여다본 여느 지옥과는 다르게, 아예 접근 불능한 커다란 아비지옥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은 만 길, 검은 벽은 만 겹, 그 위에 철망으로 덮였고, 그 위엔 네 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맹렬한 불길을 토해 허공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답니다.

목련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자, 지옥주인은 '이 문은 생긴 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라고 물으니, '이곳은 불효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삼보를 믿지않는 중생이

성반은 일곱 부처님 원력이 담긴 최상 최고의 맛
우란분재는 구천 떠도는 영혼들을 위한 상차림
음식 보고 즐거워하는 아귀들 익살스럽게 표현

목숨이 다하게 되면 업풍이 불어 거꾸로 매달려 오는 곳(倒懸)이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현이라는 단어는 워낙 죄가 무거운 자들이 받는 극한 형벌(아비지옥)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구제하기 힘든 지옥에 빠진 영혼을 구제하려니, 스님들의 기가 가장 맑고 원력이 가장 강한 날, 그러니까 하안거가 끝나는 날(7월15일) 스님들의 막강한 결집을 빌어 이들을 구제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림5 : 감로를 고대하던 아귀

그나마 목련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목련의 대단한 효심이 있었기에 구제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못한 영혼들은 아비지옥에 남아 이를 매우 부러워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처지의 대명사로 예로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이 꼽혔습니다. 즉 홀아비 · 과부 · 고아 · 무자식노인은, 고대로부터 국가의 경사 때나 또는 재난 때 가장 먼저 구휼의 대상이 되는 '복지정책 대상 1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지극히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고통은 도현, 이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 비유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재는, 물론 현세의 부모와 과거 7대의 부모를 위한 제사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후손에 없어 죽은 뒤에도 제사를 받을 수 없어 구천을 떠도는 고독한 영혼들을 위한 한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목련의 어머니 구출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가호와 신통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아비지옥에서 소흑암지옥으로, 이 흑암지옥에서 다시 아귀도로, 아귀도에서 암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월 보름날 우란분재를 지내고야 정토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감로탱의 시식단 바로 밑에 가장 크게 묘사되는 아귀는 바로 굶주림과 허기의 표상입니다. 보통 아귀 도상은 심하게 부풀어오른 둥근 포대같은 배와 매우 가는 목구멍, 입에서는 불꽃을 뿜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만, 본 보광사본 작품의 아귀는 건장한 장수와 같은 몸에 표정도 아주 밝습니다. 손은 합장을 했다기보다 등장하기 시작한 성반을 보고서 좋아라 입을 벌리고 손뼉을 치는 듯합니다. 고통스런 표정과 음산한 분위기의 여타 감로탱의 아귀와는 달리 유머스럽고 마냥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귀의 몸통 구조를 보면 그의 운명이 짐작되시겠지요. 위장이 비대하여 게걸스런 식탐이 엄청나지만 불행히도 목구멍이 바늘만하여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모순된 운명. 또 아귀가 음식을 집어 삼키려하면 그것은 매번 불덩이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 바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아귀의 모습입니다. 이는 먹을수록 배고픈 마실수록 목마른, 바로 우리의 '욕망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로(성반)가 등장하였으니, 부처님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제 곧 중생의 불덩이를 식힐 수 있는 감로의 법우(法雨)가 흡뿌리겠지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핵무기 확산방지 문제인데 세계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고자 하는 나라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 번영을 위한 일이니 합의하여 '핵 평화헌장'을 만들어 세계가 평화용으로만 공동사용, 공동관리토록 UN기구를 통해 실행하기를 제의합니다. 이 방법이 6자회담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불리함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세계평화 중심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히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층짜리 건물도 좋지만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보임이요,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러 왔다(마태복음 10장34절)는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니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치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계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이 강연을 들으시고 토론하기를 청합니다. 더욱 예를 들자면 카톨릭 성전 마태오 10장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왔다 하고, 또 35절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고도 하였으니 맞선다 함은 부모가 타종교를 믿을 때 그 칼을 들이대며 자기 교를 믿으라고 맞서 믿지 않거든 그 칼로 부모를 해치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니 이는 부모에 불효막측한 짓을 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교리들이 결국 전통 부모조상에 대한 효도사상 등 미풍양속을 파괴해 왔다 하겠고, 또 자기교를 펴기위해 칼을 쓰라고 할 때에는 필요하면 총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여 이 세상을 기독교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는 아마겟돈이라는 무서운 세계전쟁 또는 우주전쟁까지 일을키게 되어 있다니 예수는 성경 해설에서 '평화의 왕' 이라지만 오히려 전쟁왕 그것도 우주 전쟁(광?)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런지?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연을 받아들이신다면 외람되오나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막강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토론을 신청하는 法天스님!
자아! 기독교계가 어찌 나올까?
점잖게 응해올 것이냐?
꼬리를 빼 달아날 것이냐?
흥미진진!! 폭류도도!! 호호탕탕!!
세계 최초의 쟁론
기대하시라 천하가 주시하리!!
〈저 실론의 '파아나두라 대논쟁'(기독교와 불교)은 세계평화문제가 아님〉
세계평화 정토회 일동 백

● **宇宙的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日本國のお寺法會でもご要請 あれば參上お話(說法)して上げます.

● **본회가입 안내 :**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영어숙달자 환영) 집회 추후 통지.
● **목적 :** 세계평화 센터를 건립, 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세계적 활동을 하려 함.
이 일을 국내외 유지분들께서 주인이 되시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찬조 및 광고성금 뜻이 있으신 분>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평화정토회 대표 법천 학산 합장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직통 011-9230-2192